



유리건판으로 보는 창녕 고분군

ANCIENT TOMBS IN CHANGNYEONG:  
DOCUMENTATION IN GELATIN DRY PLATES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6집  
國立金海博物館 學術調查報告 第15冊

# 유리건판으로 보는 창녕 고분군

Ancient Tombs in Changnyeong:  
Documentation in Gelatin Dry Plates



# 유리건판으로 보는 창녕 고분군

Ancient Tombs in Changnyeong:  
Documentation in Gelatin Dry Plates

|      |                    |
|------|--------------------|
| 발행처  | 국립김해박물관            |
| 기획   | 이양수                |
| 편집   | 이양수 · 김혁중 · 안유리    |
| 원고   | 이양수 · 최순정 · 안유리    |
| 항공사진 | 이성현                |
| 번역   | 베일 마틴 Bale, Martin |
| 디자인  | 황룡                 |

## | 일러두기 |

1. 이 책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중 창녕 지역의 고분군 사진을 수록한 자료집이다.
2. 유리건판 사진 캡션은 국립중앙박물관, 1997~2001, 『유리원판 목록집』 I~V를 따랐으며, 사진은 목록집 순으로 수록하였다.
3. 사진에 대한 상세 설명(\*)은 창녕군 · 우리문화재연구원, 2014, 『사적 제514호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종합학술 연구 보고서-』에서 인용하였으며, 사진자료에 대한 현재 모습도 同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4. I 장 일본인 학자 이름은 일본어 발음과 한자로 표기하고 II 장은 일본어 발음으로 표기 하였다.

## 목차

### CONTENTS

|     |                             |
|-----|-----------------------------|
| 003 | 발간사                         |
| 013 | I . 개요                      |
| 013 | 1. 창녕의 가야 고분군               |
| 016 | 2. 일제강점기 창녕의 가야 고분군 조사      |
| 020 | 3. 비사별 가야에 대한 연구소사          |
| 025 | II . 일제강점기에 조사된 창녕 고분군 사진자료 |
| 025 | 1. 사진자료의 해제                 |
| 029 | 2. 사진자료                     |
| 173 | III . 맺음말                   |
| 174 | 부록                          |
| 174 | 도판목록                        |
| 183 | 참고문헌                        |



## 發刊辭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일제강점기 동안 촬영된 창녕지역 고분 관련 유리건판 263점이 남아 있습니다. 목록으로는 이미 알려졌지만 이렇게 정리되어 전부 공개된 것은 처음입니다. 촬영할 당시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100여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에서 이 사진들이 가진 의미에 대해서 다시 말할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일본인들의 창녕 고분에 대한 관심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임나 일본부’와 관련되어 왜가 가야를 정복했음을 증명해주는 유물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교동 89호 무덤에서 나온 직호문이 새겨진 칼손잡이 외에 왜와 관련된 것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 책 [도145]에 수록된 경주 보문리 합장분과 창녕 교동 7호 무덤에서 출토된 귀걸이를 비교하여 촬영한 사진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창녕과 신라의 관련성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첫 번째 관심이 발굴 이전부터 계획된 목적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관심은 발굴된 결과에 의해 생겨진 것입니다. 하지만 신라와의 연관성에 대해 일찍부터 주목받은 것에 비해 그것에 대한 이해는 현재까지도 연구자에 따라 전혀 다른 것이 현실입니다.

대표적으로 교동 12호분의 무덤 형식에 대해 경주식의 적석목곽묘로 보는 의견과 그렇지 않은 의견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도231~도235]의 사진이 주목됩니다. 1918년 야츠이 세이이치에 의해 발굴되어 촬영한지 100년이 다 되어가는 자료이지만 이 사진으로 무덤의 면모를 대충이나마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사진자료들을 발간하며, 연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는 어느 유구에서 출토된 것인지, 어디에서 촬영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자료들도 많이 있지만, 당시 관련 문서 등의 비교 검토로 많은 부분을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보고가 고대 창녕 지역의 정치체 성격 파악과 연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임 학 종

국립김해박물관장

## Foreward

There are 263 gelatin photographic dry plates that remain from the time of the Japanese Colonial Occupation of Korea and that feature mounded burials of the Changnyeong area. A master list of these images exists but this publication marks the first time that all the images have been prepared and published. It is not known for certain why these plates were conducted, but in the hundred or so years that have passed have presented the opportunity to discuss their meaning.

As already known, the Japanese were especially interested in two particular things about the mounded burials in Changnyeong. The first is the Japanese *Mimana* (*Kor: Imnabonbu*) theory of the conquest of Gaya polities by the Wa polity of the Japanese archipelago and that artefacts proving the theory were discovered. However, with the exception of a sword handle found in burial No.89 of the Gyo-dong site, Wa-related artefacts were not excavated. The second interest is the earrings found in this book [Plate145] from burial No.7 at Gyo-dong that can be compared with those excavated from the clasped tomb of Bomun-ri in Gyeongju. There was an interest in the relations between Silla and the Changnyeong region.

If it can be stated that the first interest was planned and existed before the excavations, then the second interest resulted from the excavations. Be that as it may, in comparison to the stress on the early interest in the connection with Silla, it is a completely different matter for today's researchers.

As a representative mortuary feature, there are opinions that are both for and against the comparison of burial No.12 at Gyo-dong with that of the wooden chamber tombs covered with stone and earthen mounds of Gyeongju. In regards to this we stress Plate 231 to Plate 235. Almost a century has passed since the data of these photos that were taken at the behest of the excavations in 1918 of Yatsui Seiichi (谷井濟一), but the appearance of the burials can be approximated through the photos. Photographic data of the Japanese Colonial Occupation of Korea is published here and will be a reason to conduct further research.

It is now unclear for some photographs from which archaeological features and where they come from, but related records from that time can be accessed and compared and examined with the photographic plates.

This report can help to assess the political landscape of for the research on ancient Changnyeong.

Im Hack J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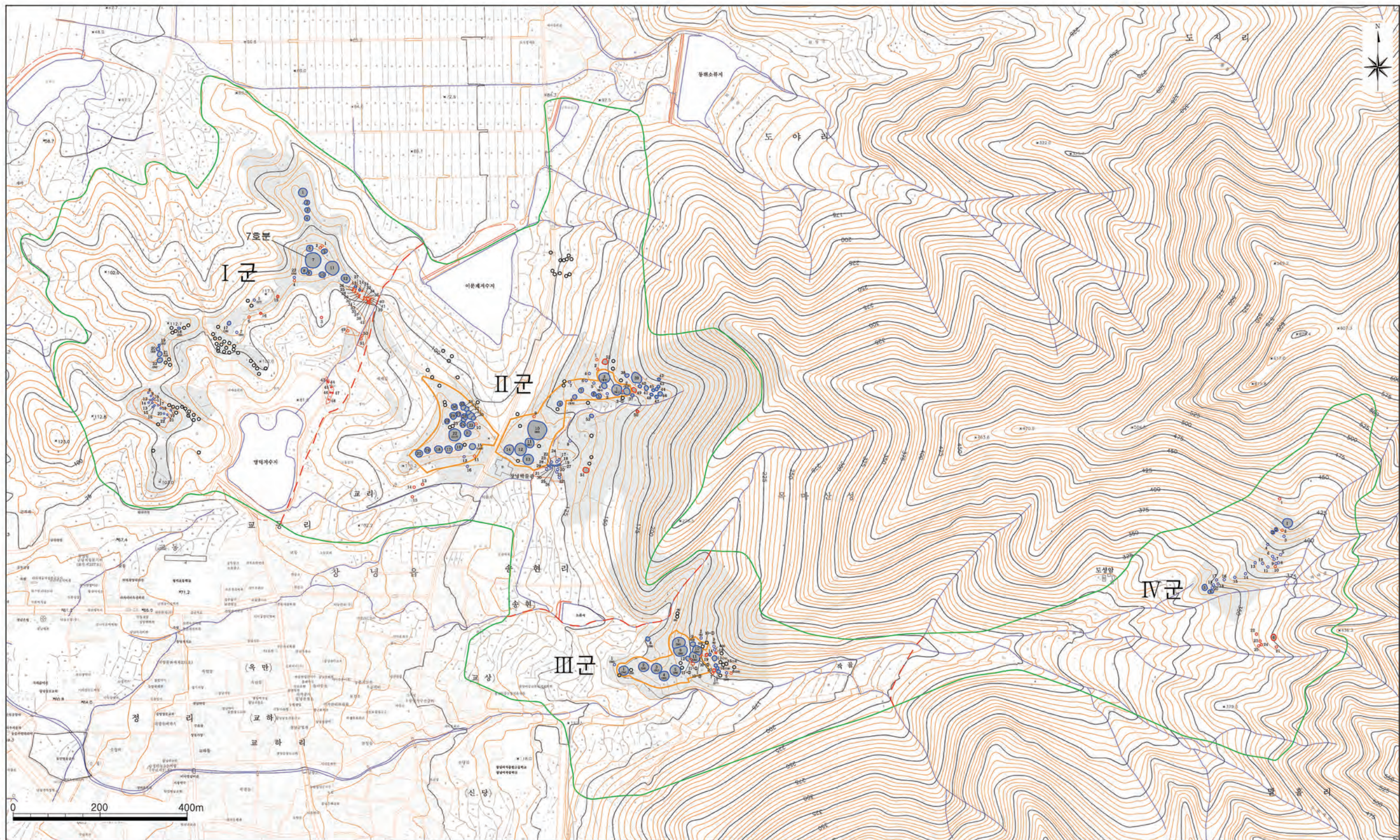
Director  
Gimhae National Museum





다나카 지조田中十藏,『昭和5~7年度復命書』,「慶尙南道昌寧郡古墳埋修復命書」,[도면] 경상남도 창녕군 고적분포도  
(上) 교동 고분군, (下) 송현동 고분군





창녕 교동·송현동 고분 분포 현황도 지형, 일제강점기에 조사된 고분 번호는 괄호로 표기  
 (창녕군·우리문화재연구원, 2014, 『사적 제514호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종합학술 연구 보고서-』에서 재편집)





창녕박물관 쪽에서 바라본 I군 및 II군(서편) 전경\_국립김해박물관 촬영





서쪽에서 바라본 II군(동편) 전경-국립김해박물관 촬영





(上)동쪽에서 바라본 III군 전경, (下)서쪽에서 바라본 IV군 전경-국립김해박물관 촬영

# I. 개요

## 1. 창녕의 가야 고분군

창녕의 지형은 서쪽과 남쪽으로 낙동강이 가로지르고, 북쪽은 비슬산, 동으로는 화왕산, 남으로 영취산·종암산을 거쳐 뻗은 산괴가 낙동강에 닿아 대구, 밀양, 청도와 경계를 짓고 있다. 이런 지형 안에 고총고분이 네 군데 조영되어 있는데, 북쪽에서부터 현풍 양리(달성군), 창녕 교동·송현동, 계성, 동리(영산)·죽사리 고분군이다. 이러한 고분군들은 각각 소군을 이루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또한 고분군의 분포와 함께 산성들이 짝을 이루고 있다. 양리-양동산성, 교동·송현동-화왕산성·목마산성, 동리·죽사리-동리산성, 계성리-신당산성(거리가 있음)이 짝을 이룬다<그림 1>.

이러한 네 개의 고분군은 당시 비사벌을 형성하던 네 개의 강력한 세력이었을 것(현풍지구, 교동지구, 계성지구)이며, 그 안에서 소군을 이루는 무덤군이 경제력, 군사력 등 가계의 출자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고대 창녕은 계성·동리(영산)고분군을 중심으로 한 계성지구와 교동·송현동고분군을 중심으로 한 교동지구로 나뉘어 있었다. 계성지구는 비사벌의 초기 중심지로 여겨지는 장소로 계남고분군, 사리고분군, 명리고분군, 강리고분군, 거문리고분군, 우강리고분군 등이 속해 있다. 교동지구는 토천리 겨우내고분군, 토천고분군, 왕산리고분군, 우천리고분군, 상월고분군, 월말고분군 등이 알려져 있다.

광복 이후의 창녕지역 조사는 1958년 제4차 한일회담으로 교동 31호분 출토 유물 106점이 반환되었고, 이를 시작으로 창녕지역의 고분군이 다시 조사되기 시작했다.

1963년 교동고분군과 송현동고분군은 각각 사적 제80호분과 81호분으로 지정되었으며 1967년 문화재관리국에 의해 창녕 계남리고분군 발굴조사가 진행되었고, 같은 해 영남대학교박물관에 의해 창녕 계남리 1·4호분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발굴조사 진행 후 1968년 문화재관리국에 의해 약 2달에 걸쳐 송현동고분군의 봉토수축공사가, 1976년~1980년과 1986년에는 각각 창녕 고분군 II군 15~22호분, 17호분의 복원공사와 정비공사가 진행되었다.

1967년의 발굴을 시작으로 1976년 동아대학교와 한성대학교에서 창녕 계성고분군 A·B·C지구 발굴조사가 진행되었고, 이듬해 『창녕 계성고분군 발굴조사보고』보고서가 발간되었다. 창녕지역의 발굴이 시작된 이래 약 60여 년 만에 발간된 정식보고서<sup>1)</sup>이다.

1990년대가 되면 고분군의 성격 규명을 위한 발굴조사가 실시되는데, 그 시작이 1992년 동아대학교 박물관에서 진행한 발굴조사이다. 동아대학교 박물관은 창녕 교동고분군 1~5호분의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1995년 12월~1996년 6월까지 문화재관리국은 95년도 문화재수리보고서(경북·경남·제주지역)를 발간하기 위해 유적지를 수리하고, 송현동고분군 고분 1기의 봉분 조성공사를 실시하였다.

2000년이 되면서 경남문화재연구원에서 창녕 송현동고분군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2002년~2004년까지 약

1) 창녕 고분군에 대한 최초의 발굴보고서는 1918년 하마다 고사쿠와 우메하라 스에지에 의해 조사된 교동 31호분이다(朝鮮總督府, 1922, 『大正七年度 古蹟調査報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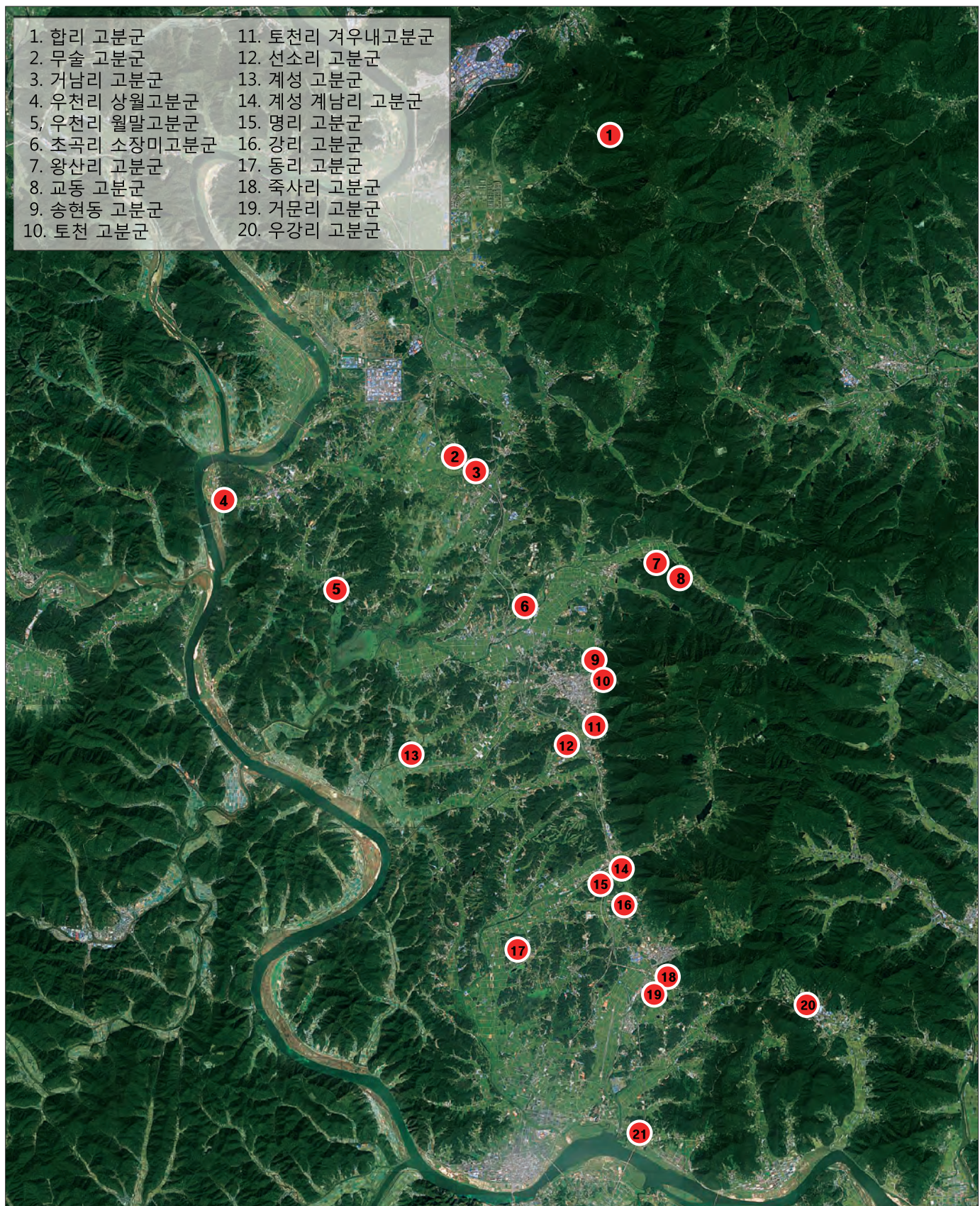


그림 1. 창녕지역 고분 분포지도



2년여 간에 걸쳐 창녕 송현동고분군 발굴조사를 실시한다. 동시에 창녕 교동의 지표조사도 실시하여 2004년 창녕문화공원조성부지 내에 있는 교동고분군의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같은 해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現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창녕 송현동 6·7호분을 2년여에 걸쳐 발굴 조사를 실시하고 연속적으로 송현동고분군의 지표조사를 통해 2006년~2008년까지 송현동 15~17호분의 발굴조사를 실시한다. 각각의 발굴조사가 끝나고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발굴에 대한 보고서가 발간되었으며, 이후 우리문화재연구원에 의해 2011년~2012년까지 창녕 교동 7호분이 재발굴된다. 또한 2011년과 2013년에는 삼강문화재연구원과 우리문화재연구원에 의해 각각 창녕박물관 증축부지 내 시·발굴조사와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수습조사구역 내 문화재 시·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2014년에는 우리문화재연구원에서 『사적 제514호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종합학술 연구 보고서-』와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제1군 7호분 및 주변 고분-』보고서가 발간되었고, 2015년 국립김해박물관에서 『창녕 교동 7호분』보고서가 발간되었다.

그 외에도 창녕군에서 가야문화권유적 정밀조사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죽사리고분군, 동리고분군, 계성고분군, 사리고분군, 송곡리고분군, 거남리고분군, 합리고분군, 우천리고분군, 시남리고분군, 토천리고분군 등이 조사되었다.

일제강점기 당시 발굴 조사된 이후 창녕지역 고분군이 재발굴된 유구는 교동 5(現 II군 8호분)·7호분이다. 교동 5호분은 1992년 동아대학교에 의해 조사되었고, 교동 7호분은 2011년~2012년까지 우리문화재연구원에 의해 재발굴 조사가 실시되었다.

일제강점기 당시 교동 7호분은 야츠이 세이이치谷井濟一에 의해 1918년 12월에서 다음해 1월까지 약 2개월에 걸쳐 5·6·8·10·11·12·89·91호분과 같이 발굴되었던 것에 비하면 우리문화재연구원 조사는 정밀조사인 셈이다.

당시 일본의 교동 7호분 조사는 봉토 남쪽을 정상부에서 약 1m가량 아래에서부터 매장주체부까지 굴착하여 남쪽 벽면을 파괴하고 내부로 진입하였다. 당시 발굴갱은 매장주체부로 진입하기 위한 통로이자 수습된 유물을 정리하는 장소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조사 방법은 빠른 시일 내에 매장주체부로 진입하여 유물을 수습하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 있다.<sup>2)</sup> 이러한 조사 이후 우리문화재연구원의 재발굴 조사는 봉토분, 성토방식, 매장주체부의 구조 등을 밝히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 밖에도 교동고분군 외에 송현동고분군 역시 일제 조사 당시에 비해 많은 양의 고분이 조사되었다. 광복 이후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 I 군은 봉토 2기, 분묘 33기, II군은 봉토 4기, 분묘 8기, III군은 봉토 3기, 분묘 2기, IV군은 봉토 1기, 분묘 8기로 총 봉토분 10기와 분묘 51기가 추가로 확인되었다.<sup>3)</sup>

2) 국립김해박물관, 2014, 『비사벌의 지배자 그 기억을 더듬다』도록, p.164.

3) 창녕군·우리문화재연구원, 2014, 『사적 제514호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 종합학술 연구 보고서 - 』, p.45.

| 이마니시 류<br>1917 |     | 야츠이 세이이치<br>1919 |     | 경남문화재연구원<br>2004 |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br>2012 |      | 우리문화재연구원<br>2014 |    |    |
|----------------|-----|------------------|-----|------------------|----|--------------------|------|------------------|----|----|
| 1군             | 1호  | 24호              | 12호 |                  | 1군 | 15호                | Ⅲ군   | 10호              |    |    |
|                | 2호  | 25호              | 15호 |                  |    | 16호                |      | 11호              |    |    |
|                |     |                  | 16호 |                  |    | 17호                |      | 12호              |    |    |
|                |     |                  | 6호  |                  |    | 6호                 |      | 6호               |    |    |
|                | 4호  | 26호              | 6호  |                  |    | 7호                 |      | 7호               |    |    |
|                | 10호 |                  |     |                  |    | ·                  |      | 1호               |    | 1호 |
| 2군             | 3호  | ·                | 1군  | 20호              | ·  | Ⅱ군                 | ?    |                  |    |    |
|                | 6호  | ·                |     | 18호              |    |                    | 38호? |                  |    |    |
|                | 10호 | 89호              |     | 17호              |    |                    | 10호  |                  |    |    |
|                | 11호 | 91호              |     | 16호              |    |                    | 11호  |                  |    |    |
|                | 14호 | 116호             |     | 1호               |    |                    | 14호  |                  |    |    |
|                | 16호 | 117호             |     | 6호               |    |                    | 22호  |                  |    |    |
| 5군             | 20호 | 12호              | 2군  | 13호              |    | Ⅰ군                 | 12호  |                  |    |    |
|                | 21호 | 11호              |     | 12호              |    |                    | 11호  |                  |    |    |
|                | 22호 | 7호               |     | 7호               |    |                    | 7호   |                  |    |    |
|                | 23호 | ·                |     | ·                |    |                    | 4호   |                  |    |    |
|                | 24호 | ·                |     | ·                |    |                    | 3호   |                  |    |    |
|                | 25호 | ·                |     | ·                |    |                    | 2호   |                  |    |    |
|                | 26호 | ·                |     | ·                |    |                    | 1호   |                  |    |    |
| ·              |     |                  |     |                  |    | 2군                 | 1호   | Ⅳ군               | 1호 |    |
|                |     |                  |     |                  |    |                    | 20호  |                  | 4호 |    |
|                |     |                  |     |                  |    |                    | 21호  |                  | 5호 |    |

표 1. 기존 조사 번호와 각 연대별 번호표

## 2. 일제강점기 창녕의 가야 고분군 조사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과 조선은 하나라는 ‘내선일체론’을 내세워 한반도 국민들을 지배하고자 하였다. 특히 임나일본부의 실체규명을 통해 한반도 역사의 타율성을 강조하여 ‘한반도 역사의 과거 회귀’라는 지배 이데올로기의 근거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그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고적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일제강점기 당시 가야지역의 고적조사는 주로 조선총독부와 동경제국대학의 주도로 진행되었다. 조선총독부는 고적조사위원회를 결성하고 법을 제정하며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시켰으며 조사와 함께 보존·등록·출판 업무를 진행하였다. 조사위원은 일본의 학자들과 조선의 학식이 높은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1915년 이전의 고적조사는 고적을 방문하여 입지나 고분의 수, 고분의 현재 상태를 조사하는 단순 방문이 주를 이루었다. 조선총독부의 고적조사 5개년 사업이 시작된 1916년 이후부터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고, 창녕지역에 대한 조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가야지역에 대한 조사는 주로 1917년부터 1919년에 집중되었다. 비사벌 가야에 대한 조사는 크게 단순 방문, 발굴조사, 도굴된 무덤의 정리 등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초기에는 단순 방문이 주를 이루었고, 1918년 이후부터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이후에는 주로 도굴된 무덤에 대한 정리 외에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1917년은 고적조사사업 2차 연도로 1차 연도의 조사 대상이었던 한사군과 고구려 유적 조사 계획의 잔여부분 조사와 삼한·가야·백제지역의 유적·유물, 조선시대와 유사 이전의 유적·유물을 대상으로 삼아 조사가 이루어졌다. 고적조사는 일반조사와 팀조사로 이루어졌는데 팀조사는 조사위원과 측량·제도·사진촬영 등 실

| 연<br>번 | 조사<br>연도              | 조사 유적       | 조사<br>유형 | 기관 및 조사자                         | 조사 내용  | 참고문헌  |
|--------|-----------------------|-------------|----------|----------------------------------|--|---|
| 1      | 1910.10.              | 교동 · 송현동고분군 | 기본조사     | 조선총감부 탁자부<br>세키노 타다시<br>야츠이 세이이치 | 고령에서 조사한 것보다 큰 고분이 이<br>미 발굴되어 석곽의 일부가 노출, 일정<br>상 매장주체부의 규격과 양상만 조사.<br>학계에 최초로 가야고분의 존재 공표.  | 關野貞, 1911, 『伽倻時代の遺蹟』, 『考古學雜誌』<br>第1卷 第7號.<br>朝鮮總督府, 1916, 『朝鮮古蹟圖譜』第3卷.<br>高橋繁, 2001, 『關野貞を中心とした朝鮮古蹟調査<br>行程-1909年-(明治42年)~1915年(大正4<br>年)-』, 『考古學史研究』第9號.<br>藤井恵介・早乙女雅博・角田眞弓・李明善, 2004,<br>『東京大學綜合研究博物館 所藏 關野貞<br>コレクションソフイーロードカード 目錄』,<br>東京大學綜合研究博物館 標本資料報<br>告 第53號.<br>早乙女雅博, 2010, 『新羅考古學研究』, 同成社. |
| 2      | 1914.3.               | 교동고분군       | 기본조사     | 조선총독부 학무국<br>도리이 류조              | 다양한 각도에서 고분군 전경 촬영.<br>도굴된 석곽 출토 유물촬영.   | 今西龍, 1922, 『新羅眞興王「巡狩管京」神考(下)」』,<br>『考古學雜誌』第12卷 第11號.  |
| 3      | 1915.                 | 교동 · 송현동고분군 | 기본조사     | 동경제국대학<br>쿠로이타 카즈미               | 고분과 산성의 관계에 주목하여 목마산<br>성과 목마산성 아래 고분군 조사.<br>진흥왕적경비, 석불, 석탑 등 조사.   | 黑板勝美, 1916, 『朝鮮古蹟遺物調査復命書』.<br>黑板勝美先生生誕百年紀念會編, 1974, 『黑板勝<br>美先生遺文』, 吉川弘文館에 재수록.   |
| 4      | 1916.                 | 계성면 고분군     | 기본조사     | 조선총독부<br>식산국 산림과                 | 계성면 사리 도로 양측에 60여기 고<br>분 확인.<br>다수가 봉괴, 일부 도굴상태임을 확인.   | 朝鮮總督府, 1942,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  |
| 5      | 1917.                 | 교동 · 송현동고분군 | 기본조사     | 이마니시 류                           |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의 분포 양상 파<br>악, 각 고분에 일련번호 부여.<br>군집에 따라 6개군으로 분류-교동과<br>송현동고분군에 대한 발굴조사 및 학계<br>의 인식에 기초가 됨.  | 朝鮮總督府, 1920, 『大正六年度 古蹟調査報告』.  |
| 6      | 1918.10.              | 교동고분군       | 발굴조사     | 하마다 고사쿠<br>우메하라 스에지              | 최초의 정식 발굴조사-교동 21·31호<br>분 발굴.<br>21호는 이미 당시 도굴이 되어 간략하<br>게 조사.<br>31호는 처녀분으로 다양한 유물이 출<br>토됨-정식 발굴보고서 간행됨.   | 朝鮮總督府, 1922, 『大正七年度 古蹟調査報告』.  |
| 7      | 1918.12.<br>~ 1919.1. | 교동고분군       | 발굴조사     | 야츠이 세이이치                         | 교동 5~8·10~12·89·91호분의 총<br>9기 발굴조사.<br>7·12·89호분은 최대 규모의 수장급<br>고분으로 엄청난 양의 유물이 출토됨.<br>창녕을 유적분포도 작성.<br>교동고분군과 송현동고분군을 각각 하<br>나의 유적으로 취급하여 지표조사에서<br>확인된 고분에 각각 별도의 일련번호 부<br>여, 이후 정식 일련번호로 채용. | 筆者未詳, 1919, 『大正七年度 古蹟調査成績/大正<br>八年度 古蹟調査計劃』, 『朝鮮集報』大正<br>8年8月號, 朝鮮總督府.<br>國立中央博物館, 1997, 『光復以前 博物館 資料<br>目錄集』.  |
| 8      | 1920.2.               | 교동고분군       | 입고       | 야츠이 세이이치                         | 교동 고분 발굴 출토유물을 조선총독부<br>박물관에 입고.   |   |
| 9      | 1920.                 | 교동고분군       | 조사       | 우메하라 스에지                         | 조선총독부박물관 소장 창녕 교동 출토<br>유물 조사.   |   |
| 10     | 1930.                 | 교동고분군       | 기본조사     | 창녕 공립보통학교<br>하시모토 류조             | 창녕 교동 도굴 보고.   | 藤田亮策, 1931a, 『朝鮮古蹟研究會の創立と其の<br>事業』, 『靑丘學叢』第6號, 靑丘學會.<br>筆者未詳, 1931, 『昭和五年度の古蹟調査』, 『朝鮮』<br>第197號, 朝鮮總督府.   |
| 11     | 1931.2.               | 교동 · 송현동고분군 | 기본조사     | 조선총독부 박물관<br>다나카 쥬조              | 51·52·53·92·116호분의 상태를<br>간략하게 확인-도굴갱이나 파괴된 고<br>분 일부를 보수함.  | 朝鮮總督府, 1931, 『昭和五年度の古蹟調査』, 『朝<br>鮮』第197號.   |
| 12     | 1931.                 | 교동고분군       | 발굴조사     | 조선총독부 박물관<br>고이즈미 아키오            | 교동 116호분 2기 발굴   | 小泉顯夫, 1932, 『古墳發掘漫談』, 『朝鮮』第206號.  |
| 13     | 1938.3.               | -           | 기증       | 조선총독부                            | 교동 31호분 출토유물을 동경제실박물<br>관에 기증.   | 한일회담청구권 관련문서  |
| 14     | 1939.10.              | -           | 지정       | 조선총독부                            | 조선총독부 고시 제857호<br>교동 · 송현동고분군 고적 114·115<br>호로 지정.   | 朝鮮總督府官報 第3825號.   |

표 2. 일제강점기 창녕 고분군 조사

무를 담당하는 직원, 통역을 담당하는 직원 등을 팀으로 구성하여 이루어졌다. 창녕지역의 경우 팀조사로 이루어졌으며 주로 이마니시 류<sup>今西龍</sup>에 의해 조사되었다.

1918년은 고적조사사업의 3차 연도(1918년~1919년 3월)로 2차 연도의 잔여부분 조사와 경주, 경북·경남·전남의 주요 지점의 신라 유적·유물, 조선시대 유적·유물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때의 조사는 팀조사로 이루어졌고, 전년도에 비해 발굴조사원이 증가하였다.

창녕지역은 1918년에는 주로 하마다 고사쿠<sup>濱田耕作</sup>와 우메하라 스에지<sup>梅原末治</sup>에 의해 조사되었고, 1919년에는 주로 야츠이 세이이치<sup>谷井濟一</sup>에 의해 조사되었다.

표 2는 일제강점기 창녕지역 고분 조사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일제강점기 창녕지역의 조사는 1910년 세키노 타다시<sup>關野貞</sup>에 의해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세키노 타다시는 조선통감부의 요청으로 1909년~1914년에 걸쳐 한반도 전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건축·고분·성지·사지 등의 고적조사를 실시하였고 지방별·시대별로 구분하고 가치와 보존 가치에 따라 갑~정의 네 등급으로 분류하였다. 각 등급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갑’등급은 가장 보존 필요성이 있는 고적·유물을 뜻하고 ‘을’등급은 ‘갑’등급 다음으로 보존 필요성이 있는 고적·유물, ‘병’등급은 보존의 필요가 인식 되는 고적·유물, ‘정’등급은 보존의 가치가 가장 적은 고적·유물 등으로 나누었다. 대부분의 가야 고분은 ‘을’~‘병’등급으로 분류하였다. 세키노 타다시<sup>關野貞</sup>는 1910년에 고령지역의 가야 고분을 조사한 후 창녕에서 가야 고분을 발견하고 도굴된 석곽의 형태나 규모 등을 조사하였다. 일정상 고분의 발굴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후 함안·성산지역의 유적지를 답사하였다. 세키노 타다시<sup>關野貞</sup>는 창녕지역을 비자화의 땅으로 가야권역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이 조사는 학계에 비사별 가야 고분을 처음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에도 도리이 류조<sup>鳥居龍藏</sup>, 쿠로이타 카츠미<sup>黑板勝美</sup>, 조선총독부 식산국 산림과, 이마니시 류<sup>今西龍</sup> 등에 의해 기본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중 1915년에 동경제국대학의 요청으로 한반도 남부를 조사한 쿠로이타 카츠미<sup>黑板勝美</sup>는 산성과 고분의 관계성에 주목하며 함안·성산·창녕지역 등에서 산성을 기점으로 고분이 방사상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뒷받침하여 창녕지역을 조사하며 목마산성과 목마산성 아래 고분군(현재 교동·송현동고분으로 추정됨)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이 밖에도 진흥왕척경비, 석불, 석탑 등을 조사하였다.

이마니시 류<sup>今西龍</sup>는 1917년 고적조사보고에서 영산읍, 계성면, 읍내면고분군을 조사하고 보고하였다. 이 보고에서 이마니시 류<sup>今西龍</sup>는 각 고분에 번호를 매겨 설명하였다.

영산읍고분군은 8기의 고분이 도로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각 고분의 위치와 고분 사이의 거리, 발굴의 흔적이나 파괴·도굴의 흔적 등 봉분의 상태, 봉토의 지름과 높이 등을 기술하였다. 이마니시 류<sup>今西龍</sup>는 고분의 상태 보고에 덧붙여 영산읍 부근의 고분들은 수적으로 적고 형상이 작으나 성주 등 다른 지역의 고분들과 비슷한 형태의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계성면고분군은 영산과 영취산의 끝자락의 구릉지 3~4정에 길게 밀집하고 있다. 각 고분의 위치와 다른 고분들과의 거리, 봉분의 상태, 봉토의 지름과 높이, 봉분이 파괴되어 매장주체부가 노출된 경우 매장주체부의 형태와 장축방향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매장주체부의 구덩이는 장방형이며 네 면의 측벽은 야석을 쌓아올려 상부는 좁게 축조하였다.

읍내면고분군은 현재의 송현동고분군과 교동고분군을 포함한 것으로 추정된다. 읍의 동쪽인 목마산성 밑의 고지대에서 북쪽 고지대까지 다수가 군집하고 있어 고분을 소별하여 5군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읍서에 위치한



3기의 고분을 1군으로 묶어 총 6군으로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다. 각 군집 내에서 주분과 소분을 구분하여 서술하고 있는데, 주분의 존재를 선산지방의 고분과 다른 점으로 꼽았다. 그러나 봉분의 형태나 묘광의 형태 등에 대해서는 함안·선산 지방과 같은 양식에 속한다고 보았다. 고분의 분포 양상과 고분의 위치, 봉분의 형태, 봉토의 지름과 높이, 봉분의 파괴로 드러난 묘광의 상태와 매장주체부의 구조 등을 기술하였다. 매장주체부의 구조를 설명하며 대략적인 매장지례를 추정하여 서술하고 있으며 횡혈식 구조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고분 대부분이 도굴·파괴되어 피해를 입었음을 확인하였다.

군집 번호의 부여는 남쪽에서 북쪽을, 개별 번호는 동쪽에서 서쪽을 기준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sup>4)</sup> 이마니시 류<sup>今西龍</sup>의 이러한 조사는 추후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에 대한 발굴조사의 기초자료 수집과 학계의 인식에 기초가 되었다.

창녕지역 고분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조사는 1917년부터 시작되었다. 1918년 10월 하마다 고사쿠<sup>濱田耕作</sup>와 우메하라 스에지<sup>梅原末治</sup>는 경성을 출발하여 성주에 도착한 후 성산동의 고분을 조사 및 발굴하며 주위의 고적들을 실사하였다. 이후 함천, 고령지역들을 방문하여 조사하고 일부 고분을 발굴조사 하였다. 이후 창녕을 방문하여 교동 21호분과 31호분을 발굴조사 하였는데, 이 조사는 창녕지역 고분의 최초 정식 발굴조사라는 데에 의미가 있다. 2기 중 21호분은 이미 도굴된 상태여서 간략히 조사를 마무리하였고, 31호분은 처녀분으로서 다량의 토기와 금제이식, 은제환, 관옥, 소옥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21호분과 31호분의 발굴 보고는 『大正七年度 古蹟調査報告』에 게재되어 발굴 조사된 고분 중 유일하게 정식 발굴보고서가 간행되었다(朝鮮總督府 1922).

이후 1918년 12월 야츠이 세이이치<sup>谷井濟一</sup>는 교동고분군의 많은 고분들을 발굴조사 하였다. 먼저 5·6·7·8호분을 발굴조사하고, 이듬해인 1919년 1월 교동 89·12·91·10·11호분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중 7·12·89호분은 규모가 큰 수장급 고분으로 금동관, 은제대금구, 금제 이식, 은제천, 다량의 토기류, 옥류 등 화차 2량 분량의 유물이 출토되었다고 전할 정도로 엄청난 양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고분들의 정식 발굴보고서는 간행되지 않았다.

야츠이 세이이치<sup>谷井濟一</sup>는 교동고분군의 발굴조사와 더불어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주요고분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였다. 이마니시 류<sup>今西龍</sup>가 교동고분군과 송현동고분군을 군집별로 분류한 후 번호를 부여한 것과는 달리 야츠이 세이이치<sup>谷井濟一</sup>는 교동고분군과 송현동고분군을 별개의 유적으로 취급하여 별도로 번호를 부여하였다. 야츠이 세이이치<sup>谷井濟一</sup>의 조사와 함께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오가와 케이키<sup>小川敬吉</sup>가 작성한 도면으로, 이 도면에는 야츠이 세이이치<sup>谷井濟一</sup>가 조사한 고분에만 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야츠이 세이이치<sup>谷井濟一</sup>가 부여한 이 일련번호는 추후에 조사된 116호분과 117호분에도 적용되어 정식 일련번호로 채용되어 연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931년에 이르러 조선총독부박물관의 기수였던 다나카 주조<sup>田中十藏</sup>는 51·52·53·92·116호분의 상황을 확인하는 정도의 조사를 마쳤고, 이후 몇몇 고분의 도굴갱이나 파괴된 일부를 보수하였다. 같은 해 고이즈미 아키오<sup>小泉顯夫</sup>가 교동 116·117호분의 2기를 발굴조사 하였다. 그러나 이 고분들의 정식 발굴 보고서는 간행되지 않았으며 고이즈미 아키오<sup>小泉顯夫</sup>의 회고담과 유리원판 자료만 일부 남아 있다.

4) 昌寧郡·우리文化財研究員, 2014, 『昌寧 校洞과 松峴洞 古墳群 -第1群 7號墳 및 周邊 古墳』



일제가 한반도의 고적조사에 집중했던 이유는 한반도에 대한 식민 통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만들어낸 ‘임나일본부설’의 학문적 증거를 찾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임나일본부의 실제규명을 통해 한반도 역사의 타율성을 강조하고 ‘과거로의 회귀’라는 일선동조론적 이데올로기의 근거로 활용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때문에 한반도의 여러 지역 중 식민사학논리의 근거지가 될 수 있는 한사군·고구려·신라지역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일제의 식민통치 논리를 증명하는 실질적 자료를 모으는 일에 중점을 두었다. 일제는 식민통치를 뒷받침할 ‘임나일본부설’에 대한 학문적 증거를 찾고자 가야지역 고분 발굴에 주력하였던 것이다.

고적조사위원회의 고적조사사업은 『朝鮮古蹟圖譜』를 출판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그 가운데 일부는 일본어와 영어를 동시에 표기하여 한반도의 역사가 일본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출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3. 비사벌 가야에 대한 연구조사

일본의 고적조사사업은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배라는 정치적 의도와 내선일체론이라는 사상적 바탕에서 시행된 정책 중 하나였다. 한반도의 여러 지역 중 식민사학논리의 근거지가 될 수 있는 한사군·고구려·신라지역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일제의 논리를 증명하는 실질적 자료를 모으는 일에 중점을 두었던 것이다. 특히 임나일본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 가야 고분 조사에 주력했다. 일제 당시 관학자들은 신라의 하주 설치(555년)를 기준으로 그 이전까지의 창녕을 가야의 한 소국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이것은 가야 고분 범주에 창녕지역을 포함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에 특별한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일례로 쿠로이타 카즈미는 1915년 함안·성산·창녕 지역을 방문하여 조사하고 같은 해 동경제국대학에서 강연을 하였다. 그 강연에서 쿠로이타는 『日本書紀』에 따르면 일본부는 최초에 김해·함안에 있었다고 전한다. 일본부라고 하여도 조선풍인 것이 틀림없다. 조사한 결과 김해·함안은 일본부 소재지라고 추정할 만하나 그 자취가 이미 사라져버려 찾을 방법이 없다.’라며 유감을 표시했다고 한다.<sup>5)</sup>

또한 교동고분군 발굴에 대한 간략한 보고문에서 ‘비자화의 이름은 『日本書紀』 신공기후 49년 기록에 일본이 공격하여 평정한 칠국의 하나로 보았지만, 창녕에서의 일본계 유물은 89호분에서 출토된 直弧文鹿角製劍 한 자루뿐이어서 이것으로 비자화 같은 작지만 부유한 가야의 일국을 일본이 지배했다는 증거로 삼기에는 불충분한 느낌을 면하기 어렵다.’고 적은 것도 증거를 찾기 어려웠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이다.<sup>6)</sup>

임나일본부설을 증명하기 위해 시작되었던 고적조사사업은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흐지부지되었고, 그 이후에 고적조사과가 폐지되며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 한국고고학계에서 창녕지역은 정치체의 성격에 있어 신라인지 가야인지 하는 문제로 의견이 분분하다.

5) “고고학기사”, 『고고학잡지』제6권제3호, 大正 4년 11월, p.173.

이순자, 2007,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6) 穴沢啄光・馬目順一, 1975, 「昌寧校洞古墳群 -「梅原考古資料」を中心とした谷井濟一氏發掘資料の研究-」, 『考古學雜誌』第60卷 第4號



창녕 정치체의 성격을 신라로 보는 연구는 신라의 소집단이었다는 의견<sup>7)</sup>과 이른 시기부터 신라의 간접적인 영향(혹은 지배)을 받았다는 의견<sup>8)</sup>으로 나뉜다. 가야로 보는 연구는 가야의 독자성을 인정하며 5세기 중엽 이후 신라의 영향을 받았다는 의견<sup>9)</sup>이 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6세기 중엽 신라의 하주 설치를 기점으로 이전 시기는 가야, 이후 시기는 신라로 파악한 의견<sup>10)</sup>과 창녕지역에 이원집단이 존재했고, 각 집단이 신라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 시점이 다르다고 파악한 의견<sup>11)</sup>이 있다. 연구자들은 주로 창녕지역의 토기를 기준으로 삼아 연구하고 있다.

최종규(1983년)는 고식도질토기와 신라 토기, 도질토기 낙동강이동군의 구분에 대한 여러 의견을 정리하며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문헌에 나타나는 가야관이 일정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신라의 지배자(慶州高塚主)와 낙동강이동 단위집단의 지배자(地方高塚主) 사이의 관계가 불분명함을 지적하며 토기와 금공품 등 고고 자료를 통해 검토하였다. 경주·창녕·동래지역 토기가 강한 공통성을 지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양식에 속한다고 설명하며 단위집단 간의 밀접한 관계성을 강조하였다. 더 나아가 세 단위집단이 정치적인 연대성을 공유했을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각 지역 출토 토기의 특징적인 요소를 고려해 집단의 지역적 독자성이 인정된 하나의 공동체였을 것으로 생각하였다.<sup>12)</sup>

이희준(2005년)은 문헌기사와 고고학 자료를 통한 역사 해석의 모순을 지적하며 양자가 상호 보완되어 일관된 역사 해석을 이끌어 내야 함을 강조하였다. 창녕지역에서 나타나는 신라 양식의 토기와 위세품·복식품 등을 예로 들어 창녕지역의 고분문화는 신라문화권에 속한다고 이해하였다. 그 시점에 대해서는 신라의 낙동강 하류역 진출 기도와 맞물려 창녕 계성지구에서 고총이 축조 되는 점을 근거로 들어 4세기 말로 상정하였다. 5세기 중기를 전후하여 일어나는 교동고총군의 변화에 대해서는 창녕지역 집단의 자체발전 가능성도 고려하였으나 신라가 가야를 견제하려는 이이제이 정책에 기인한 전폭적 지원을 원인으로 언급하였다. 그리고 금공품 등의 제작을 통해 신라의 지배력이 점차 강화되었음을 이해하였다. 이후 창녕지역의 고총 축조 중단과 토기양식의 경주화, 횡구식석실의 축조 등으로 지역 세력의 약화와 신라의 직접지배 실시를 시사하였다.<sup>13)</sup>

하승철(2014년)은 창녕지역 도질토기와 묘제를 분석하였다. 창녕지역의 도질토기를 고식도질토기단계와 신라양식단계로 구분하고 신라양식으로 포함되는 시기는 5세기 2/4분기로 상정하였다. 기존에 연구되었던 ‘창녕 양식토기’는 일부 기종에 남아있던 형식을 과도하게 해석한 결과로 파악하였다. 창녕지역의 묘제에 대해서는 5세기 전반에 주로 조영되는 석곽묘는 묘형과 유물 부장방식으로 보아 낙동강 동안지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토기 양식과 묘제의 변동을 통해 창녕지역은 5세기 전반부터 신라의 영향력을 받았다고 보았고, 5세기대의 창녕지역 수장층은 일정 수준 자치권이 보장되었을 것이나 6세기에 들면서 수장층의 세력이 급격히

7) 崔鍾圭, 1983, 「중기고분의 성격에 대한 약간의 고찰」, 『釜大史學』第7輯

8) 李熙濬, 2005, 「4~5세기 창녕 지역 정치체의 읍락 구성과 동향」, 『嶺南考古學』37號

하승철, 2014, 「토기와 묘제로 본 고대 창녕의 정치적 동향」, 『嶺南考古學』70號

김용성, 2011, 「昌寧地域의 新羅高塚과 그 意義」, 『신라사학보』22號

9) 박천수, 1990, 『5~6세기 창녕지역 도질토기의 연구』, 경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천수, 2001, 「考古資料를 통해 본 가야시기의 昌寧地方」, 『가야시기 창녕지방의 역사·고고학적 성격』,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10) 定森秀夫, 1982, 「韓國慶尙南道釜山·金海地域出土陶質土器の檢討」, 『平安博物館紀要』7

11) 이성주, 2012, 「고대 창녕지역집단의 고고학적 논의」, 『군사연구』제133집

12) 崔鍾圭, 주 7의 논문

13) 李熙濬, 주 8의 논문

축소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sup>14)</sup>

김용성(2011년)은 창녕에서 조영되는 수혈식석곽은 경주 적석목곽의 적석·목곽 요소와 재지의 수혈식석곽 요소가 합쳐져 창녕식으로 재창조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이후에 조영되는 횡구식석곽 또한 수혈식석곽에서 변화된 것이라고 보았다. 김용성은 창녕지역 고총의 분포와 묘제의 차이를 근거로 계성지구와 교동지구로 구분되는 두 개의 지역 정치체를 상정하였다. 계성지구는 이른 시기부터 신라의 지원을 받아 성립되어 5세기 전반까지 세력을 유지한 집단이라고 설명하였으며, 교동집단은 5세기 중엽 이후 가야의 다른 세력들을 견제하며 신라가 지원하여 성립된 집단으로 설명하였다. 교동집단의 성장에는 신라의 군사적 목적이 강하게 작동된 것으로 보았다. 고총의 분포와 묘제의 차이를 근거로 계성에서 교동으로 옮겨가는 세력의 이동을 언급한 것이다.<sup>15)</sup>

창녕지역을 가야로 보는 견해에는 독자성이 있는 하나의 집단에서 늦은 시기 신라화 되는 것과 이른 시기부터 신라에 포함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후지이 가즈오(藤井和夫)(1981년)는 창녕지역을 계남리 1·4호분 출토 토기로 분류하였다. 토기를 통해 교동고분군 축조집단과 계성고분군 축조집단의 차이를 지적하면서 두 집단을 별개의 집단으로 분리하였다.<sup>16)</sup>

신경철(1989년)은 5세기 이후를 창녕지역과 성주지역의 출토 토기를 통해 토기의 양식상으로 신라토기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 분명하지만 형식에는 이들 지역의 토기가 동시기의 경주지역 토기와는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였다. 창녕지역과 성주지역 출토 토기가 신라양식에 포함된다고 해도 “창녕식토기”로 설정해야할 만큼 지역성을 보이며 형식차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를 통하여 창녕과 성주지역은 5세기 이후 친신라권으로 편입되지만 자체적으로 독립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와 반대로 부산, 김해 지역의 토기는 경주지역 토기와 비교해보았을 때 뚜렷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통해 가야는 친신라계 가야와 비신라계 가야로 양분하였다. 창녕지역은 비신라계 가야로 보아야 한다.<sup>17)</sup>

박천수(1990년)는 창녕지역 집단의 성격과 변화를 밝히는데 창녕지역 출토 토기를 사용하였다. 토기양식을 근거로 창녕지역이 4세기에서 5세기 전엽까지 가야에 속하고, 5세기 중엽에서 6세기 전엽대에는 신라양식과 가야양식이 복합되는 토기양식(복합양식)이 성립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토기양식과 교류 등의 자료가 창녕지역 집단의 소속감을 나타내 줄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창녕지역 집단은 가야·신라에 속하지 않은 독자적인 정치체로 인식하였다.<sup>18)</sup>

정징원·홍보식(1995년)은 5세기 2/4분기 창녕형 토기의 형식 성립을 비화가야의 지역 국가체 형성으로 보고 이 시기와 동시에 고총고분, 경주산 위세품들이 부장되는 것을 통하여 신라와의 관계가 강화되고 비화가야가 가장 발전하는 시기로 보았다. 이후 점차 토기양식에서 신라화가 진행되면서 6세기 2/4분기에 창녕형 토기가 완전 소멸하게 된다. 창녕형 토기가 소멸됨과 동시에 비화가야의 해체로 보고 신라토기로 대체되는 점을 통해 이 시기부터를 신라의 직접 지배를 당하는 시기로 설정하였다.<sup>19)</sup>

14) 하승철, 주 8의 논문

15) 김용성, 주 8의 논문

16) 藤井和夫, 1981, 「昌寧地方古墳出土陶質土器の編年について」, 『神奈川考古』12

17) 신경철, 1989, 「삼한, 삼국, 통일신라시대의 부산」, 『부산시사』1, 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

18) 박천수, 주 9의 논문(1990)

19) 정징원·홍보식, 1995, 「昌寧地域の古墳文化」, 『韓國文化研究』7, 부산대학교한국민족문화연구소



박천수(2001년)는 창녕지역에 4세기 중엽까지 아라가야양식 토기가 분포하였다가 4세기 후반부터 이 지역의 특징적인 창녕양식 토기가 성립하여 5세기 2/4분기까지 유행하는 점을 볼 때, 5세기 2/4분기까지는 창녕지역이 가야에 속하고 5세기 3/4분기 이후가 되면 창녕 토기의 각 기종이 신라화 되어간다고 주장하였다.<sup>20)</sup>

홍보식(2011년)은 창녕지역 정치집단의 등장 및 창녕지역 집단의 역할에 대해 검토하면서 계남리고분군 조영집단이 3~4세기의 어느 시점에 중심세력으로 부상하면서 주변 집단을 통합한 후 국으로 성립하여 5세기 후반의 어느 시점까지 창녕지역의 중심세력집단의 역할을 하였다고 보았다. 5세기 3/4분기에서 5세기 4/4분기에 교동·송현동고분군 조영집단이 부상하면서 창녕의 중심지역이 계성에서 교동집단으로 이동하였다고 보았다. 이러한 중심세력 집단의 이동을 신라 중앙의 집중적인 투자로 보았으나 부장품의 배치, 묘형, 초대형 고총고분의 존재 등을 통해서 완전한 신라 복속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6세기 초가 되면서 창녕지역에서는 완전히 지역성이 사라지면서 신라 중앙과 유사한 형태로 대체되어 지방으로 편입되었다고 주장하였다.<sup>21)</sup>

김옥순(2012년)은 기존의 연구자들이 창녕지역양식 토기의 특징과 공간분포에 관심을 가진 것에 반해 창녕지역 출토 창녕양식 토기와 청도 성곡리 토기의 양식적 속성 비교와 토기편을 채집하여 과학적 성분 분석으로 연구방법을 설정하였다. 두 유적 간의 양식은 일부의 차이가 있으나 동일한 변천상을 나타내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교동 주변과 성곡리 고분군의 토기편을 채집하여 분석한 결과 광물질, 점토배합 등에서는 대부분 동일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나 화학성분에서 차이가 확인되었고, 이는 창녕과 청도의 생산기술의 교류는 있었지만 각각 다른 제작소에서 생산하였음을 인지하였다. 또한 양 지역 간의 토기교환은 이루어지지 않고 각자의 생산체계를 가졌음을 예상하였다. 이를 통해 창녕지역은 토기의 생산체계가 독자적으로 이뤄졌음을 시사한다.<sup>22)</sup>

사다모리 히데오(定森秀夫)(1982년)는 창녕지역 출토 토기를 통해 개의 꼭지에 돌대가 돌아간 것을 창녕형 토기로 명명하였다. 이를 창녕지역만의 지역적 특징으로 보고 가야토기에 속한다고 인지하였다. 또한 문헌 기록을 통해 신라의 주(州) 설치에 555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 시점을 경계로 그 이전을 가야, 그 이후를 신라로 구분하였다.<sup>23)</sup>

주보돈(2009년)은 창녕 계남고분군과 교동·송현동고분군에서 출토한 토기가 신라양식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관·이식·과대금구 등의 착장형 장신구가 신라형이라는 점과 함께 경주지역의 특징적인 적석목곽묘가 창녕지역에 존재한다는 일제시기의 조사 내용을 근거로 창녕지역이 4세기 전반까지는 가야였으나 4세기 후반부터는 신라의 간접지배를 받고, 5세기 후반에는 직접지배를 받아 신라의 지방으로 편제되었다고 주장하였다.<sup>24)</sup>

이성주(2012년)는 계성고분군과 교동·송현동고분군의 관계에 있어 창녕지역에서 지배집단이 이원적으로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계성고분군집단에서 교동·송현동고분군집단으로의 지배집단의 교체 또한 한정적인 고고자료로 주장하기에는 적절치 못하다고 설명하였다. 계남리 1·4호분의 구조와 창녕양식 토기가 신라양식 토기와 유사한 점, 신라양식과 유사한 금공품 등을 근거로 5세기 후반 창녕지역은 범신라 문화에 포괄되며 신라와의 정치적 관계를 언급하였다. 계성고분군 축조집단이 보다 이른 시

20) 박천수, 주 9의 논문(2001)

21) 홍보식, 2011, 「고분을 통해 본 고대 창녕지역 정치체의 성격」, 『고대 창녕지역사의 재조명』

22) 김옥순, 2012, 「창녕지역 양식 토기의 생산체계」, 『백제학보』7

23) 定森秀夫, 주 10의 논문

24) 주보돈, 2009, 「문헌상의 본 고대사회 창녕의 향방」, 『한국고대사 속의 창녕』,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기에 신라와의 정치적인 관계를 통해 신라의 문화를 적극 수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하였다<sup>25)</sup>.

정인태(2015년)는 문헌기록을 통해 “불지국”, “비자발”, “비자화”, “비자별”, “비화”가 가야에 속하는 것을 토대로 창녕지역이 3세기말 혹은 4세기 어느 시점에 가야에 포함되다 하주(555년)설치 전후로 신라권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고고학적으로는 창녕지역의 고분을 봉토분의 축조기법 내 묘역 선정, 묘역 정지, 묘광 굴착, 하부 봉토 성토, 호석 및 주구 축조, 매장주체부 축조 등을 통해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 특징을 설명하였다. I 유형은 5세기 전반경 계성고분군 내 수혈식석곽분의 매장주체부, 봉토 축조기술에서 신라의 영향이 확인되는 단계이며 II 유형은 계성고분군 축조집단의 세력이 확대되는 시기로 수혈식석곽분이 발전하는 단계이다. III 유형은 계성고분군과는 전혀 다른 축조기법(외래)이 재지적 요소와 결합한 횡구식석실분이 교동고분군에 등장하는 시기이다. IV 유형은 송현동고분군이 조성되는 시기로 표형분, 적석목곽묘의 출현 등이 독창적 축조 기법이 아닌 신라 지배집단의 유입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단계이며 V 유형은 계성고분군의 횡구식 묘제 채택, 교동고분군의 횡혈식 묘제의 등장과 분구의 규모, 부장품의 양과 질이 급격해지는 등 본격적으로 신라 지배하에 들어가는 시기이다. 즉, 창녕은 하주가 설치되기 전 가야에 속해있었으나 계성고분군을 시작으로 신라의 영향을 받다가 그 세력이 교동고분군으로 넘어가면서 완전히 신라화되는 지역으로 인지하였다.<sup>26)</sup>

이를 종합해보면 일제강점기 당시 연구자들은 일본이 가야를 지배하였다는 “임나일본부설”을 입증하기 위해 창녕지역을 가야로 지정하고 조사하였지만 큰 성과가 없어 연구를 중단하였다.

해방 이후 창녕지역을 연구한 연구자들은 창녕에 대한 연구의 근거를 주로 토기로 삼았다. 연구자들의 창녕지역 연구 주목적은 창녕지역을 신라로 볼 것인가? 가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의견으로 분류되며 신라와 가야 내에서도 각각 언제부터 신라가 되어가는가?에 대한 시기 등으로 세분된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으로 분류되는 한편 공통점이 확인된다. 어느 순간부터는 신라의 영향이 창녕에 미쳐 창녕이 신라화 혹은 신라에 속한다는 것이다. 또한 연구자들은 창녕 지역의 토기는 신라의 것과 유사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는 것 또한 인지하고 있다. 주로 “창녕양식 토기”, “창녕식 토기”로 명명하여 그 차이를 언급하였다.

창녕지역을 신라로 보는 연구자들은 창녕을 신라의 소집단 중 하나일 것이라고 보는 것과 이른 시기부터 신라의 간접적 영향 혹은 간접적 지배를 받았다는 의견으로 나뉜다. 가야로 보는 연구자들은 토기를 통해서 “창녕양식”, “창녕식”이라고 칭하며 창녕의 독자성을 인정하지만 5세기 중엽 이후 신라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다는 것과 기존에는 가야에 속했지만 6세기 중엽을 기점으로 점차 신라에 속한다는 것, 창녕지역에 이원집단의 존재를 언급하면서 각 집단이 신라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 시기가 다르다는 것으로 의견이 나뉜다.

이렇듯 연구자들의 의견은 대동소이하다.

25) 이성주, 주 11의 논문

26) 정인태, 2015, 「창녕지역 고분 축조기법 검토」, 『계성고분군의 학술적 가치 그리고 활용』, 창녕군·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Ⅱ. 일제강점기에 조사된 창녕 고분군 사진자료

국립박물관은 일제강점기에 촬영된 사진자료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에 대해 5차례 목록집을 발간하였다. 이 유리원판 목록집에는 목록은 정리되었지만 사진자료는 수록하지 못하여 연구자들은 사진자료의 존재만 알 수 있었을 뿐 실제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였고, 그것이 적극적으로 연구에 반영되지 못하였다.

이에 국립박물관에서는 조선총독부박물관 자료공개사업을 시작하여, 이러한 자료에 대한 자료집을 발간하게 되었으며, 이 책 역시 그 한 예이다.

유리원판 목록집<sup>27)</sup> 중 창녕지역 가야 고분과 관련된 사진은 1~5권에 수록되어 있다.

### 1. 사진자료의 해제<sup>28)</sup>

#### (1) 유리원판 목록집 I

총 93매의 사진이 수록되어 있다. 이 중 유적에 대한 사진은 8매, 유구에 대한 사진 3매, 유물사진 82매가 수록되어 있다.

도001~도008의 사진은 1914년 촬영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해의 3월에는 조선총독부 학무국과 도리이 류조가 교동고분군에 대한 기본조사를 실시한 해이다. 도리이 류조는 1911년~1915년까지 사료조사를 총 5회에 걸쳐 실시하였었다. 제3회 사료조사는 1913년도에 이루어졌고 이 당시 창녕 일대를 조사하였다. 도005는 몇 호분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옆이 트인 점에서 석실이라 추정된다. 도006과 도007은 매장주체부인데, 도006은 도007에 비해 벽체나 시상이 원래의 형태를 잘 남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아마도 조사 중에 확장하여 파고 들어간 것으로 일부러 파내어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된다. 도008은 단경호인데 몇 호 출토품인지 정확하지 않고 유사한 것이 교동89호분에서 출토된 바 있다.

도009·도010은 목마산성 아래의 교동고분군을 촬영한 것이나 정확히 누가 언제 찍은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초가집이 보이고 그 너머에 우뚝 솟은 고분이 보이는 것은 고령 지산동 고분군과 마찬가지로 가야고분의 입지가 거주지역에서 분리되어 위엄을 상징하며 입지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도011~도079는 교동 89호분 출토품에 대한 사진이다. 89호분은 1918년 12월부터 1919년 1월까지 야츠이 세이이치에 의해 조사된 무덤이다. 이 무덤에 대해서는 우리 박물관에서 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조사를 하고 있으며 향후 자세한 내용을 보고할 예정으로 여기에서는 간단히 언급만 하고자 한다. 도020의 족부골편이 남아 있는 것은 아마도 도019의 금동제식리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 매장되어 골편이 함께 수거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도040은 안교의 사진인데 중앙에 좌목선금구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여 하나만 놓은 점이 주목된다. 도046은 금동제 식리의 복원편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아마도 안교 복

27) 국립중앙박물관, 1997~2001, 『유리원판 목록집』 I~V

28) 본문 내용에 대해 검토와 조언을 해주신 심현철(우리문화재연구원)님에게 감사드린다.

류일 것으로 추정된다. 도050에 꺾쇠가 있는 점에서 내부에 목관 등의 존재를 상정할 수 있다.

도080~도091은 유물이나 실측도의 사진이다. 도080·도082·도083의 下·도088~도091은 출토유구가 명확하지 않다. 도081은 금제이식을 모아서 찍은 사진인데, 7·12·87호분에서 출토된 것이다. 이들 유구는 1918년 야츠이 세이이치에 의해 조사된 것이다. 87호분은 조사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89호분의 오기로 추정된다. 도084·도085는 청동제각형배인데, 현재까지 가야·신라에서 확인된 각배 중 금속제는 금관총 출토품과 교동 7호분 출토품 2점이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서는 2015년 발간된 창녕 교동 7호분 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도086은 초두의 사진이며, 도087은 이것의 실측도이다. 실측도를 사진 찍은 것이 좀 의아스럽다. 다만 중요유물에 대해서 실측을 바로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도092는 송현동고분군의 원경인데 촬영 연대는 알 수 없다.

## (2) 유리원판 목록집 II

총 42매의 사진이 수록되어 있다. 이 중 유적에 대한 사진은 18매, 유구에 대한 사진 15매, 유물사진 9매가 수록되어 있다.

도094~도226은 유적과 유구의 사진인데 대부분 116호와 117호분 관련 사진이다. 아마도 1931년 조선총독부 박물관과 고이즈미 아키오에 의해 실시된 발굴조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도095~도109는 116호분 발굴 관련 사진이다. 도096은 116호분 발굴을 위해 흰 천막을 고분 정상부에 설치한 점이 주목된다. 현재 발굴과 같이 봉토의 축조에 대한 조사보다는 매장주체부에 일찍 접근하기 위해 상면에서 한쪽으로 파내려가는 방법의 조사를 실시한 것과 관련 있어 보인다. 도097~도100은 116호분의 매장주체부로 가기 위한 발굴과정을 기록한 것인데 삽과 곡괭이 등 발굴 도구가 확인된다. 또한 도100은 세로로 긴 돌이 2개 세워져 있는데, 도099를 보면 그 앞에 돌이 쌓여져 있는 점이 주목된다. 아마도 일정부분을 돌로 채워 폐쇄한 듯한 느낌이다. 도101~도108은 석실 내의 사진이다. 벽이 장대석으로 세워진 모습이 주목되고 바닥에도 시상이 깔려있음을 알 수 있다. 도101·도102의 사진에 두부 상면의 토기군이라고 기록된 점에서 피장자의 인골이 남아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도110~도118은 117호 발굴과 관련된 사진이다. 도111·도112를 보면 봉토를 제거할 때, 계단식으로 제거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도113에는 인부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10여 명이 작업을 하고 있다.

도121은 119호분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일제강점기 발굴된 유구를 살펴보면 119호분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16호분의 오기로 추정된다. 도123~126은 언제 누가 찍은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1931년 고이즈미 아키오의 조사와 관련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도127~도135는 유물, 유구실측도 등의 자료이다. 도127~도129는 31호분 출토품의 사진자료이다. 31호분은 창녕 고분군 중 최초로 정식발굴에 의해 조사된 무덤이다. 하마다 고사쿠와 우메하라 스에지가 1918년 10월 21호와 함께 조사한 것으로 특히 31호분은 도굴되지 않은 처녀분으로 정식 발굴조사보고서가 1922년에 발간되었다. 도130은 교동 12호분의 유구도면, 도131~도133은 교동 89호분의 관련도면으로 1918년 12월 야츠이 세이이치에 의해 조사, 작성된 것이다. 도134는 창녕지역의 유적분포도를 작성한 것인데 이것 역시 1918년 야츠이 세이이치에 의해 작성되어 이후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을 분리시키고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이후 창녕군과



우리문화재연구원의 일련번호 재부여 이전까지 정식 일련번호로 채용된 것과 관련된 자료이다. 도135는 마구로 출토 유구는 명확하지 않다.

### (3) 유리원판 목록집 Ⅲ

총 9매의 사진이 수록되어 있다. 이 중 유적에 대한 사진은 4매, 유물사진 5매가 수록되어 있다.

도136~도139는 송현동고분군에 관한 사진이다. 앞서 언급한 1918년 야츠이 세이이치의 교동, 송현동고분군의 분리 이후에 촬영된 사진으로 보인다. 도140은 앞서 언급한 교동 89호분 출토품으로 여기에서는 겹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사진과 실측도를 함께 촬영해 두었다. 아마도 연구자들 간에 이견이 있어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도141~144는 31호분 출토품 사진인데, 1938년 3월 조선총독부에서 동경제실박물관에 31호분을 기증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 (4) 유리원판 목록집 Ⅳ

총 44매의 사진이 수록되어 있다. 이 중 유적에 대한 사진은 1매, 유물사진 43매가 수록되어 있다.

도145는 금제세환이식의 사진인데, 좌측은 교동 7호분, 우측은 경주 보문리 합장분 출토품이다. 보문리 합장분은 1915년 조사된 것으로 2011년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발굴조사보고서를 발간한 유적이다. 기존에는 보문리 부부총으로 불리었는데 보고서를 작성하며 부부가 아닌 여성 2명의 무덤임으로 밝혀졌다. 이 두 무덤에서 출토된 이식의 형태가 거의 유사한 점을 비교하기 위해 촬영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일제강점기에도 창녕과 신라의 친연관계가 있었을 것을 자료로서 확인할 수 있었다.

도146의 右는 31호분 출토 이식의 사진이다. 이것은 앞서 유리원판 목록집 Ⅲ에 도141~도144와 같이 1938년 3월 조선총독부에서 동경제실박물관에 31호분을 기증하는 일과 관련하여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도147~도154 · 도164~도166 · 도183~도186 · 도188은 교동 89호분 출토품에 대한 사진으로 일부가 유리원판 목록집 I에 수록된 것과 겹친다. 이에 대해선 향후 보고서에서 자세히 밝히고자 한다. 또한 도188은 교동이 아닌 송현동으로 기록되어 오기로 판단된다.

도147~도154는 1918년 야츠이 세이이치의 조사와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고 도161 · 도173~도182는 하마다 고사쿠와 우메하라 스에지가 조사한 31호분 출토품의 사진이다. 31호분 관련 사진들은 1922년 우메하라 스에지가 촬영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이 주목된다. 이것이 1938년 3월 조선총독부에서 동경제실박물관에 31호분을 기증하는 일과 관련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도187은 교동고분군 출토 초두의 실측도인데 앞서 살핀 유리원판 목록집 I의 도087 도면과 동일한 것이다.

### (5) 유리원판 목록집 V

총 75매의 사진이 수록되어 있다. 이 중 유적에 대한 사진은 35매, 유구에 대한 사진 23매, 유물사진 17매가 수록되어 있다.

도189~도194는 1917년 이마니시 류의 조사 사진이다. 이 조사를 통해 교동, 송현동고분군을 6개 군으로 구분하고, 일련번호를 부여하기 시작한 조사이다. 도195~261은 1918년 야츠이 세이이치가 촬영한 것이다. 도210은 유구번호가 확실하지 않지만 맨 끝 쪽에 있는 개석의 노출상태 등으로 보아 교동 7호분의 발굴모습으로 추정된다. 도212~214는 교동 8호분의 매장주체부인데 대호 등의 출토상태로 보아 처너분임을 알 수 있다. 도229~도230은 교동 11호분 출토 동제안교의 모습인데 중요유물을 바로 수거해 촬영했음을 알 수 있다. 유물에 대한 위치 등 기록을 마치지 않고 중요유물의 수거에 급급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도231~도234는 교동 12호의 모습이다. 상부에 적석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장면이다. 이전 교동 12호분에 대해 적석목곽묘라는 설과 아니라는 설이 대치하고 있었는데, 이 사진을 공개함으로써 새로운 자료가 추가되었다. 사진 상으로는 적석목곽묘로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총 263매의 사진 중 유적 66매, 유구 41매, 유물 156매로 구분이 가능하다. 유적이거나 유물에 비해 유구의 사진은 적는데 현재의 발굴체계와는 다른 양상이다. 즉 발굴상황을 하나하나 기록하기 보다는 흥밋거리 위주의 사진 촬영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 2. 사진자료

### (1) 유리원판 목록집 I



도001. 제3회 사료조사 창녕 교동 고분군 전경(2-1)\_촬영1914년, 소판130268

\* 북쪽에서 바라본 I 군 7호분 일대(왼쪽부터 12·11·7·5·6·4·3·2·1호분)



도002. 제3회 사료조사 창녕 교동 고분군 전경(2-2)\_촬영1914년, 소판1302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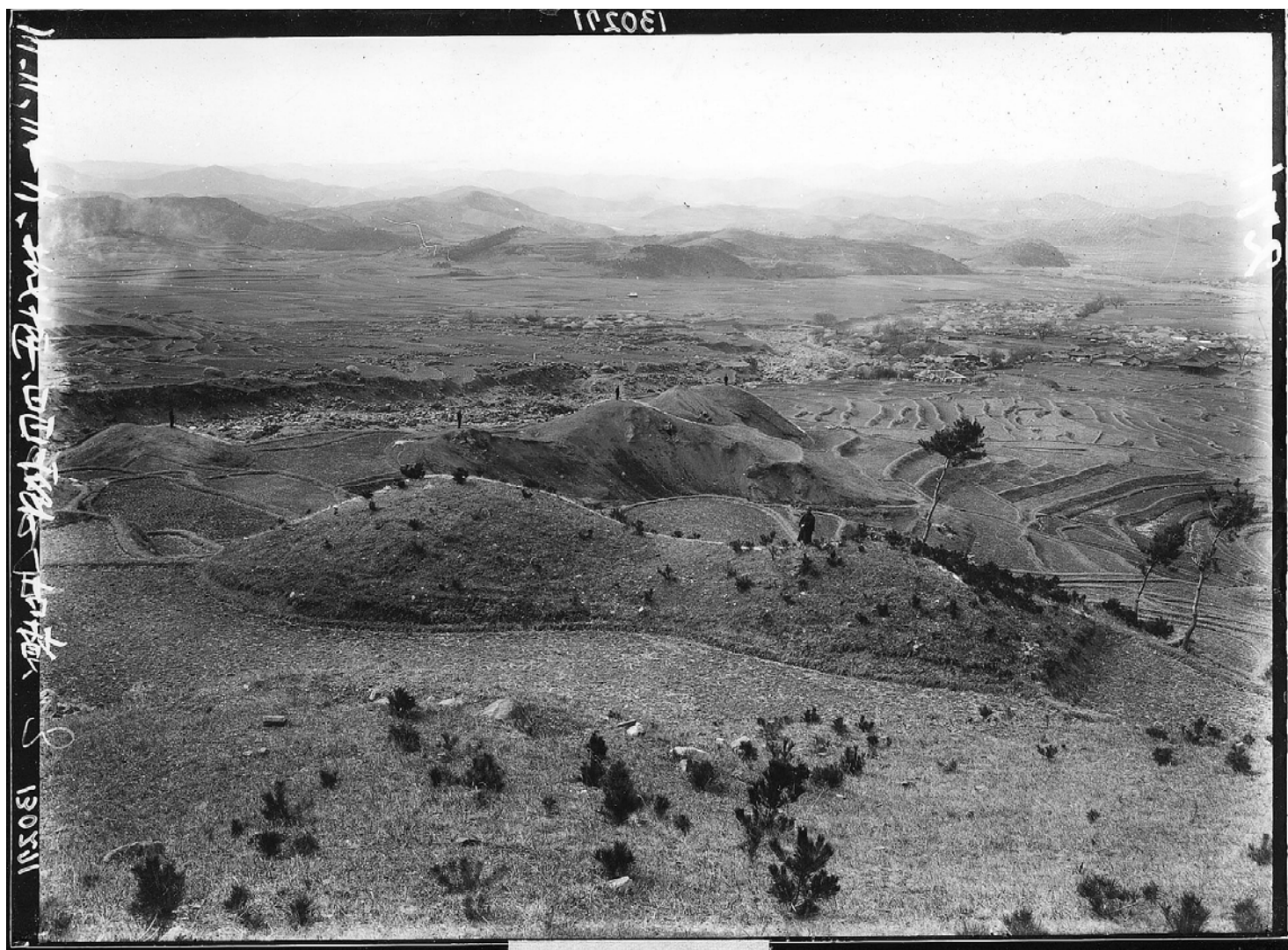
\* 북쪽(現 이문재 저수지 방면)에서 바라본 Ⅱ군 일대(왼쪽 대형분 Ⅱ군 10(日89)호분, 오른쪽 대형분 Ⅱ군 22(日117)호분)



도003. 제3회 사료조사 창녕 북쪽의 고분 위에서 본 남쪽의 창녕 교동 고분군\_촬영1914년, 소판130270

\* Ⅰ군 7호분 위에서 바라본 Ⅱ군의 전경(앞:11·12호분, 左中:Ⅱ군 10(日89)호분, 右中:Ⅱ군 22(117)호분)





도004. 제3회 사료조사 창녕 교동 표형고분\_촬영1914년, 소관130271  
 \* Ⅲ군(송현동) 9호분 부근에서 서쪽으로 바라본 Ⅲ군 전경(앞 표형분 Ⅲ군 6·7호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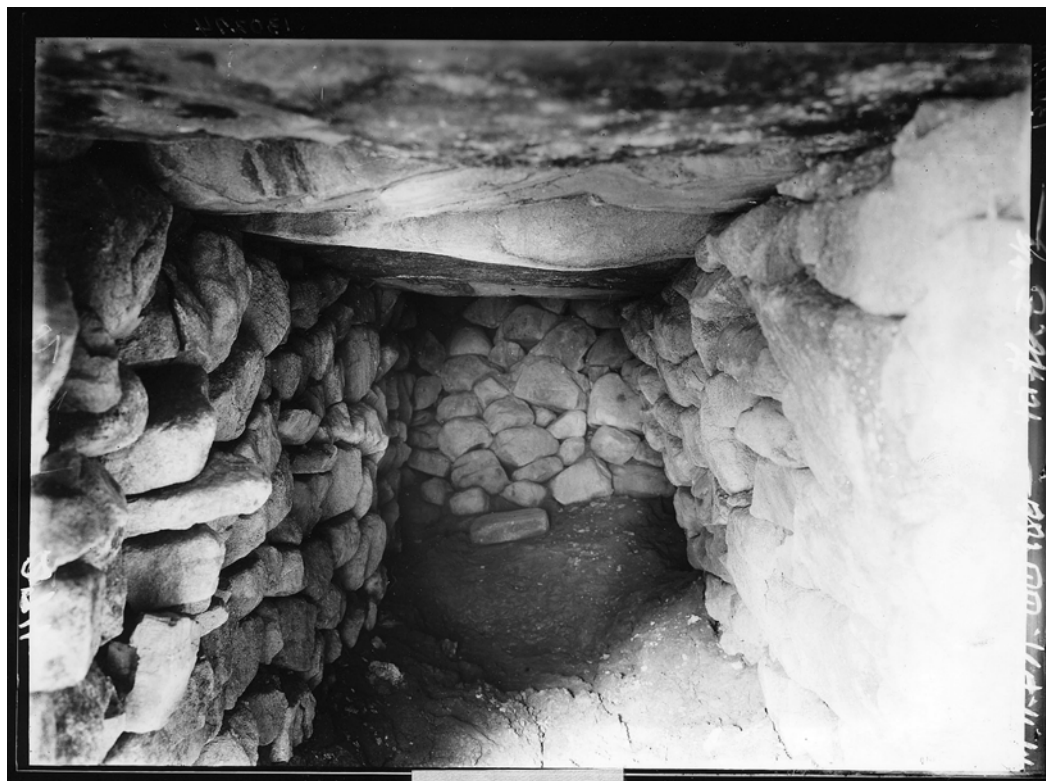


도005. 제3회 사료조사 창녕 교동 고분(2-1)\_촬영1914년, 소판130272



도006. 제3회 사료조사 창녕 교동 고분 내부(2-2)\_촬영1914년, 소판130273





도007. 제3회 사료조사 창녕 교동의 도굴된 고분 내부 석곽\_촬영1914년, 소판130274



도008. 제3회 사료조사 창녕 고분 출토 원저단경호  
\_촬영1914년, 소판130281



도009. 목마산성 아래 교동[송현동] 고분군 원경 (2-1)\_ 소판150761

\* 남동쪽에서 바라본 Ⅱ군 전경 좌측 대형분 Ⅱ군 5(日116)호분, 우측 대형분 Ⅱ군 10(日89)호분, 現 군인아파트 방향에서 촬영



도010. 목마산성 아래 교동[송현동] 고분군 원경 (2-2)\_ 소판1507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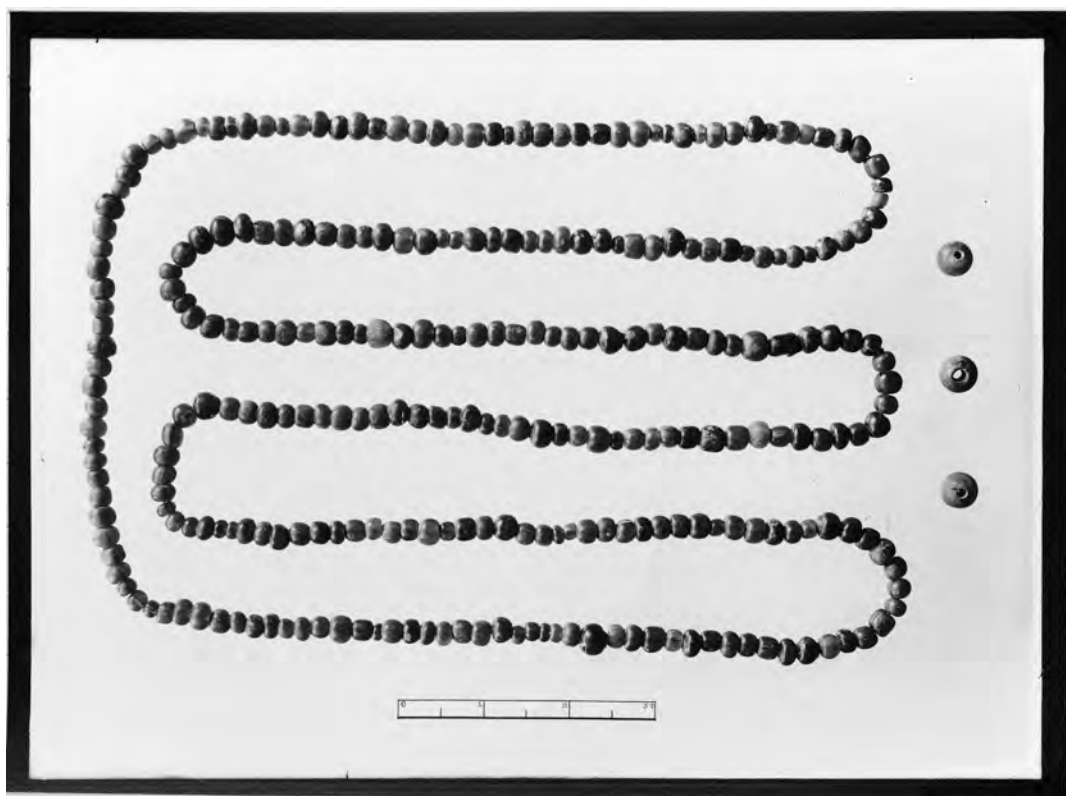
\* 서쪽에서 바라본 Ⅱ군과 Ⅲ군 전경, 봉토분은 보이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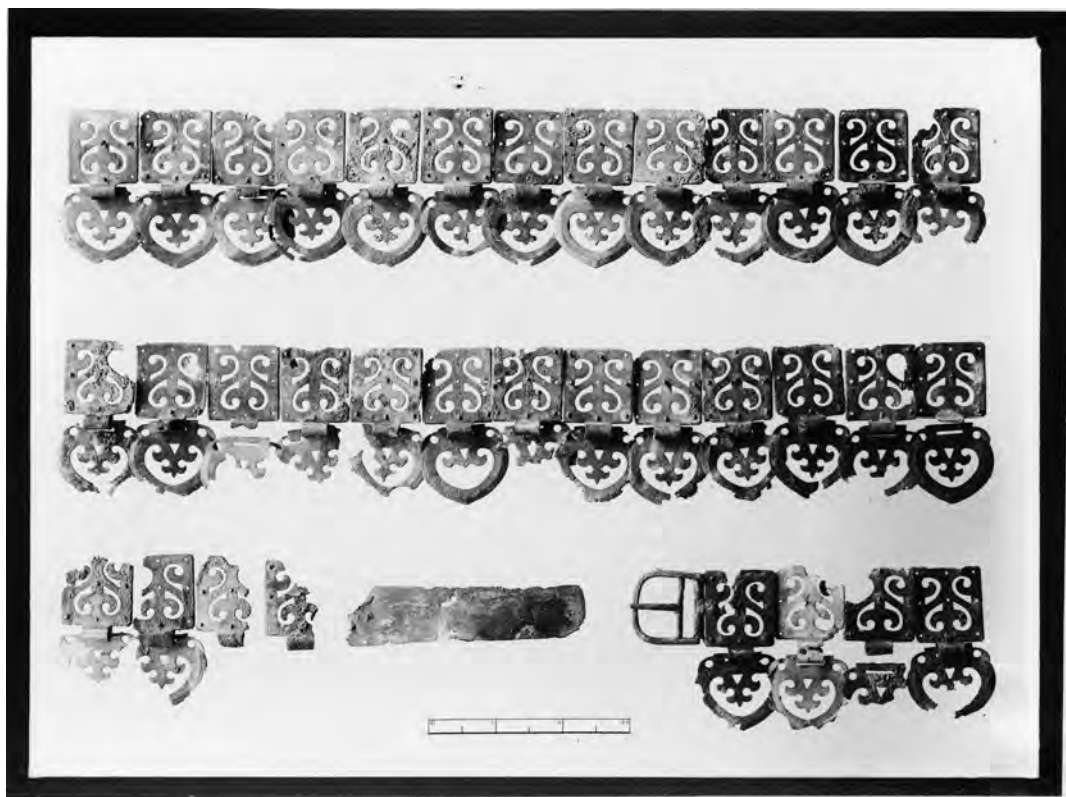
도011.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은제조익형  
관식편과 백화수피제관모편\_소판180227



도012.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금제이식, 유리구슬, 곡옥\_소판180228



도013.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유리구슬\_ 소판1802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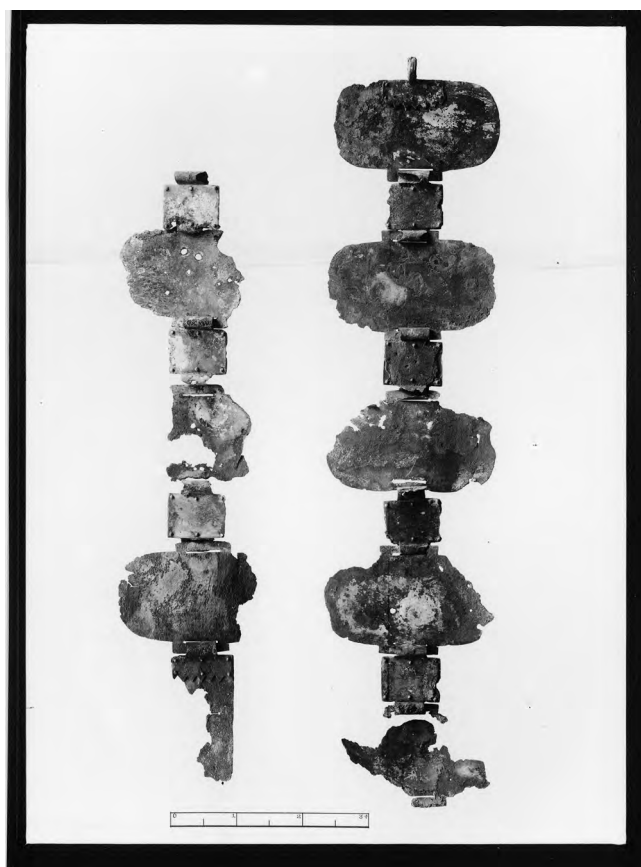
도014.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은제과대장식\_ 소판1802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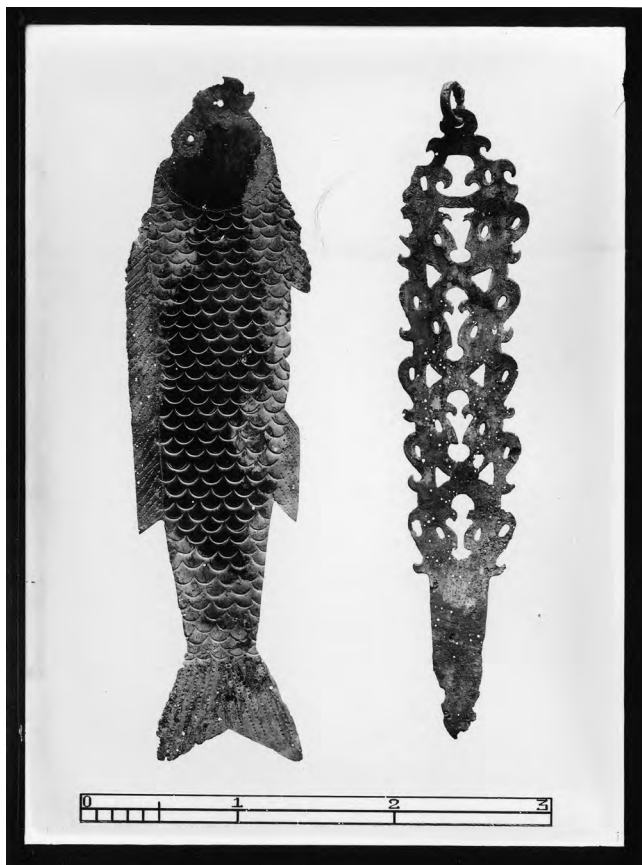
도015.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은제과대수식  
(4-1)\_ 소판180231



도016.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은제과대수식  
(4-2)\_ 소판1802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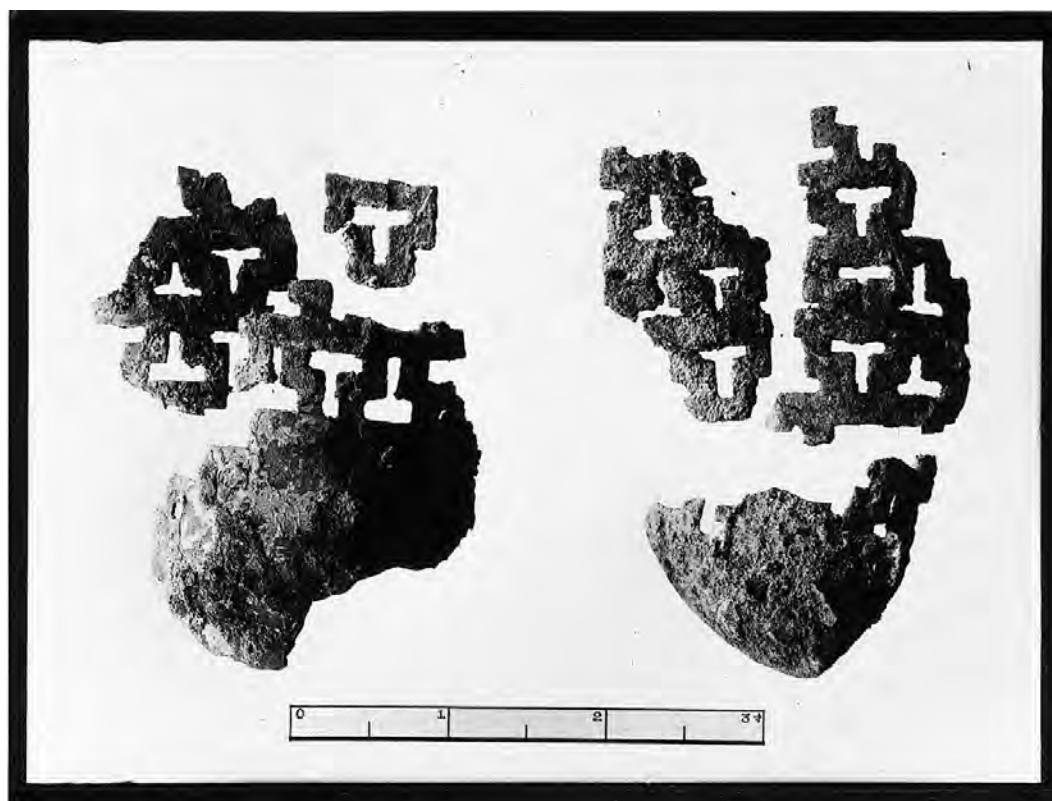
도017.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은제과대수식  
(4-3)\_ 소관180233



도018.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은제과대수식  
(4-4)\_ 소관180234







도019.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금동제식리편\_ 소판180235



도020.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족부 골편\_ 소판180236



도021.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삼엽환두대도\_소판180237



도022.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환두대도  
\_소판1802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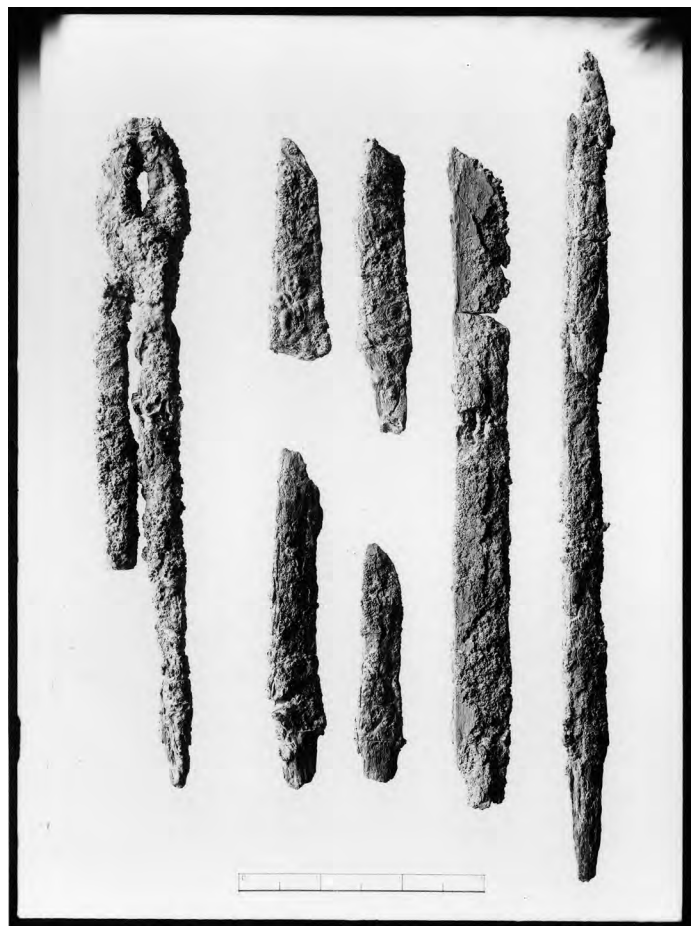
도023.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철검과 대도편  
 \_ 소판180239



도024.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철도편과 이지창  
 \_ 소판180240



도025.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도자와 단야구  
\_ 소판180241



도026.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철촉\_ 소판180242



도027.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철모(6-1)  
\_ 소관1802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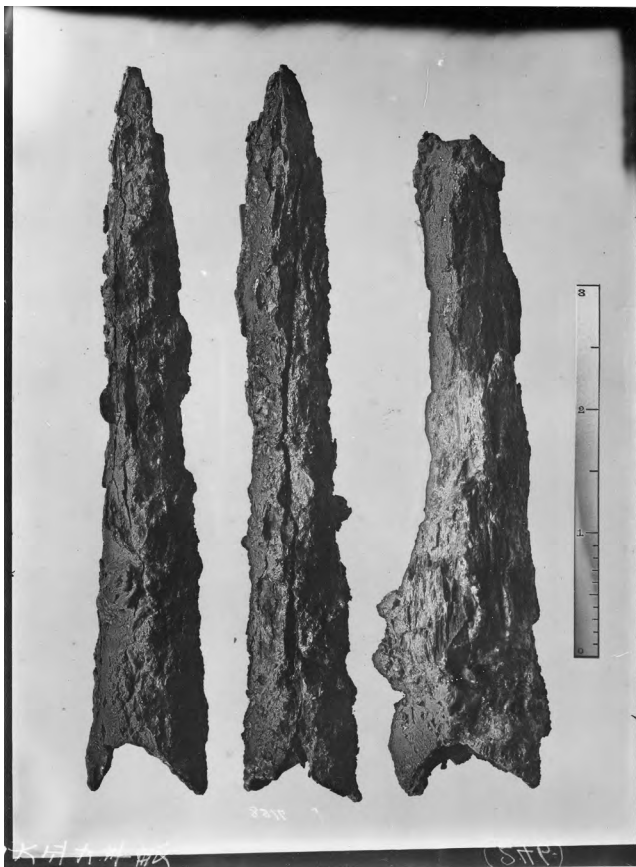


도028.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철모(6-2)  
\_ 소관180244





도029.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철모(6-3)\_소관180245



도030.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철모(6-4)\_소관180246



도031.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철모와 철준(6-5)  
 \_ 소관180247



도032.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철모(6-6)  
 \_ 소관180248





도033.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철모(3-1)\_ 소관1802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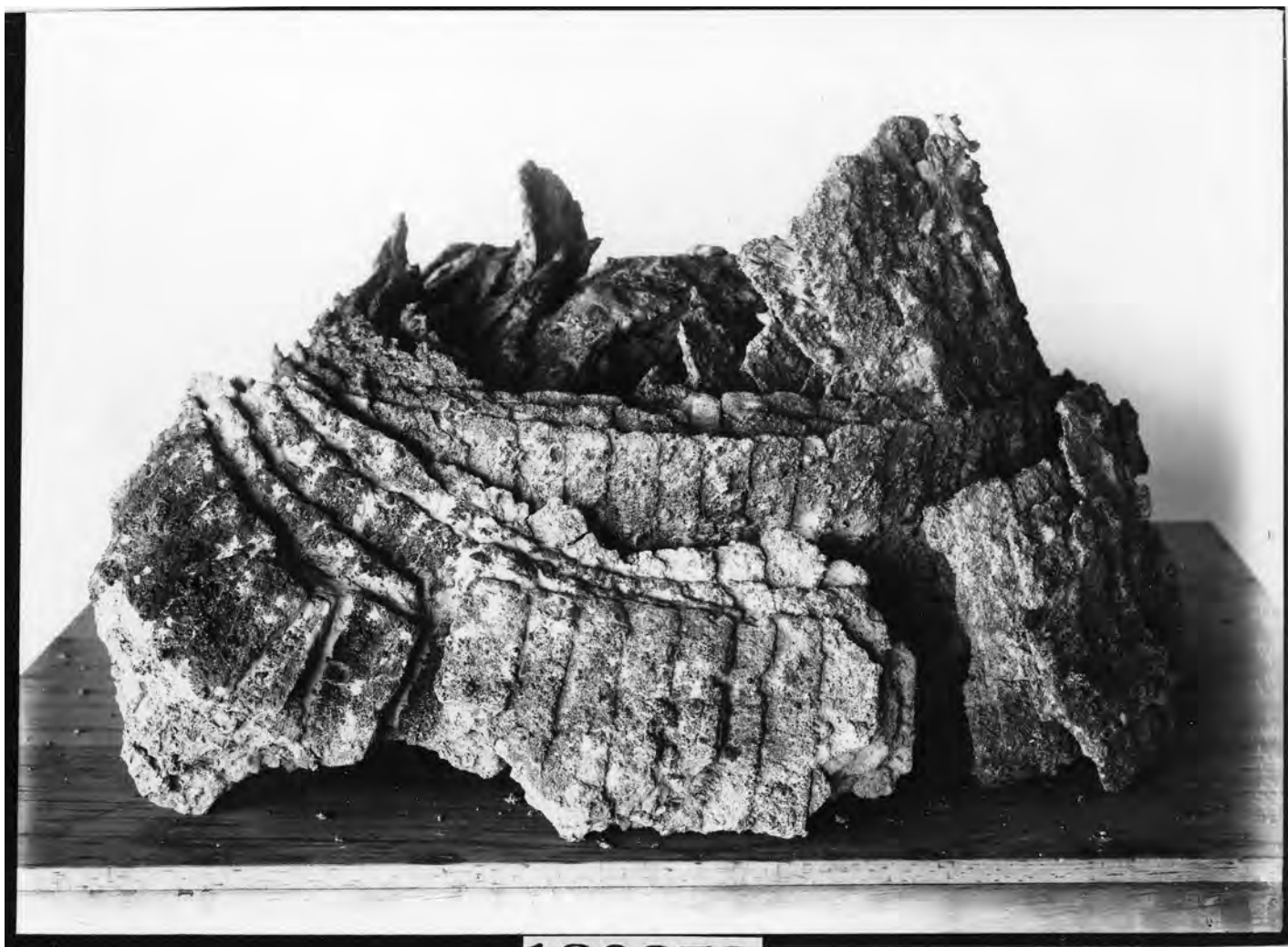


도034.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철모(3-2)  
\_ 소관180250



도035.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철모(3-3)  
\_ 소관180251





도036.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껍갑(3-1)\_소관180252



도037.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껍갑(3-2)\_소판1802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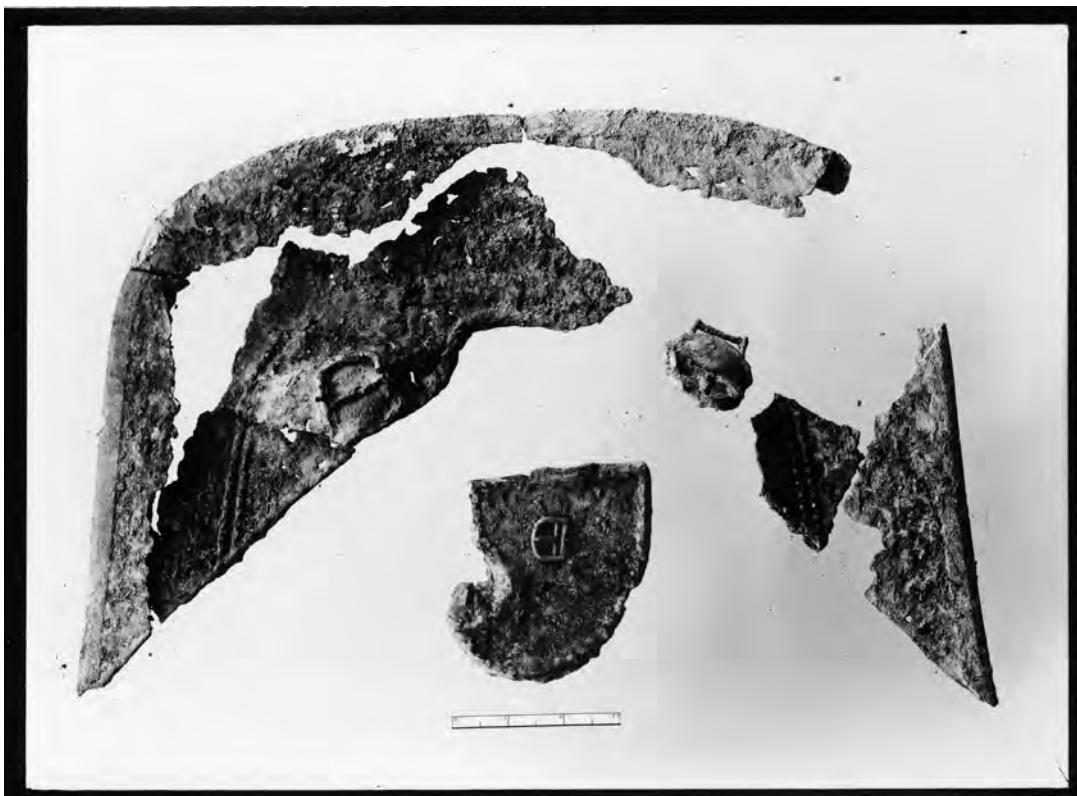


도038.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껍갑(3-3)\_소판180254





도039.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안교(2-1)\_소판180255



도040.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안교(2-2)\_소판1802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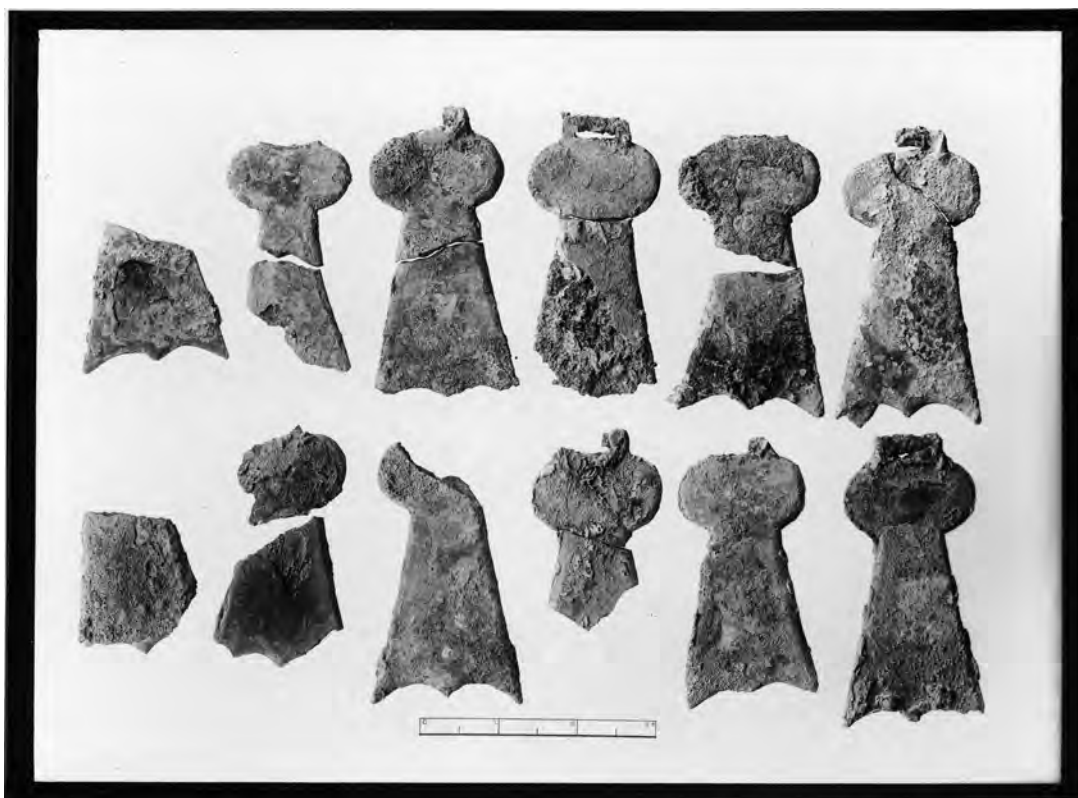


도041.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등자\_ 소관1802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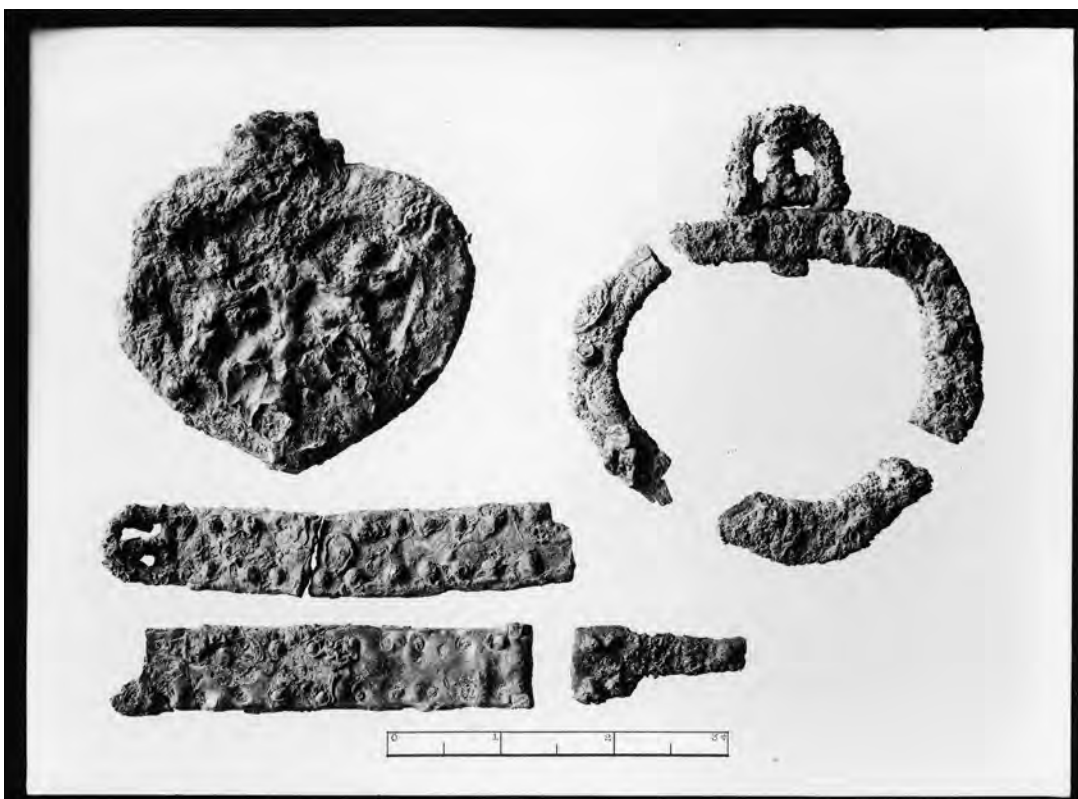


도042.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마탁  
\_ 소관180258





도043.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행엽(2-1)\_ 소관1802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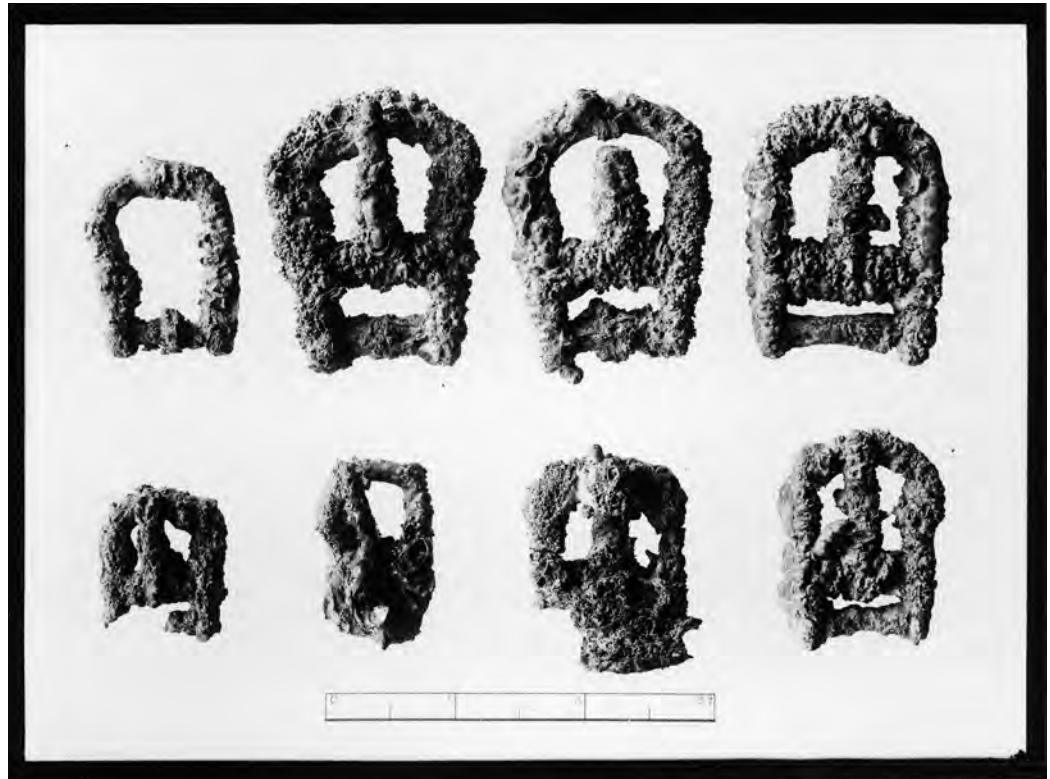
도044.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행엽과 성시구편(2-2)\_ 소관1802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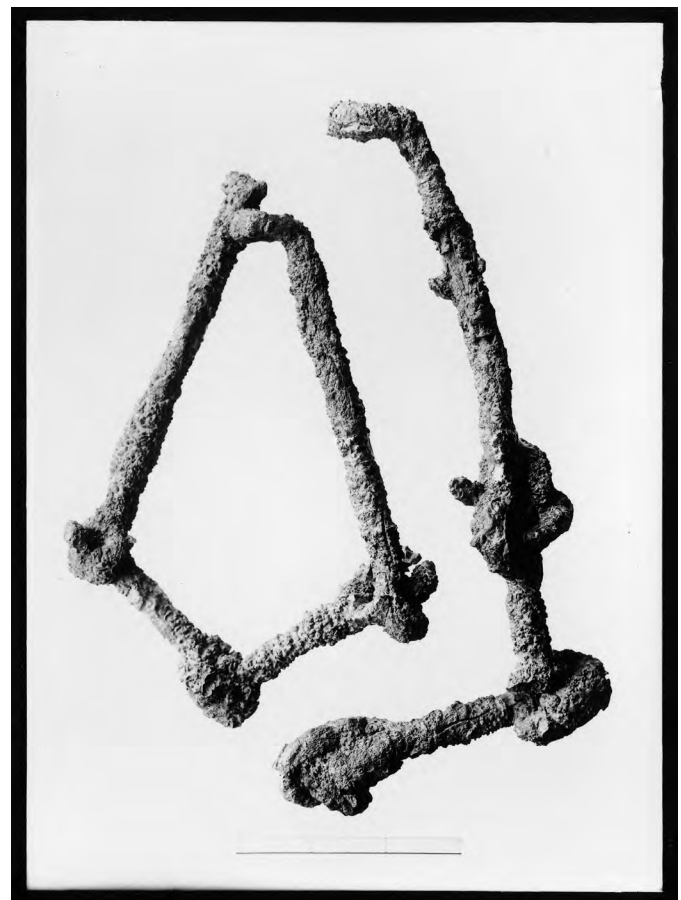
도045.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운주\_소관180261



도046.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금동제식리 복륜편\_소관180262



도047.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철제교구\_소판180263



도048.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철제비편  
\_소판180264





도049.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철제비편\_소관1802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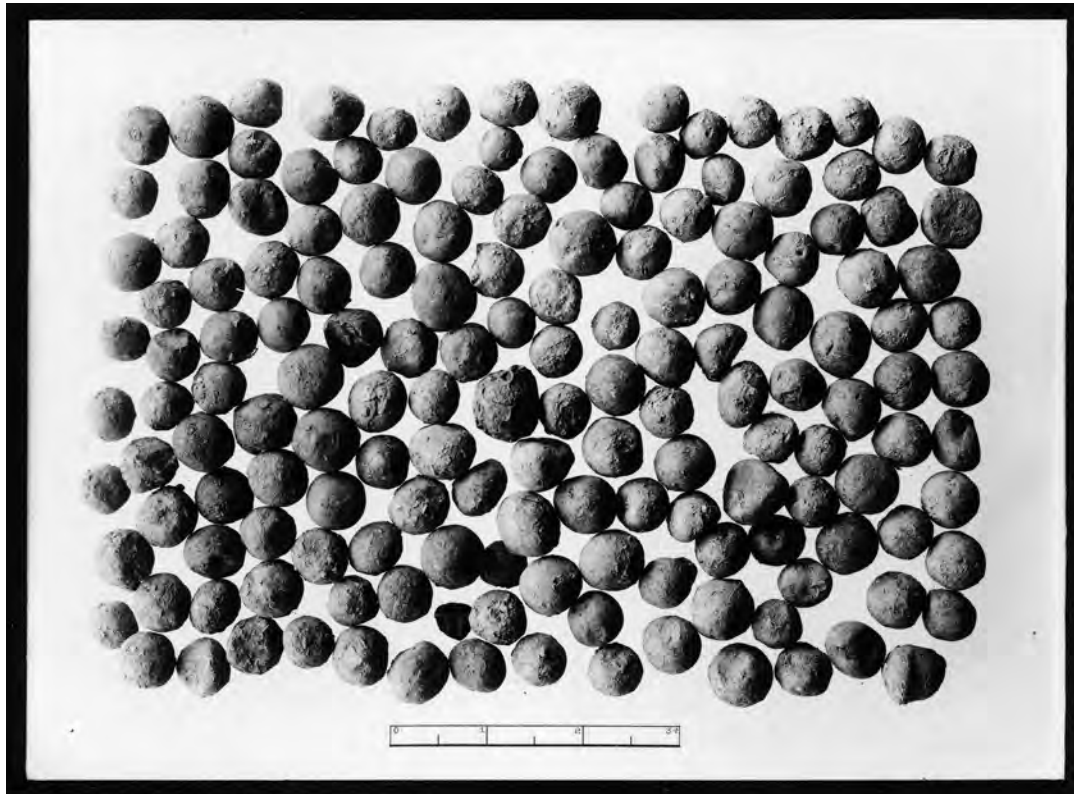


도050.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꺾쇠\_소관180266

도051.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사행상철기  
\_ 소관180267



도052.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과대장식과 기타\_ 소관180268



도053.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토제구슬\_ 소관180269



도054.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고배(26-1)\_ 소관180270





도055.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고배(26-2)\_소판180271



도056.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고배(26-3)\_소판180272



도057.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고배 (26-4)\_ 소관180273



도058.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대부완 (26-5)\_ 소관180274



도059.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파수대부완(26-6)\_소관180275



도060.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파수대부완(26-7)\_소관180276





도061. 장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파수대부완(26-8)\_소판180277



도062. 장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대부장경호(26-9)\_소판180278

도063.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장경호(26-10)  
\_소관180279



도064.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장경호(26-11)  
\_소관180280





도065.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원통형토기, 장경호(26-12)\_소판180281



도066.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원저단경호(26-13)\_소판1802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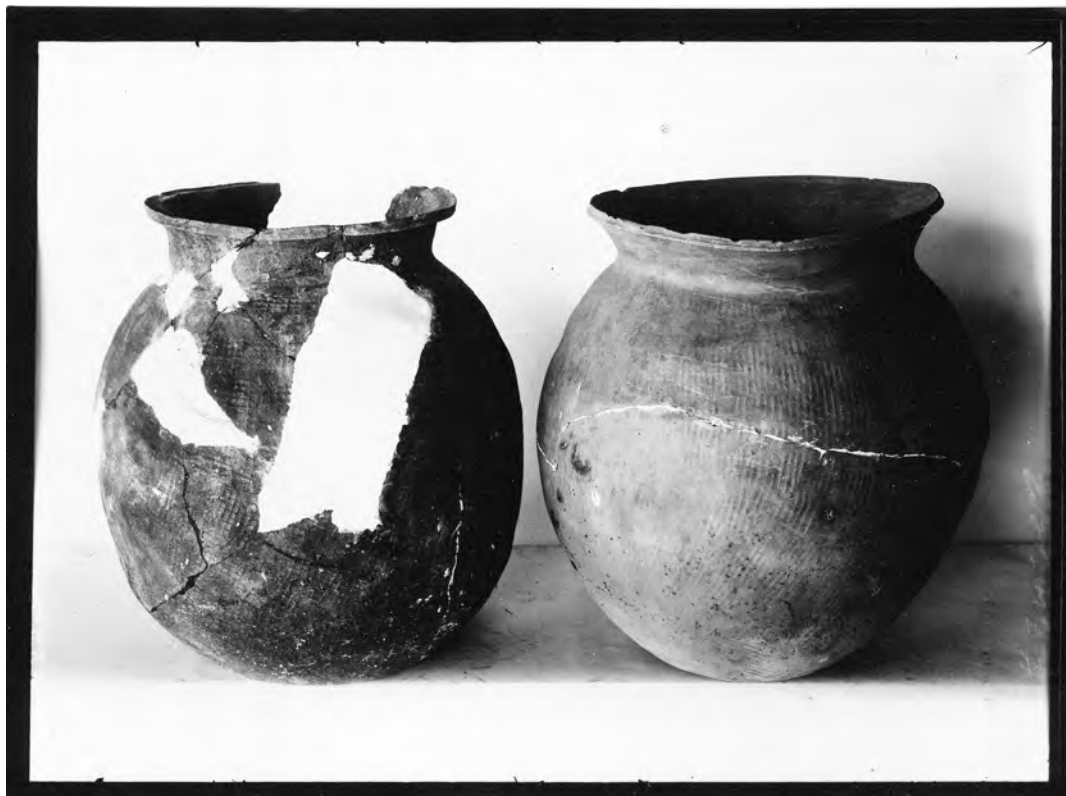




도067.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원저단경호(26-14)\_소관180283



도068.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원저단경호(26-15)\_소관180284



도069.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원저단경호(26-16)\_소판180285



도070.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원저단경호(26-17)\_소판180286

도071.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배 (26-18)  
\_ 소관180287



도072.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배 (26-19)  
\_ 소관180288



도073.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배 (26-20)  
\_ 소관180289







도074. 장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완(26-21)\_소판180290



도075. 장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발(26-22)\_소판180291



도076.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통형기대(26-23)\_소판180292

도077.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파수부  
유개호(26-24)\_소판180293



도078.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파수부  
유개호(26-25)\_소판180294



도079.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파수부  
유개호(26-26)\_소판1802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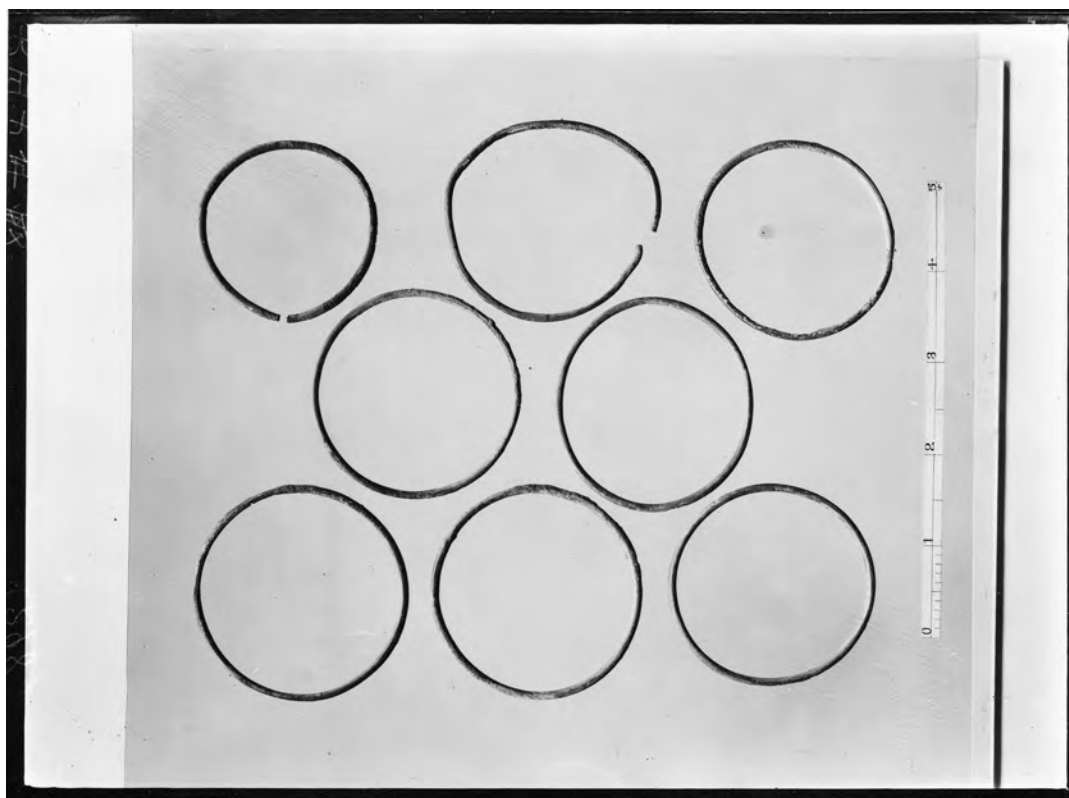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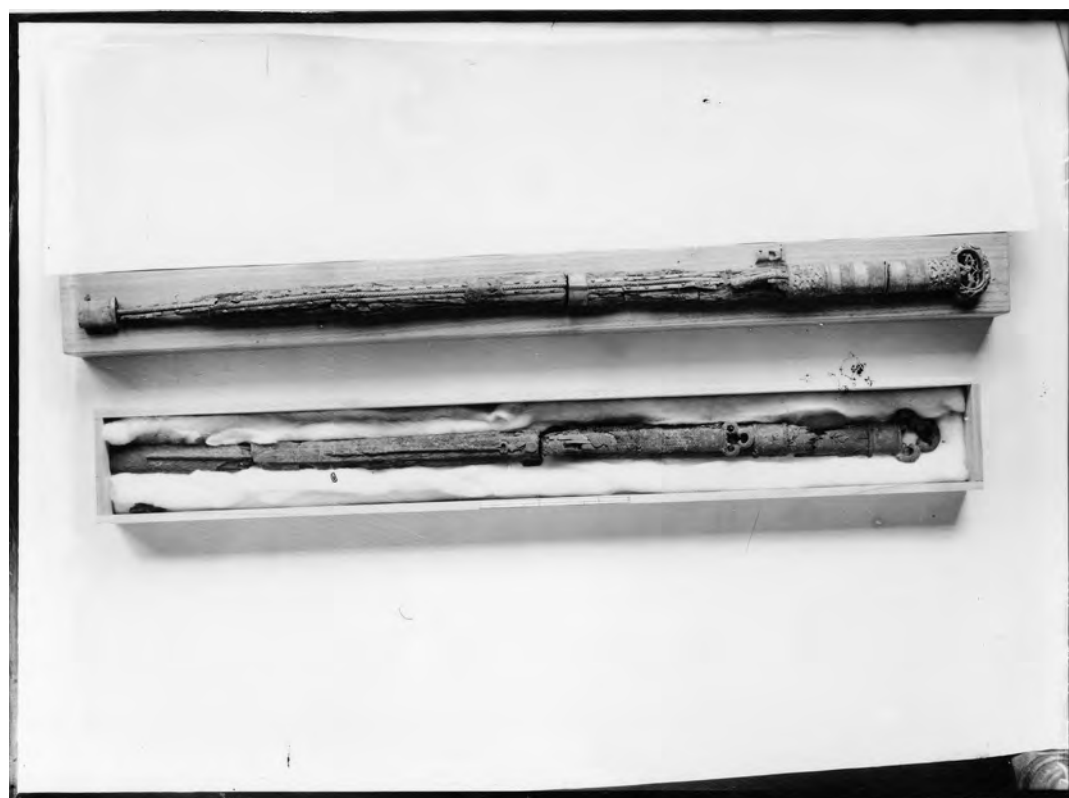
도080. 창녕 교동 고분군 출토 장경호\_소관180296



도081. 창녕 교동 고분군 출토 금제이식 각종[右:12호분, 中·左上:7호분, 左下:87호분]\_소관180297



도082. 창녕 교동 고분군 출토 은제천\_소판1802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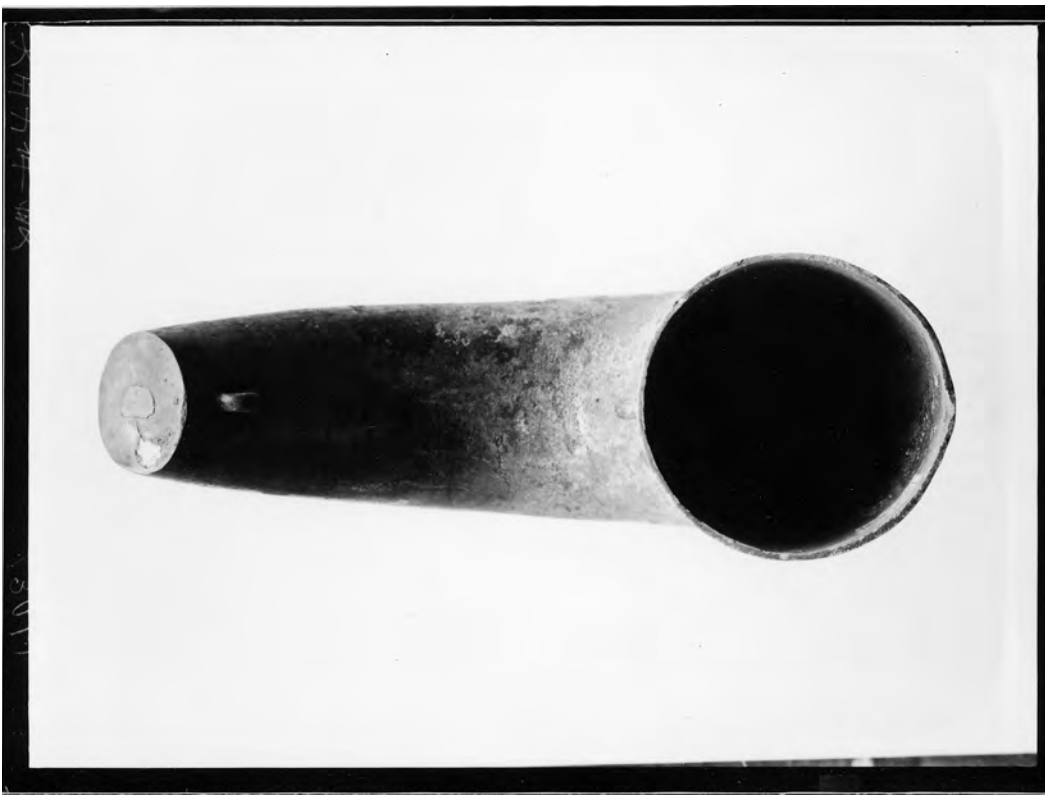


도083. 창녕 교동 고분군 출토 환두대도\_소판180299  
\*上:10호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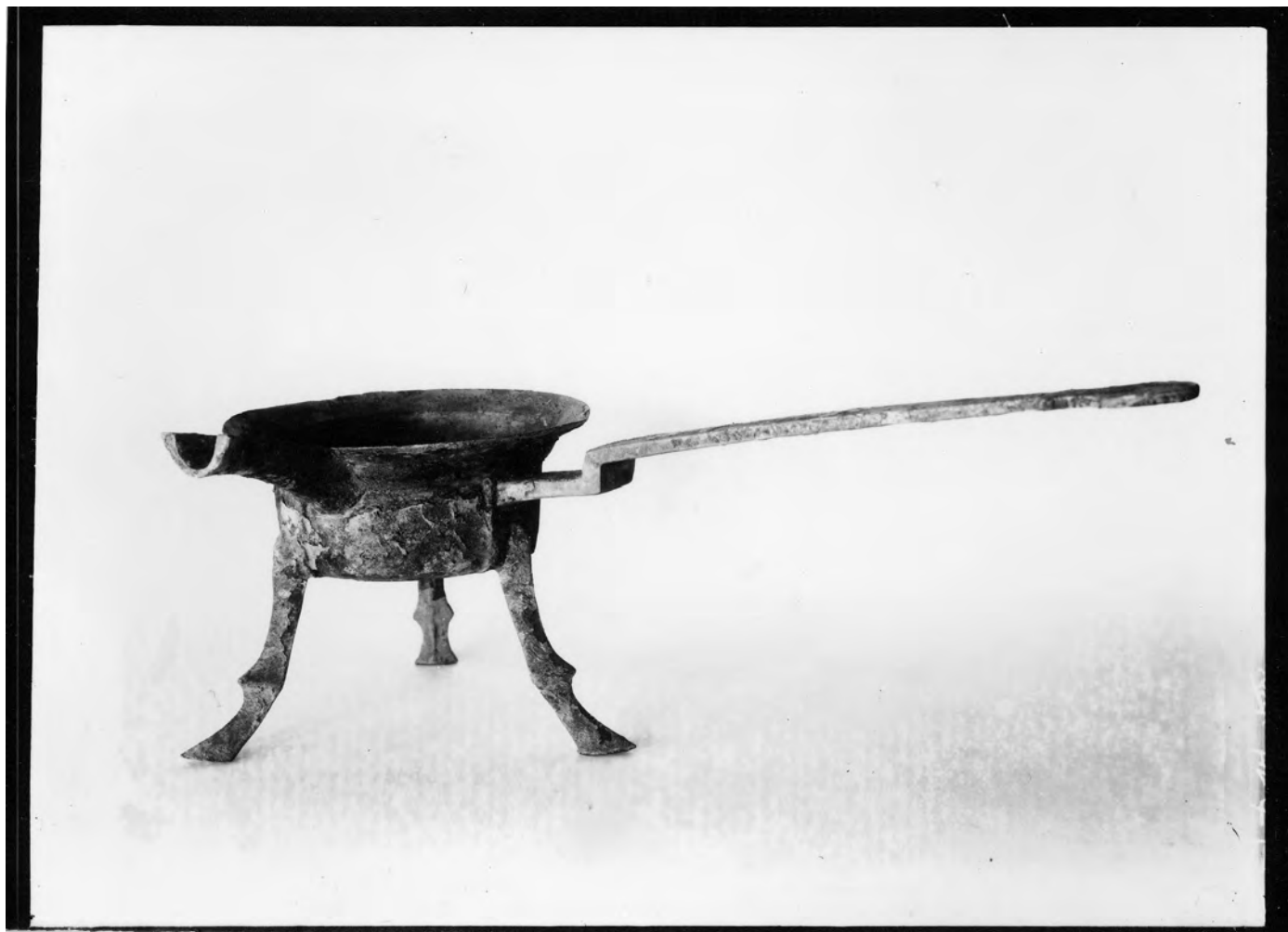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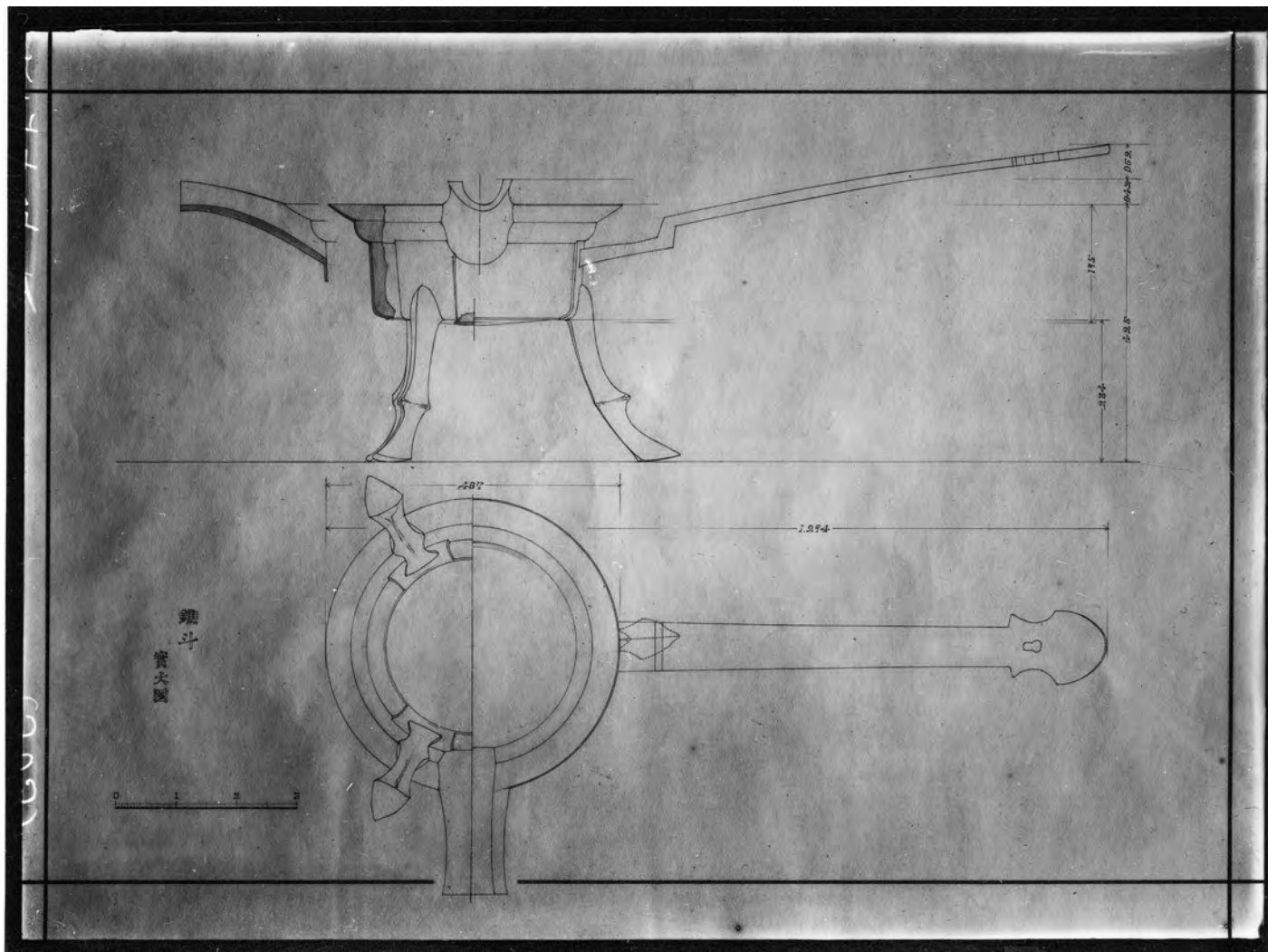
도084. 창녕 교동 고분군 제7호분 출토 청동제각형용기(2-1)\_소판180300



도085. 창녕 교동 고분군 제7호분 출토 청동제각형용기(2-2)\_소판180301



도086. 창녕 교동 고분군 제11호분 출토 청동초두\_소관180302



도087. 창녕 교동 고분군 제11호분 출토 청동초두 실측도\_소관1803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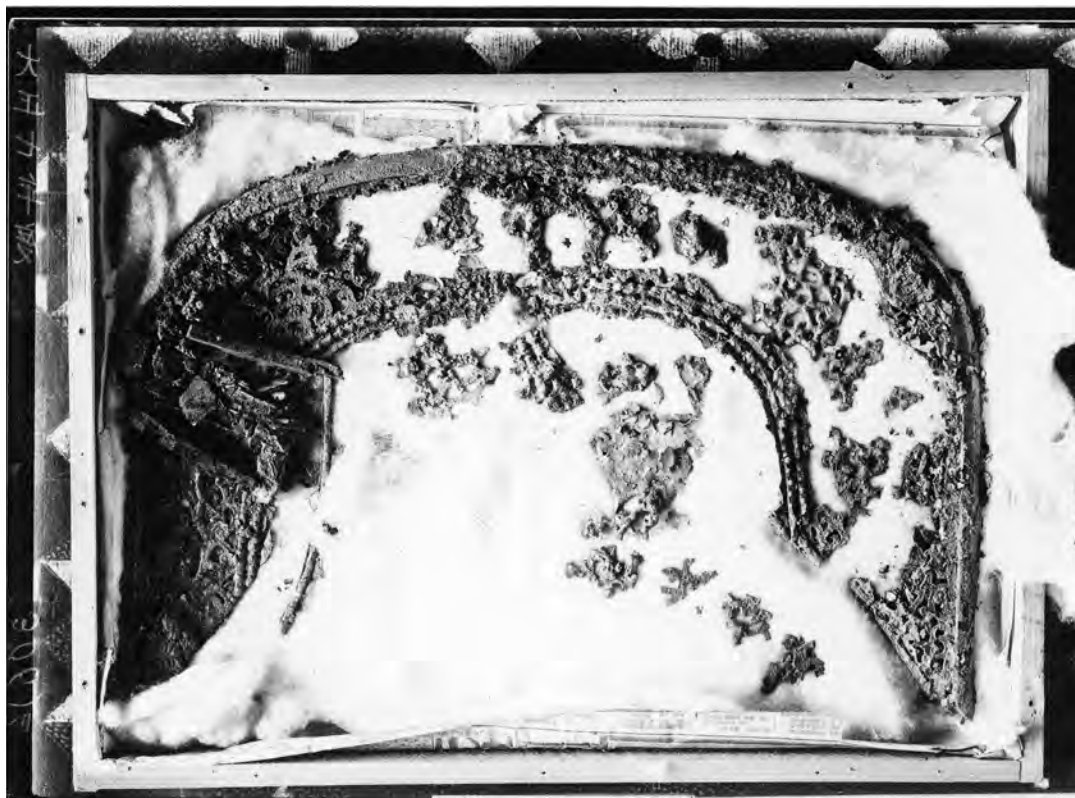
도088. 창녕 교동 고분군 출토 철지금장함\_ 소판180304



도089. 창녕 교동 고분군 출토 안교(3-1)\_ 소판180305  
\* I 군 7호분 출토품



도090. 창녕 교동 고분군 출토 안교(3-2)\_소판180306-1  
\* 1군 7호분 출토품



도091. 창녕 교동 고분군 출토 안교(3-3)\_소판180306-2  
\* 1군 7호분 출토품





도092. 창녕 송현동 고분군의 고분 위에서 바라본 창녕 제5호분 방면\_ 소관220047

\*『大正七年度報告書』도판 제58의 제88도의 원본일 가능성, Ⅲ군(송현동 고분군)에서 바라본 1·2군 전경





도093. 창녕 송현동 고분군\_ 소관220048  
 \* Ⅲ 군(송현동고분군) 제2호분(앞)과 제3호분(뒤)

(2) 유리원판 목록집 Ⅱ



도094. 창녕 교동 고분군 제116호분 발굴 전 동남쪽에서 바라본 우측 부근 고분군\_소판310037

\* Ⅱ군 15(日116)호분 발굴 전 동남쪽에서 바라본 우측 부근 고분군



도095. 창녕 교동 고분군 제116호분 동쪽에서 바라본 발굴 전의 상태\_소판310038

\* Ⅱ군 15(日116)호분 동쪽에서 바라본 발굴 전의 상태





도096. 창녕 교동 고분군 제116호분, 제117호분 위에서 바라본 서면 전형\_소판310039  
 \* Ⅱ군 15(日116)호분, 22(日117)호분 위에서 바라본 서면 전형



도097. 창녕 교동 고분군 제116호분 동쪽에서 바라본 발굴 중의 상황\_ 소관310040



도098. 창녕 교동 고분군 제116호분 소석 제거 전의 석실 동부 입구 외면의 폐쇄석(2-1)\_소판310041



도099. 창녕 교동 고분군 제116호분 소석 제거 전의 석실 동부 입구 외면의 폐쇄석(2-2)\_소판310042





도100. 창녕 교동 고분군 제116호분 북벽 제거 전의 석실 북벽 입구 외부\_소판310043



도101. 창녕 교동 고분군 제116호분 두부 상면의 토기군(2-1)\_소판3100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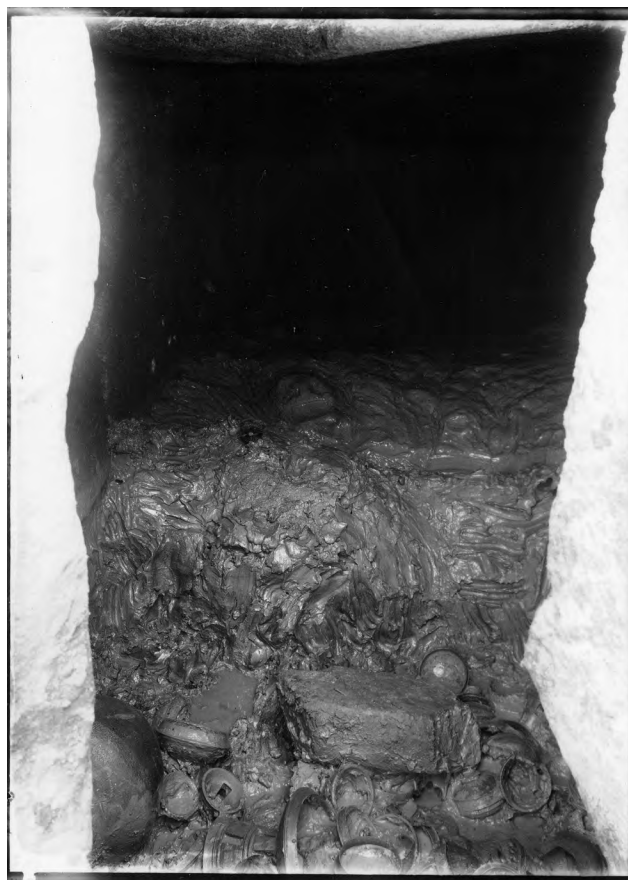
도102. 창녕 교동 고분군 제116호분 두부 상면의 토기군(2-2)  
\_ 소관310045



도103. 창녕 교동 고분군 제116호분 두부 토기군\_ 소관310046



도104. 창녕 교동 고분군 제116호분 석실 내 점토와 토기  
매물 상태\_소관3100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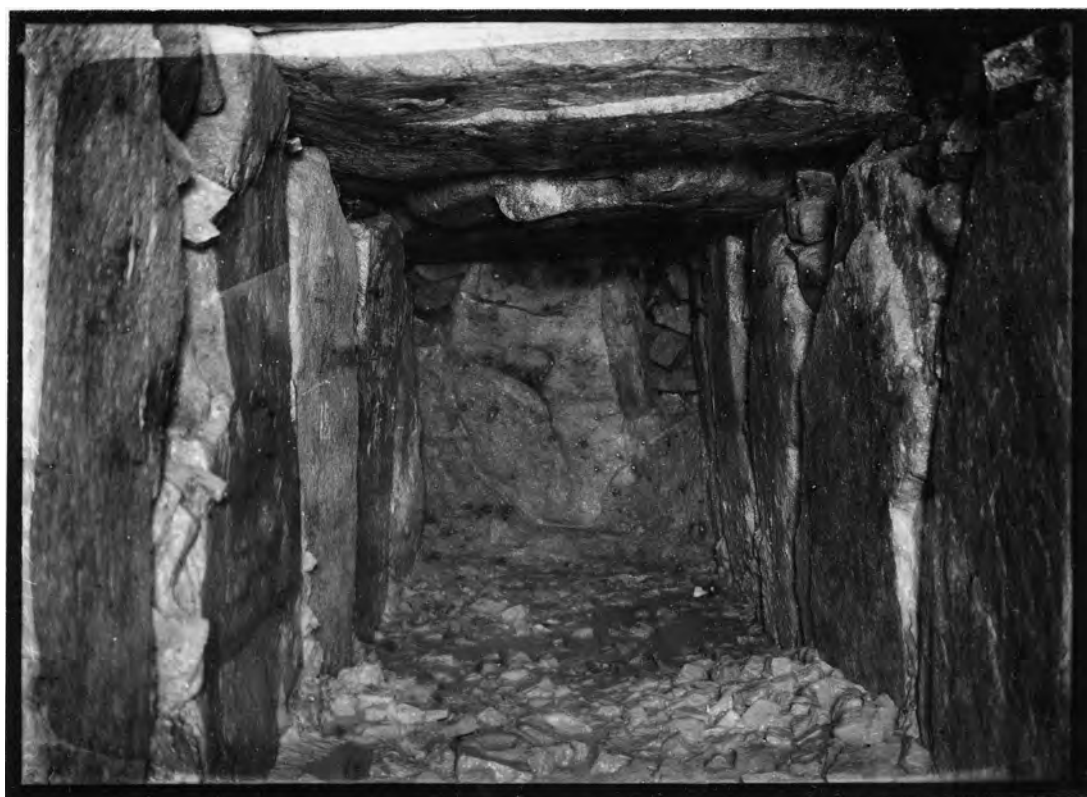
도105. 창녕 교동 고분군 제116호분 발굴 후의 석실 내부  
(3-1)\_소관3100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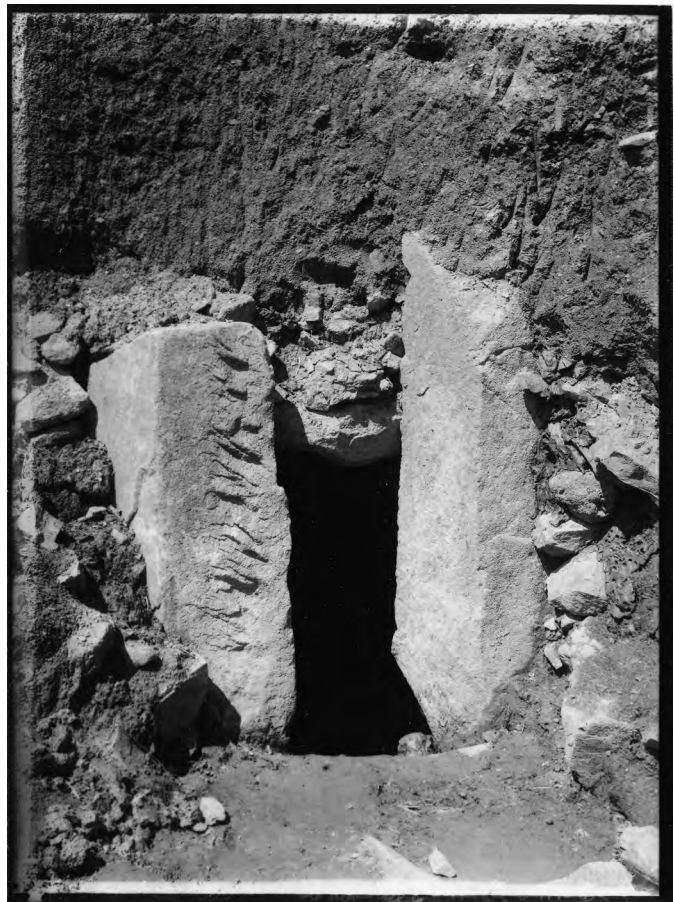
도106. 창녕 교동 고분군 제116호분 발굴 후의 석실 내부(3-2)\_소판310049



도107. 창녕 교동 고분군 제116호분 발굴 후의 석실 내부(3-3)\_소판310050



도108. 창녕 교동 고분군 제116호분 발굴 후의 석실 저부\_ 소관310051



도109. 창녕 교동 고분군 제116호분 석실 입구  
\_ 소관310052





도110. 창녕 교동 고분군 제117호분 동쪽에서 바라본 발굴 전 상태\_소판310053





도111. 창녕 교동 고분군 제117호분 발굴 중의 남면 상황\_소관310054



도112. 창녕 교동 고분군 제117호분 동쪽에서 바라본 발굴 상황\_소관3100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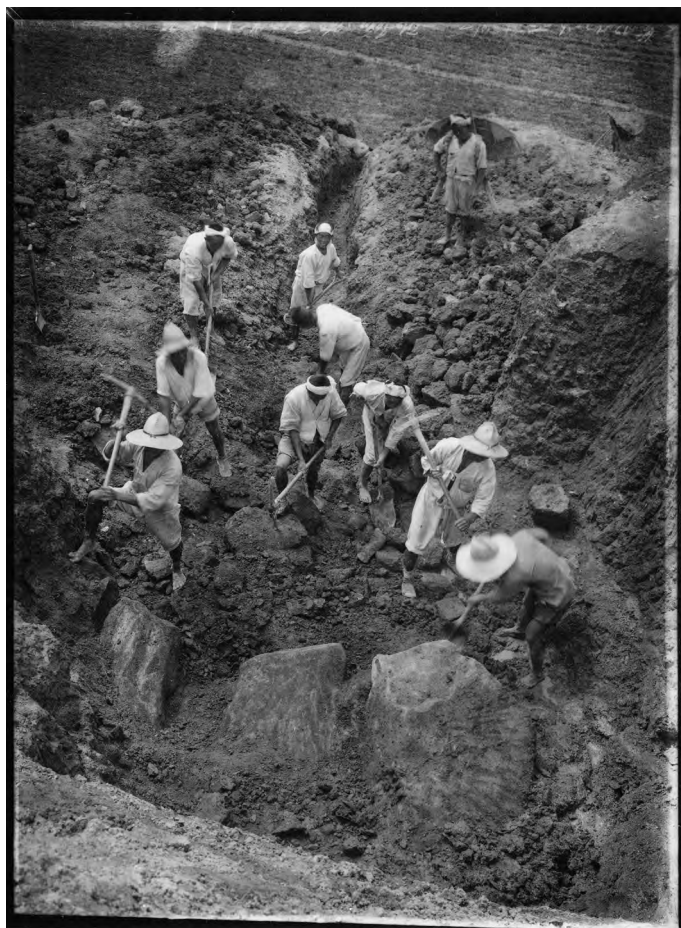


도113. 창녕 교동 고분군 제117호분 남쪽에서 바라본 발굴 상황\_ 소관3100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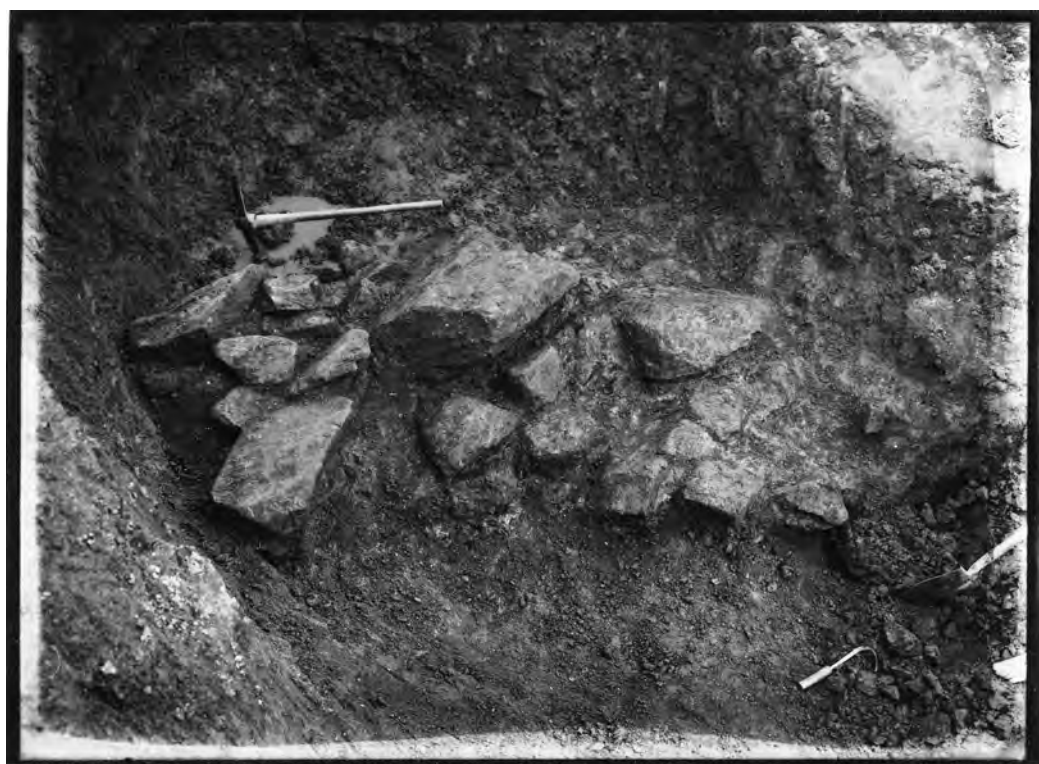


도114. 창녕 교동 고분군 제117호분 동쪽에서 바라본 발굴 상황\_ 소관3100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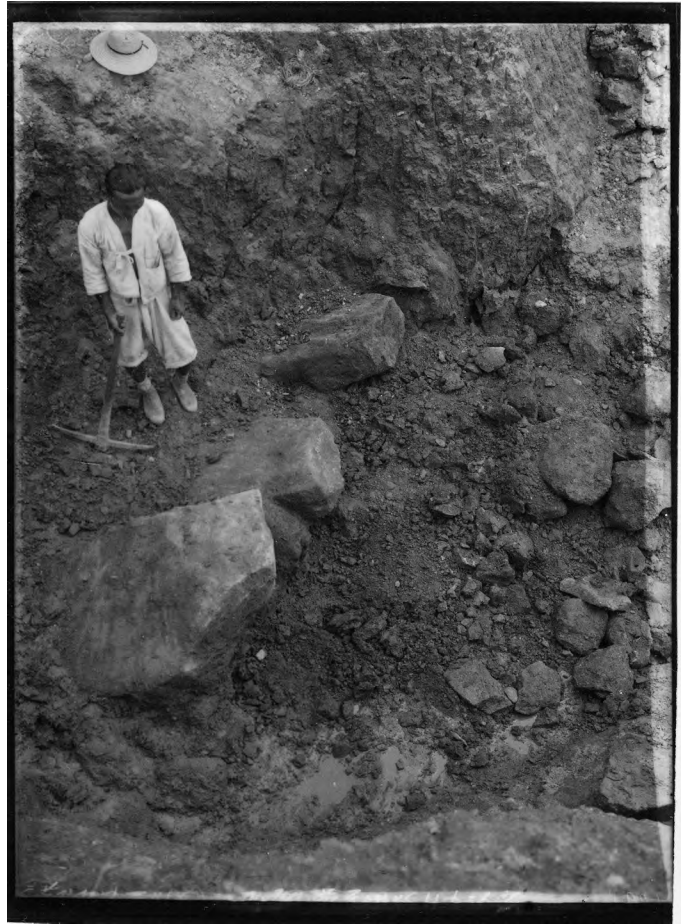


도115. 창녕 교동 고분군 제117호분 봉토 상부에서  
내려다본 석실 천장 노출 상태\_소관310058



도116. 창녕 교동 고분군 제117호분 석실 천장과 측벽 외부 노출 상태\_소관310059





도117. 창녕 교동 고분군 제117호분 남서쪽 위에서 바라본  
석실 천장의 함몰 상태(2-1)\_ 소관310060



도118. 창녕 교동 고분군 제117호분 남쪽에서 바라본 석실 천장의 함몰 상태(2-2)\_ 소관310061



도119. 창녕 교동 고분군 제117호와 제116호분 동방분 위에서 바라본 발굴 상황\_ 소판310062



도120. 교동 제116, 제117호분 등 창녕 고분군 남쪽에서 바라본 원경\_ 소판310063





도121. 창녕 교동 고분군 제119호분 동북쪽에서 바라본 발굴 전 상태\_소판310064



도122. 창녕 교동 고분군 제117호분 위에서 바라본 서부의 고분군\_소판310065

\* Ⅱ군 22(日117)호분 위에서 바라본 Ⅰ군 7호분 일대





도123. 교동 제116호 부근의 창녕 고분군\_소판310066  
 \* Ⅱ군에서 바라본 Ⅰ군 및 Ⅱ군 서쪽 고분군 일대



도124. 화왕산 망면에서 바라본 창녕 교동 고분군 전경\_소판310067  
 \* Ⅱ군 정상부(1호분 위쪽)에서 바라본 Ⅰ군 및 Ⅱ군 일대



도125. 화왕산 부근의 창녕 교동 고분군 일군\_소판310068  
 \* Ⅱ군 정상부(1호분 위쪽)에서 바라본 Ⅰ군 및 Ⅱ군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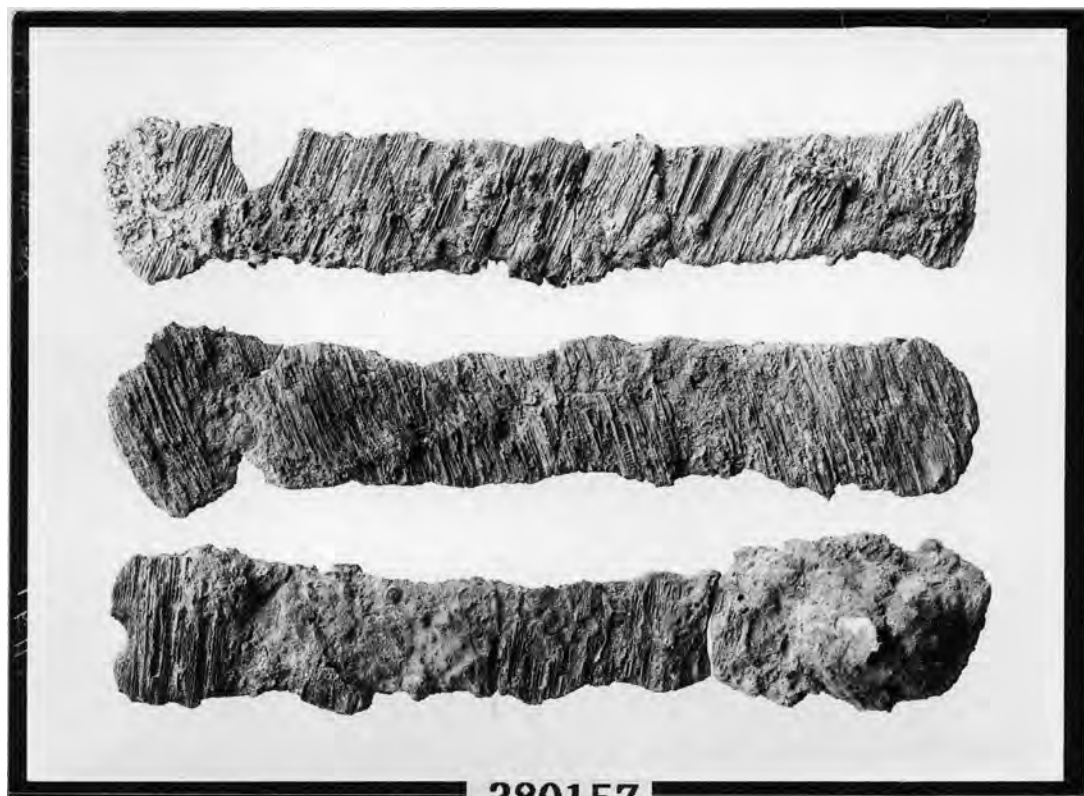
도126. 화왕산록의 창녕 교동 고분군 일군\_소판3100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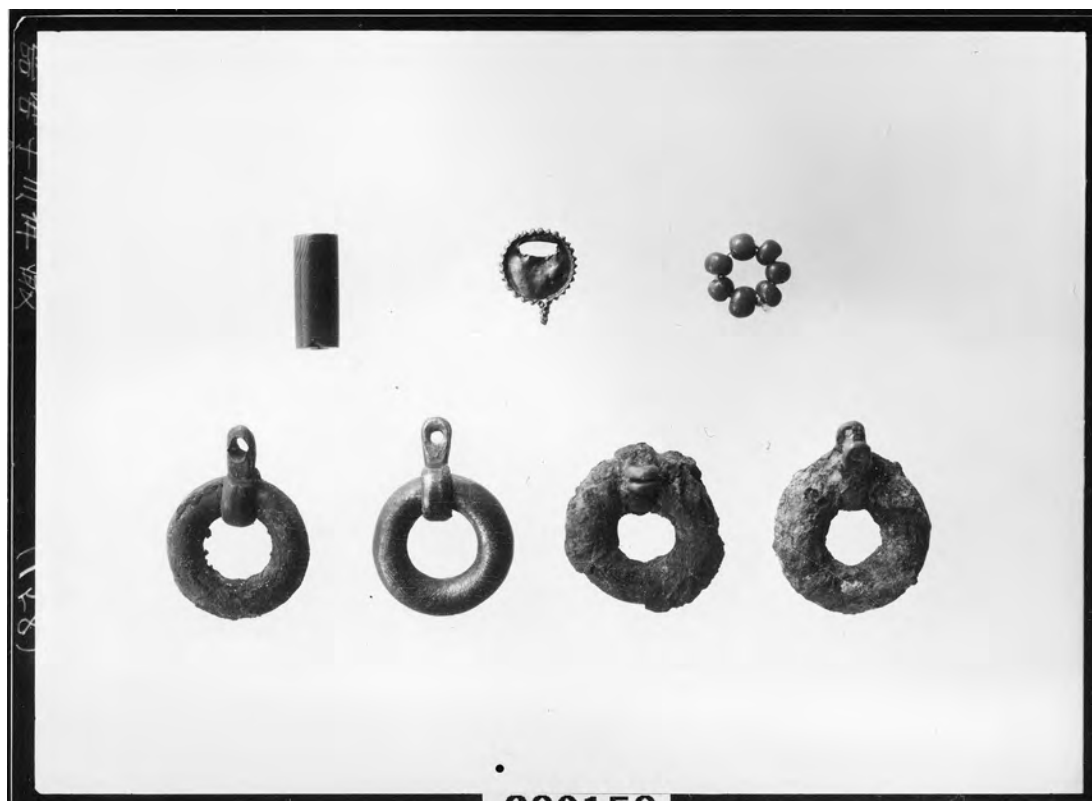
도127. 창녕 교동 고분군 제31호분 출토 금제이식\_ 조사1918년, 소관380156

\*『大正七年度報告書』도판 제68의 2·3과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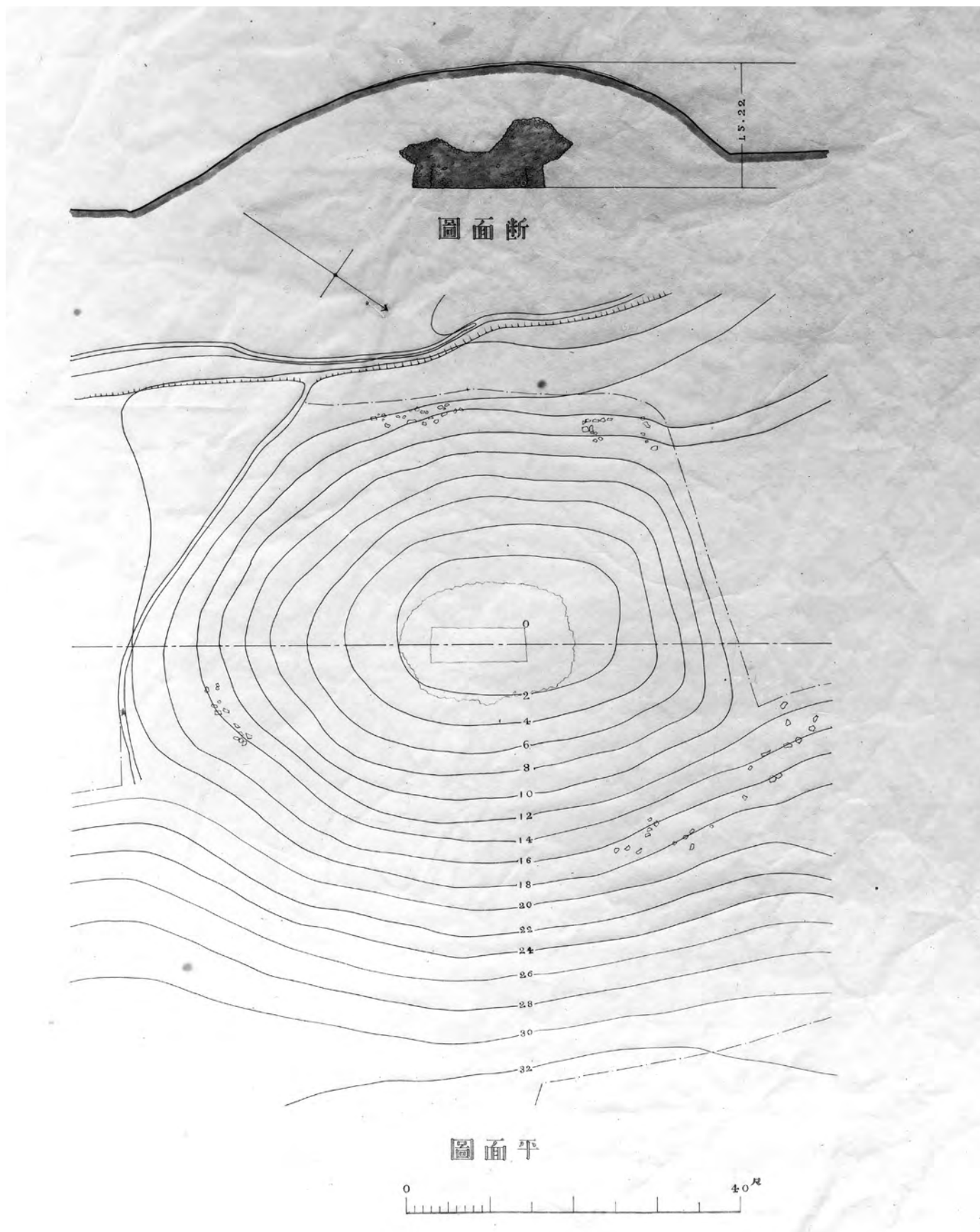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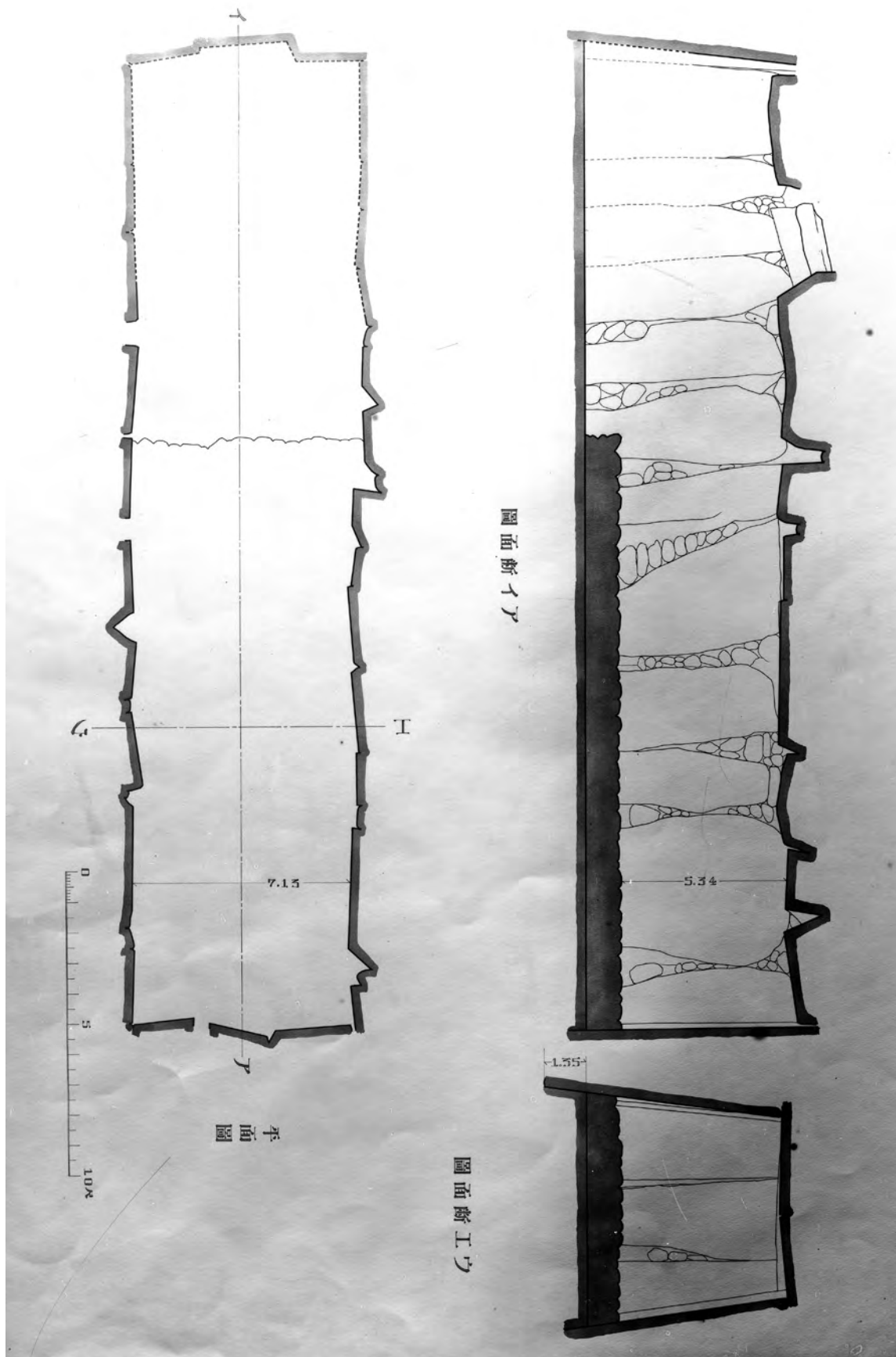
도128. 창녕 교동 고분군 제31호분 출토 철판\_ 조사1918년, 소판380157  
\* 철정



도129. 창녕 교동 고분군 제31호분 출토 금제이식편, 관옥, 환상금구, 유리제소옥\_ 조사1918년, 소판380158  
\*『大正七年度報告書』도판 제68의 1・4~8과 동일



도130. 창녕 교동 고분 평면도, 단면도\_대판170012  
 \* 1918년 야츠에[谷井]가 조사한 I 군의 12호분



도131. 창녕 교동 고분 석곽부 실측도\_대판170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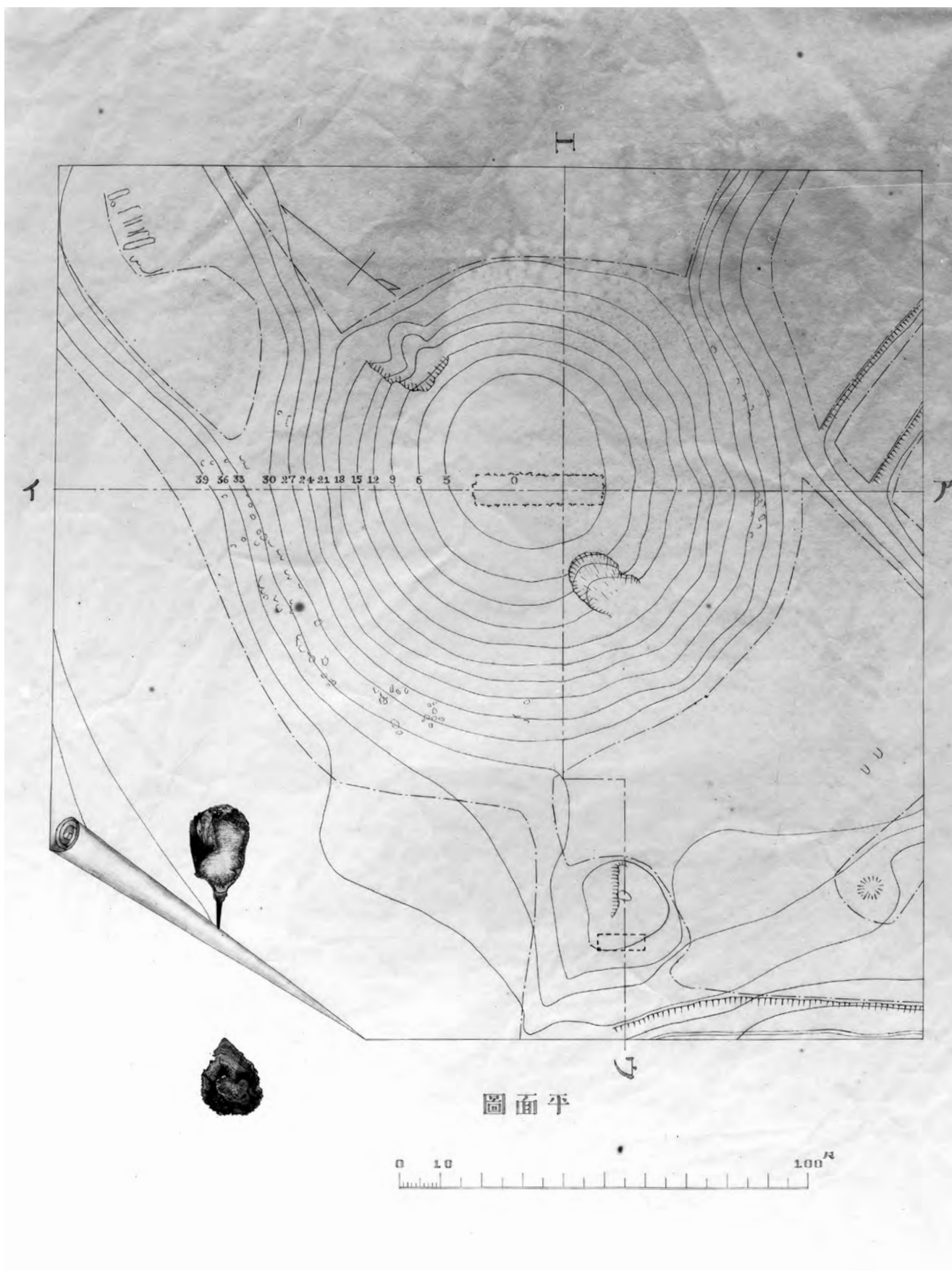
\*『미공개도면자료집』에는 '교동리 19호분 실측도' 라고 되어 있지만 19호가 아니라 Ⅱ군 10(日89)호분의 매장주체부 도면을 촬영 (미등록 소판18040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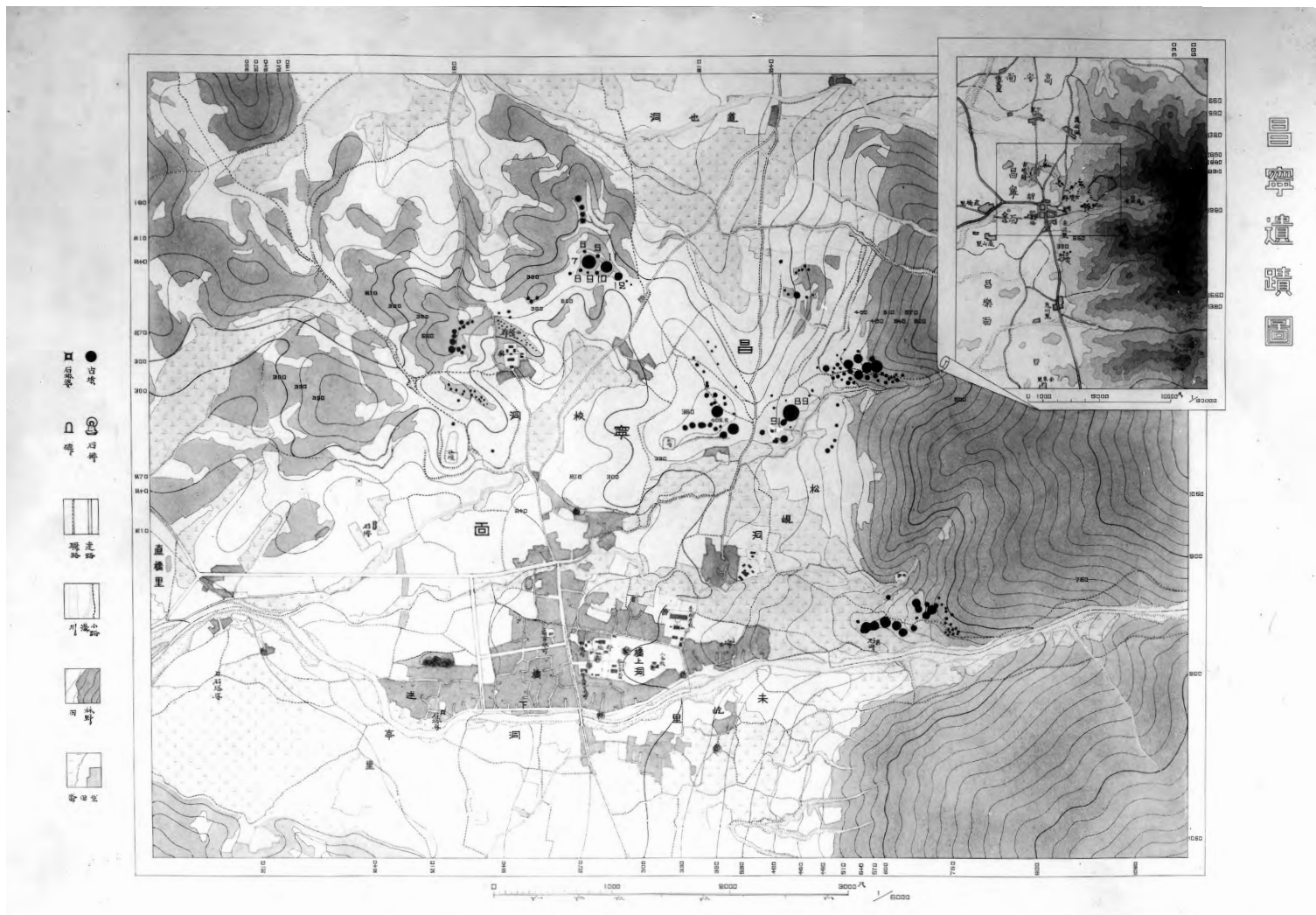
도132. 창녕 교동 고분 유물 출토 상태 실측도\_대판170014

\* 미등록 소판180405를 참조하면 Ⅱ군 10(Ⅱ89)호분의 유물 출토 상태를 실측한 도면을 촬영한 것으로 추정됨



도133. 창녕 교동 고분 평면도\_대판170015  
 \* Ⅱ 군10(日89)호분의 평면 실측도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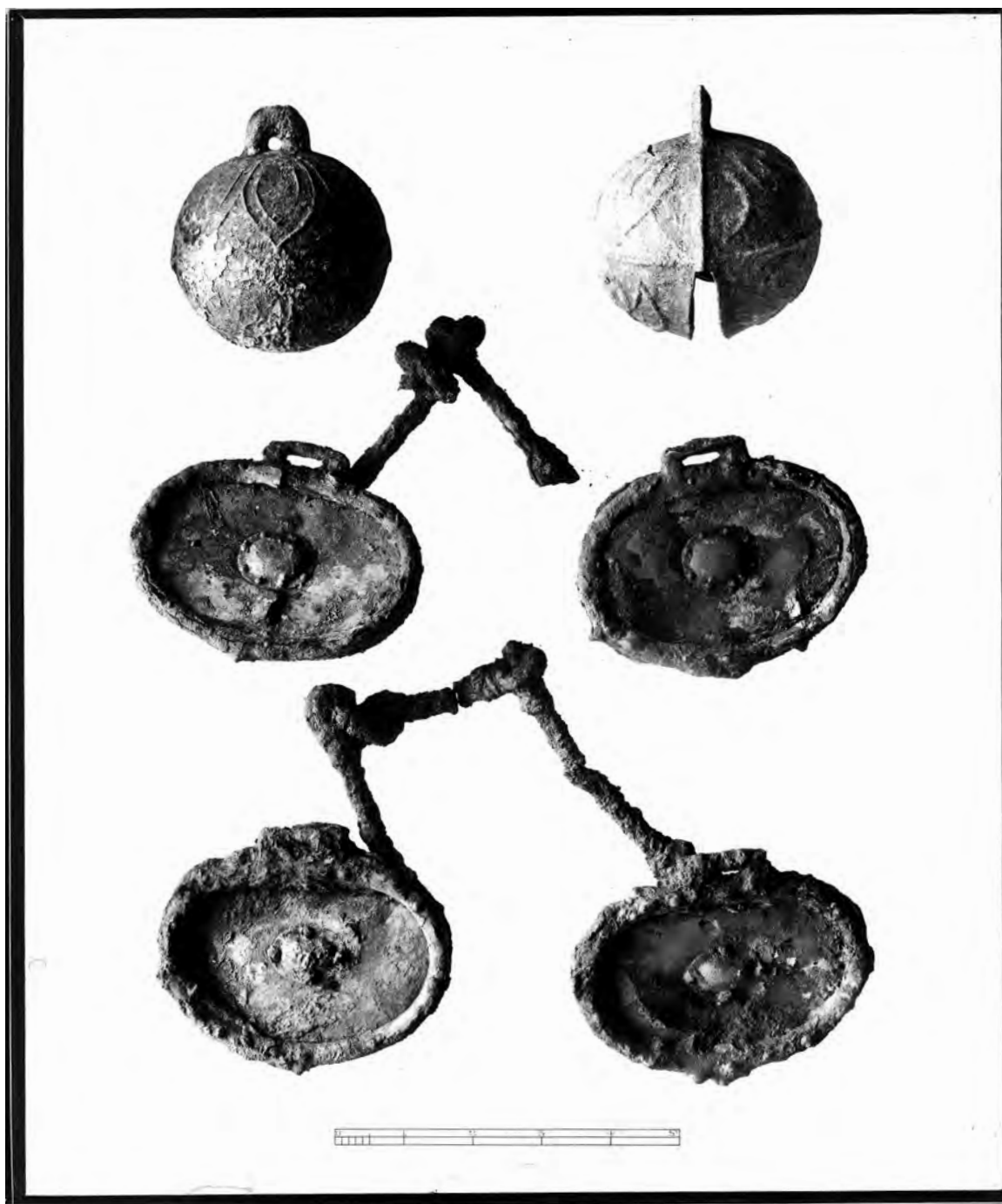




도134. 창녕 유적도[1/6000]\_대판170016

\* 오가와[小川]가 大正8년 2월 실측 후 大正10년 4월 제도했다는 기록(『미공개도면자료집』1, 107~109 참조)이 있으며 『大正七年度報告書』도판 제56의 제85도에 흑백으로 게재됨, 원판은 채색됨





도135. 창녕 고분 출토 금동제비와 청동령\_ 대관270029

### (3) 유리원판 목록집 Ⅲ



도136. 창녕 교동, 송현동 고분군\_미등록 소관123-2

\* Ⅱ군 전경, 사진 좌측의 15(日116)호분·22(日117)호분의 봉토가 파괴되어있는 상황으로 1932년 발굴 당시 혹은 그 이후 촬영 가능성 높음, 우측 대형분은 Ⅱ군 10(日89)호분



도137. 창녕 교동, 송현동 고분군 원경\_미등록 소판123-7  
\* 남쪽에서 촬영한 Ⅲ군 전경, 좌측은 1호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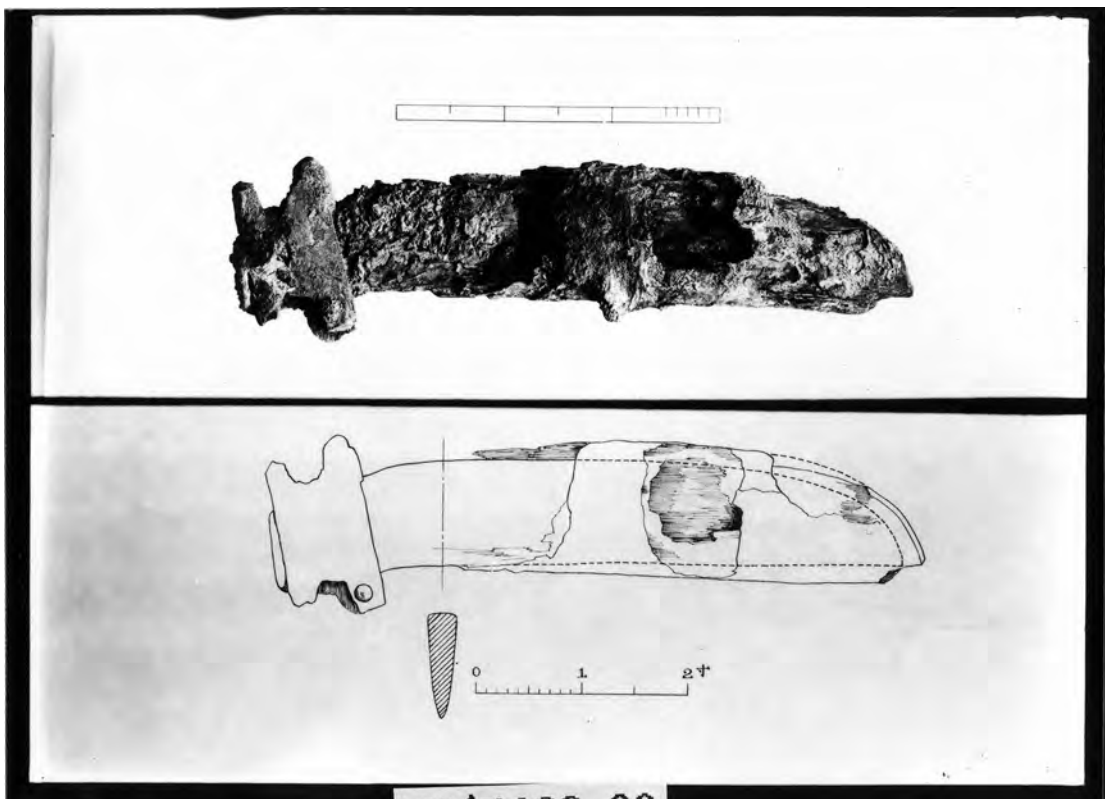


도138. 창녕 교동, 송현동 고분군\_미등록 소판123-14  
\* 남쪽에서 촬영한 Ⅱ군 22(日117)호분(左中) 주변의 고분군





도139. 창녕 교동, 송현동 고분군\_미등록 소판123-15  
 \* 동쪽(現 창녕박물관)에서 촬영한 Ⅱ 군 15(日116)호분·22(日117)호분



도140. 창녕 송현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검\_미등록 소판293-8  
 \* Ⅱ 군 10(日89)호분 출토 검 실측도



도141. 창녕 교동 고분군 제31호분 출토 장경호\_ 조사1918년 梅原末治, 미등록 소관353-5  
 \*『大正七年度報告書』도판 제64의 제97도와 동일



도142. 창녕 교동 고분군 제31호분 출토 유개파수부호 각종\_ 조사1918년 梅原末治, 미등록 소관 353-6  
 \*『大正七年度報告書』도판 제64의 제98도와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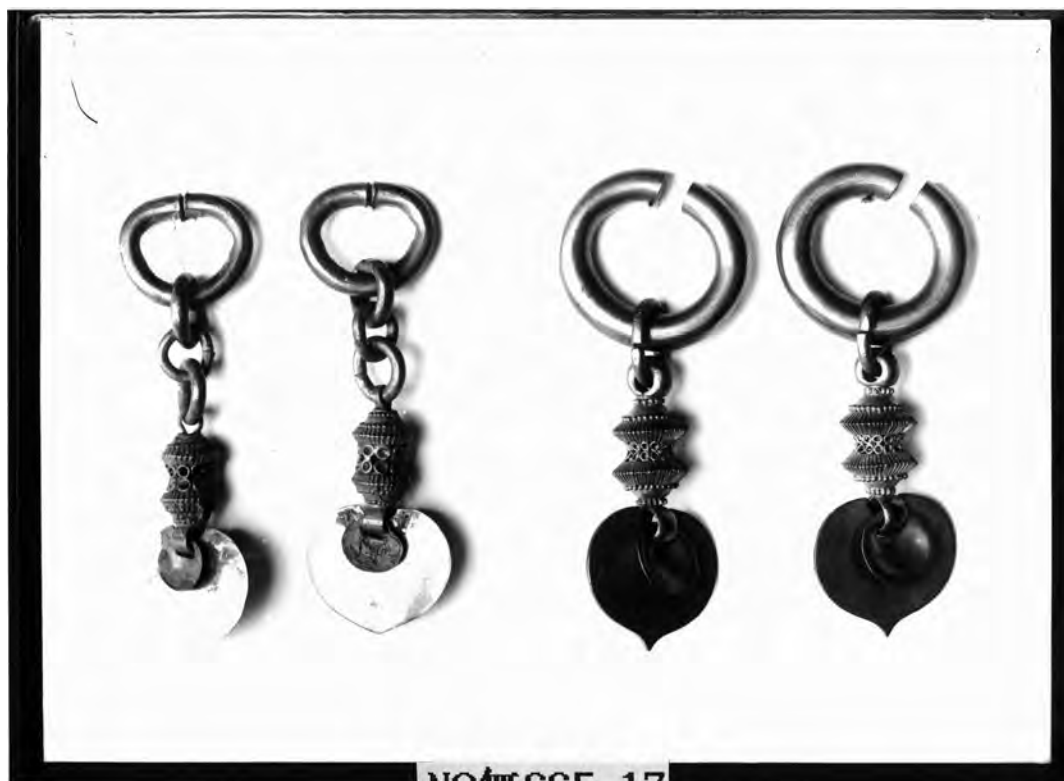
도143. 창녕 교동 고분군 제31호분 출토 도자, 철모\_ 조사1918년 梅原末治, 미등록 소관353-9  
 \*『大正七年度報告書』도판 제69의 제105도와 동일



도144. 창녕 교동 고분군 제31호분 출토 철정\_ 조사1918년 梅原末治, 미등록 소관353-17  
 \*『大正七年度報告書』도판 제67의 제104도와 동일



(4) 유리원판 목록집 IV



도145. 금제세환이식 [左:창녕 교동 제7호분, 右:경주 보문리 고분 출토]\_ 조사1933년 原田淑人, 미등록 소관665-17  
\* (左) I 군 7호분 출토 금제세환이식



도146. 금관충 출토 금제태환이식 창녕 교동 고분 출토 금제세환이식\_ 미등록 소관665-19  
\* (右) 31호분 출토품



도147. 교동 제89호분 출토 패갑[소판180254와 동일]\_미등록 소판677-06



도148. 교동 제89호분 출토 패갑[소판180252와 동일]\_미등록 소판677-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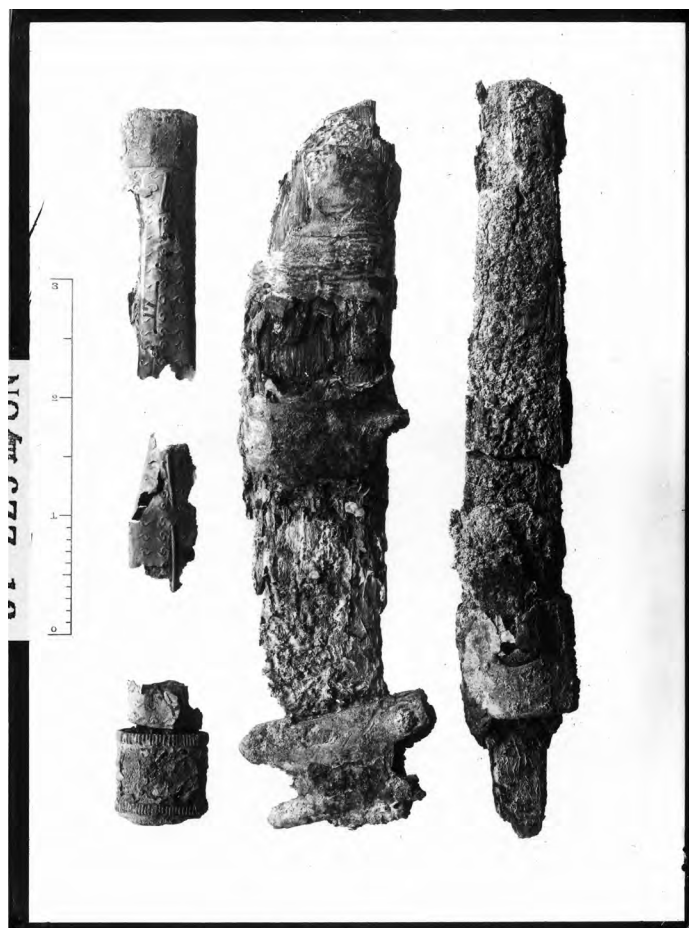


도149. 교동 제89호분 출토 파수부유개호[소관180294와 동일]\_미등록 소관677-08



도150. 교동 제89호분 출토 완[소관180290과 동일]\_미등록 소관677-10





도151. 교동 제89호분 출토 검, 대도편[소관180239  
와 동일]\_미등록 소관677-12



도152. 교동 제89호분 출토 배[소관180277과 동일]\_미등록 소관677-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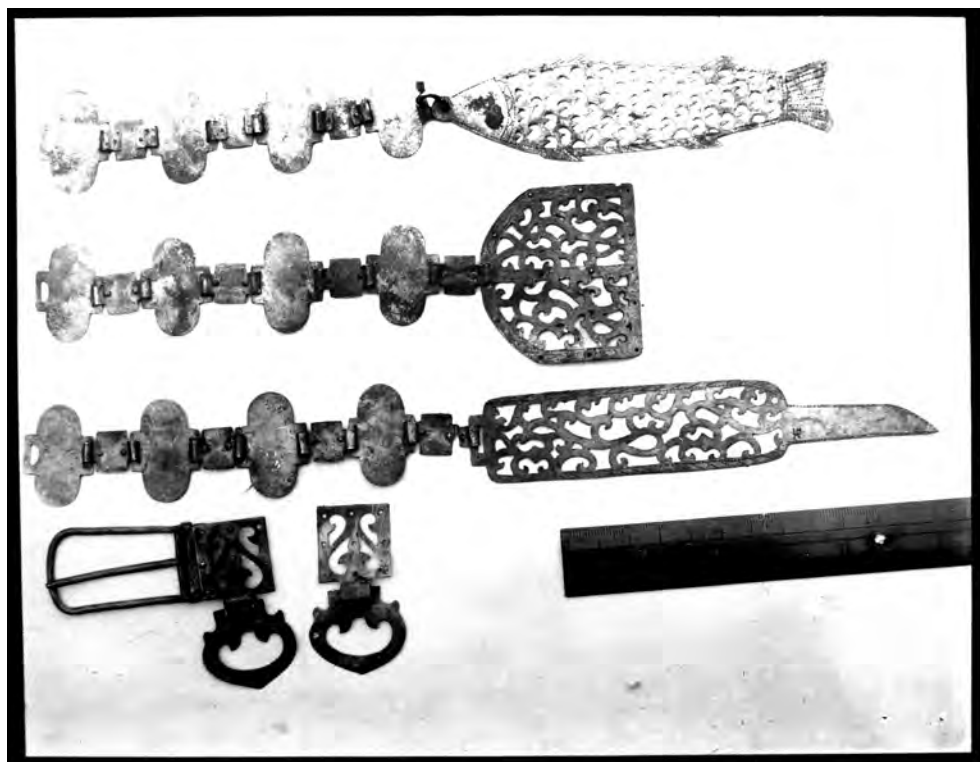
도153. 교동 제89호분 출토 배[소관180287과 동일]\_ 미등록 소관677-14



도154. 교동 제89호분 출토 파수대부완[소관180275와 동일]\_ 미등록 소관677-16



도155. 경남 교동 출토 환두\_ 미등록 소관699-06



도156. 교동 제12호분 출토 과대, 요패\_ 조사1918년 梅原末治, 미등록 소관710-01  
\* I 군 12호분 출토 과대, 요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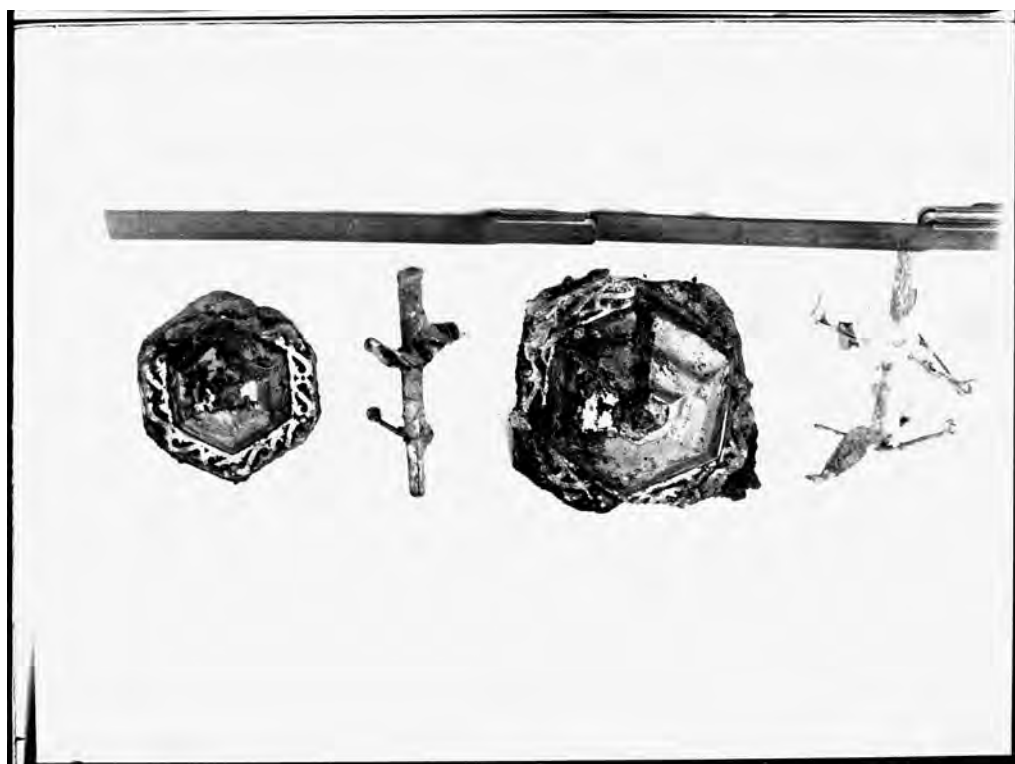


도157. 교동 제7호분 출토 청동합\_ 조사1918년 梅原末治, 미등록 소관710-03  
 \* 1군 7호분 출토 청동합



도158. 교동 출토 초두, 청동합\_ 미등록 소관710-06  
 \* 1군 7호분 출토 초두, 청동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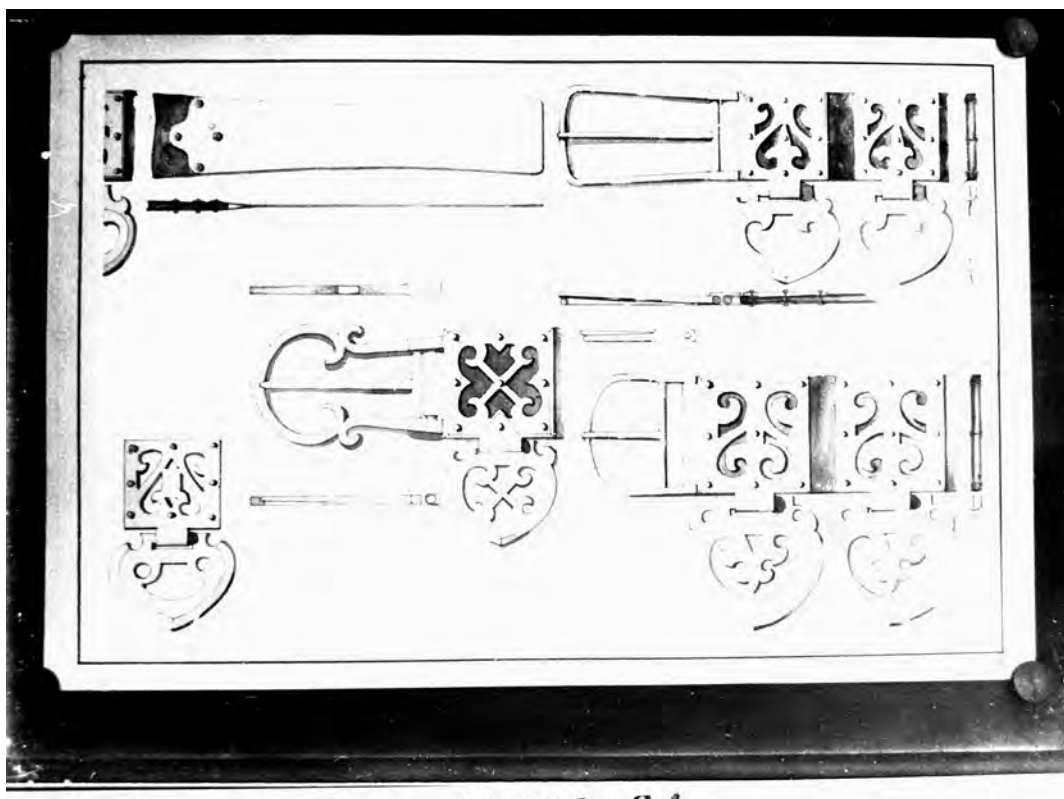
도159. 교동 제12호분 출토 유개장경호  
 \_ 미등록 소판710-18  
 \* I 군 12호분 출토 유개장경호



도160. 교동 제10호분 출토 금동운주\_ 미등록 소판710-20  
 \* I 군 10호분 출토 금동계운주



도161. 교동 제31호분 출토 토기\_ 조사1918년 梅原末治, 미등록 소관710-23  
 \*『大正七年度報告書』도판 제64의 제98도 3~6, 8~11과 동일



도162. 교동 출토 허리띠장식 복원도\_ 미등록 소관710-24  
 \* I 군 12호분, II 군 10(일89)호분 출토품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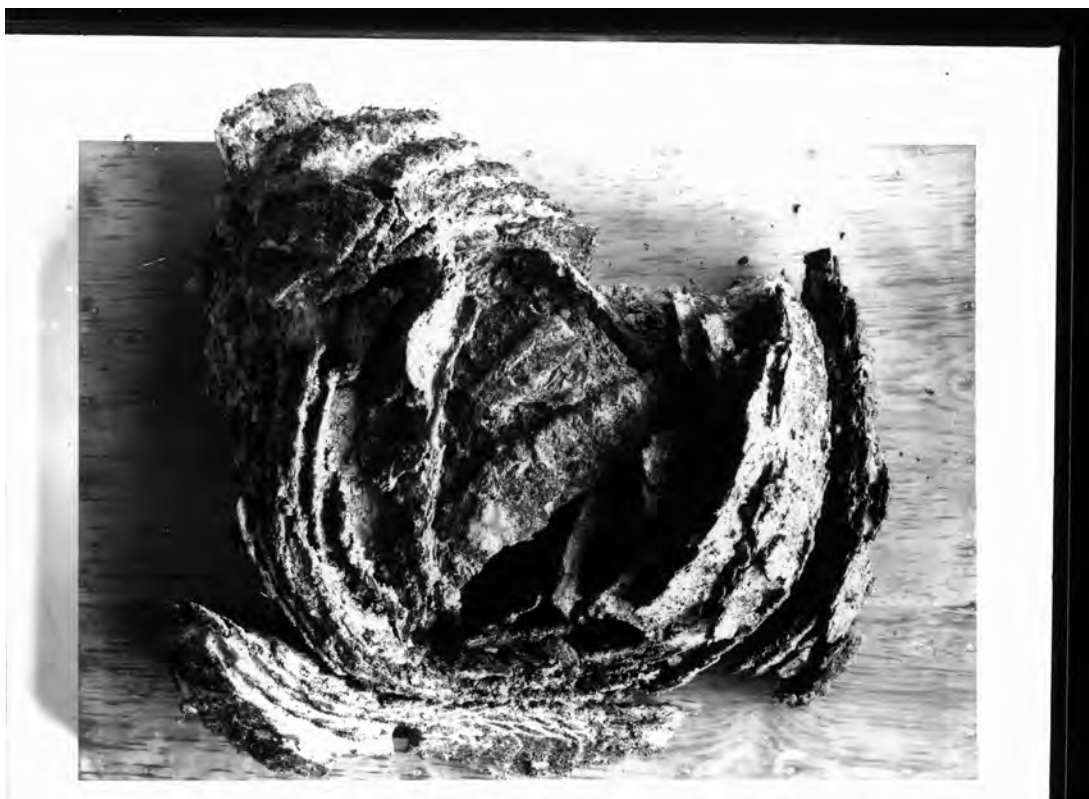
도163. 교동 제8호분 출토 동령\_ 미등록 소판710-26  
\* I 군 8호분 동령



도164. 교동 제89호분 출토 패갑 (3-1)\_ 미등록 소판717-01



도165. 교동 제89호분 출토 패갑 (3-2)\_ 미등록 소판717-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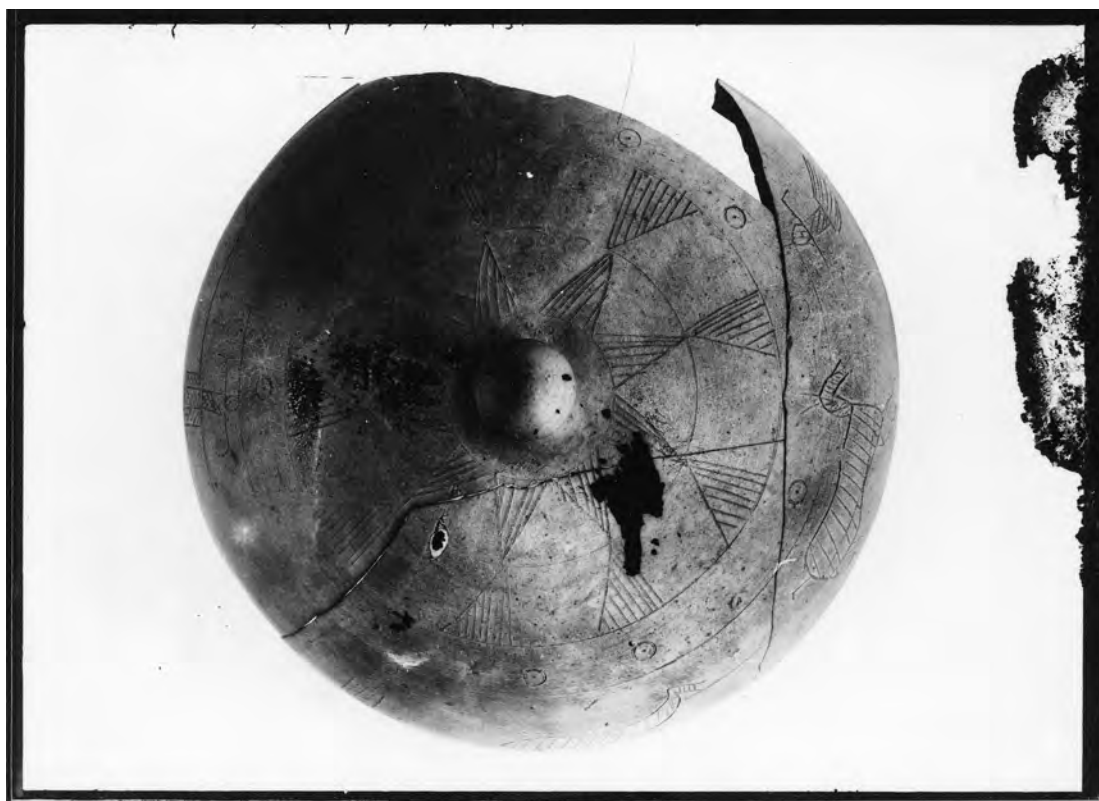


도166. 교동 제89호분 출토 패갑 (3-3)\_ 미등록 소판717-03



도167. 교동 제12호분 출토 고배 개\_미등록 소관723-03

\* I 군 12호분 출토 고배 개, 미등록 소관723-04와 동일한 유물로 정면에서 촬영한 것임



도168. 교동 제12호분 출토 고배 개\_미등록 소관723-04

\* 미등록 소관723-03과 동일한 유물로 위에서 촬영한 것임





도169. 교동 제11호분 출토 은제삼엽문환두, 규두\_ 미등록 소판740-10  
 \* I 군 12호분 출토 은제삼엽문환두대도 및 규두대도



도170. 교동 제8호분 출토 청동마령\_ 미등록 소판755-09  
 \* I 군 8호분 청동마령



도171. 교동 제89호분 출토 행엽\_미등록 소관755-10  
\* Ⅱ군 10(日89)호분 출토 행엽



도172. 창녕 고분군\_미등록 소관877-02  
\* 동쪽에서 촬영한 Ⅰ군 7호분(右)과 Ⅱ군 23호분(左下)과 24호분(左上)



도173. 교동 고분군 출토 유개고배  
 \_ 조사1922년 梅原末治, 미등록 소관946-04



도174. 교동 제31호분 출토 유개고배\_ 조사1922년 梅原末治, 미등록 소관946-05  
 \*『大正七年度報告書』도판 제67의 제101도 37~44와 동일





도175. 교동 제31호분 출토 유개고배\_ 조사1922년 梅原末治, 미등록 소관946-06  
 \*『大正七年度報告書』도판 제67의 제101도 45~52와 동일



도176. 교동 제31호분 출토 유개고배\_ 조사1922년 梅原末治, 미등록 소관946-07  
 \*『大正七年度報告書』도판 제65의 제99도 1~8과 동일



도177. 교동 제31호분 출토 유개고배\_ 조사1922년 梅原末治, 미등록 소판946-08  
\*『大正七年度報告書』도판 제65의 제99도 9~16과 동일



도178. 교동 제31호분 출토 유개고배\_ 조사1922년 梅原末治, 미등록 소판946-09  
\*『大正七年度報告書』도판 제65의 제99도 17~22와 동일



도179. 교동 제31호분 출토 유개고배\_ 조사1922년 梅原末治, 미등록 소관946-10  
 \*『大正七年度報告書』도판 제66의 제100도 32~36과 동일



도180. 교동 제31호분 출토 유개고배\_ 조사1922년 梅原末治, 미등록 소관946-11  
 \*『大正七年度報告書』도판 제66의 제100도 23~26과 동일





도181. 교동 제31호분 출토 유개고배\_ 조사1922년 梅原末治, 미등록 소관946-12

\*『大正七年度報告書』도판 제66의 제100도 27~31과 동일



도182. 교동 제31호분 출토 유개고배

\_ 조사1922년 梅原末治, 미등록 소관946-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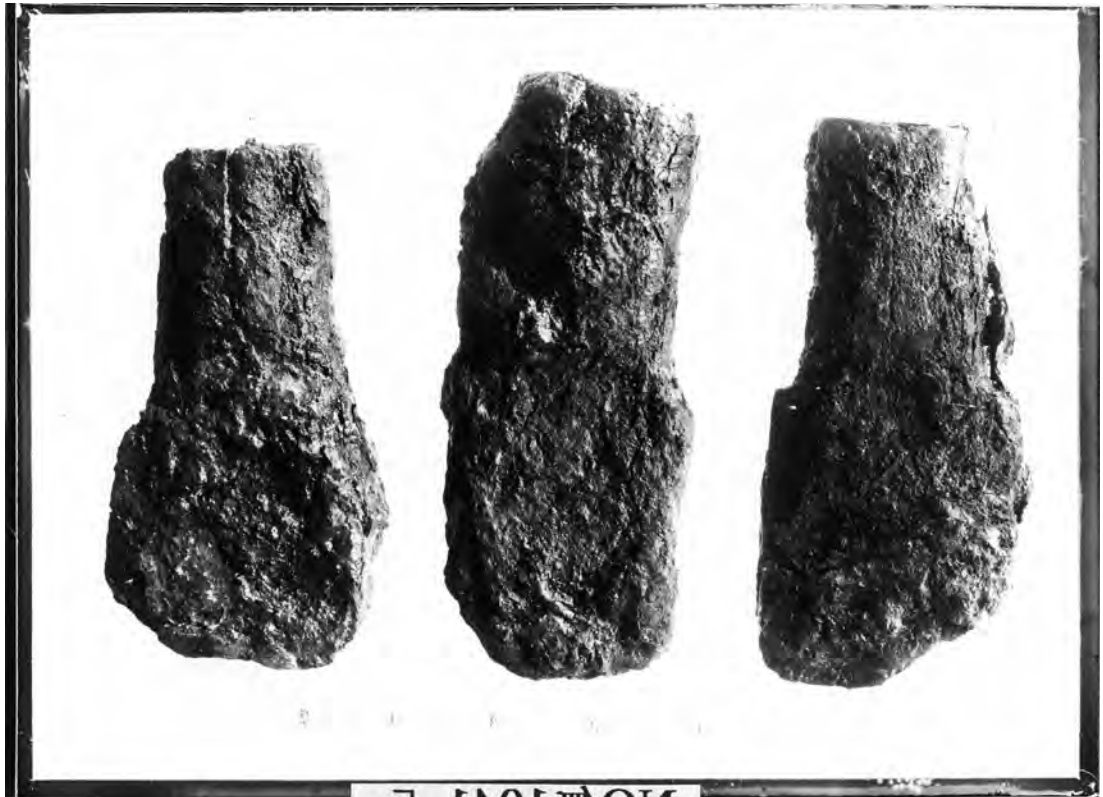
\*『大正七年度報告書』도판 제67의 제101도 26·40과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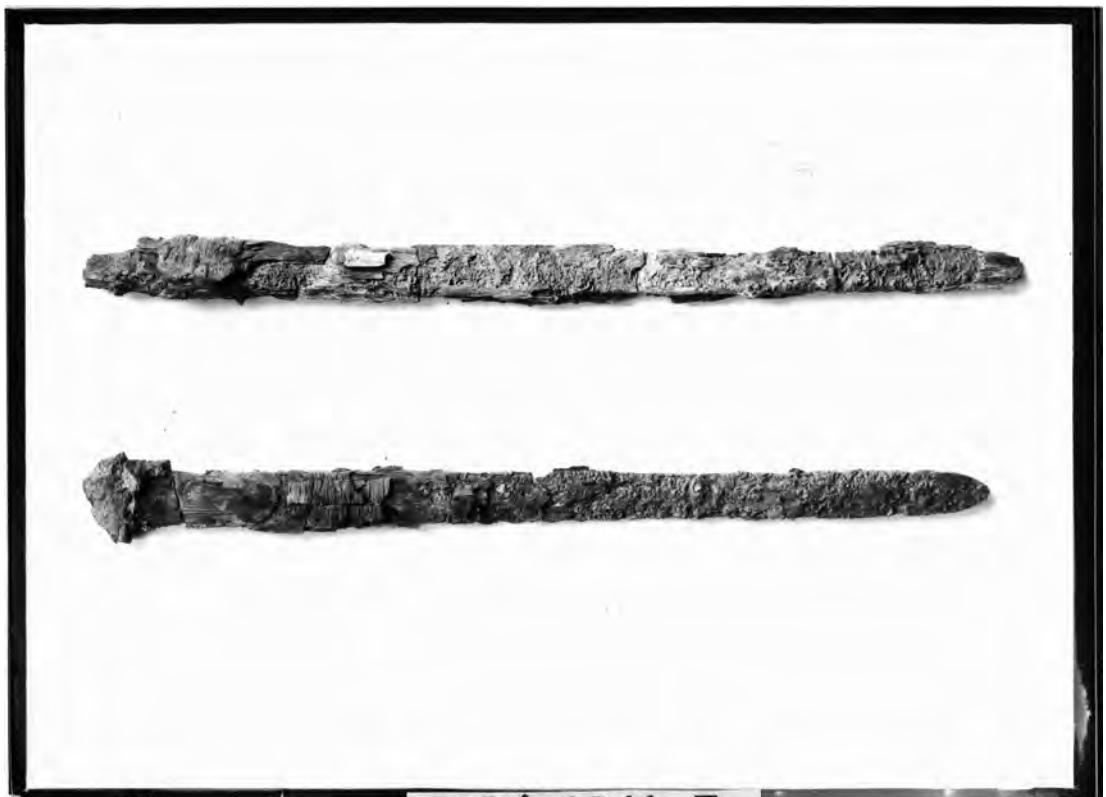
도183. 교동 제89호분 출토 대도\_ 조사1918년, 미등록 소판1041-02  
 \* Ⅱ군 10(日89)호분 출토 대도, 소판180237 중 2·3과 동일



도184. 교동 제89호분 출토 철초  
 \_ 조사1918년 野守健, 미등록 소판104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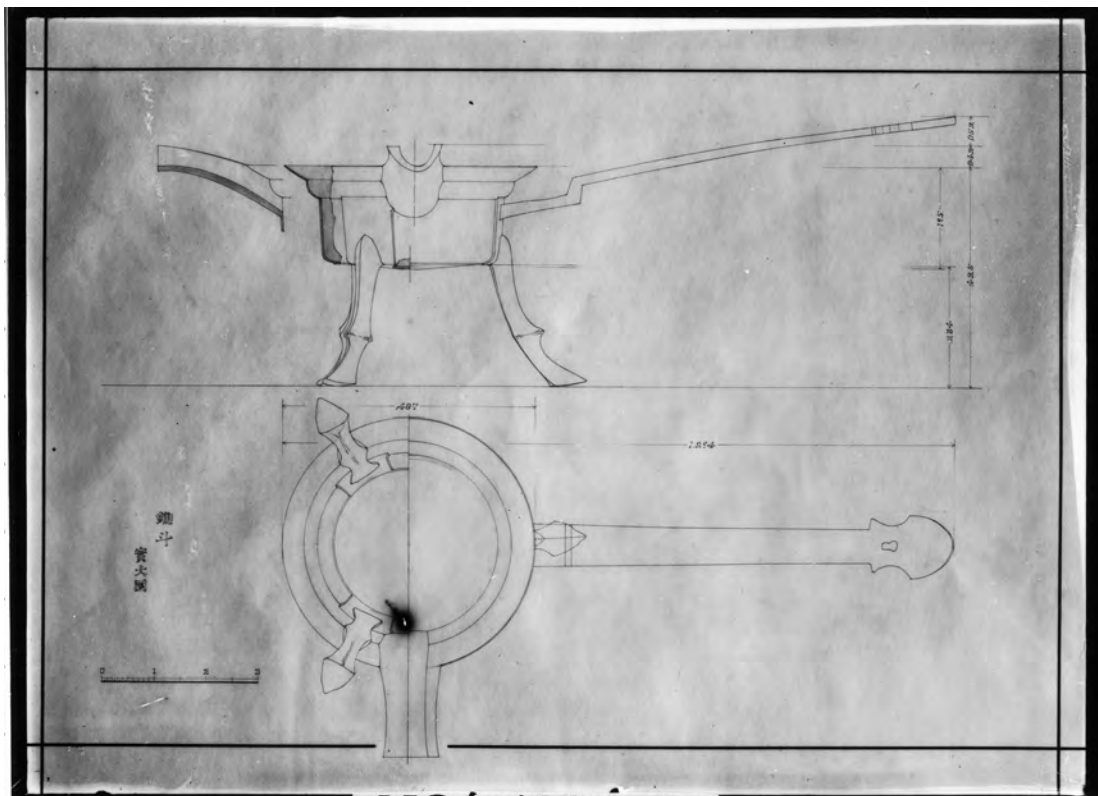


도185. 교동 제89호분 출토 철부\_ 조사1918년, 미등록 소관104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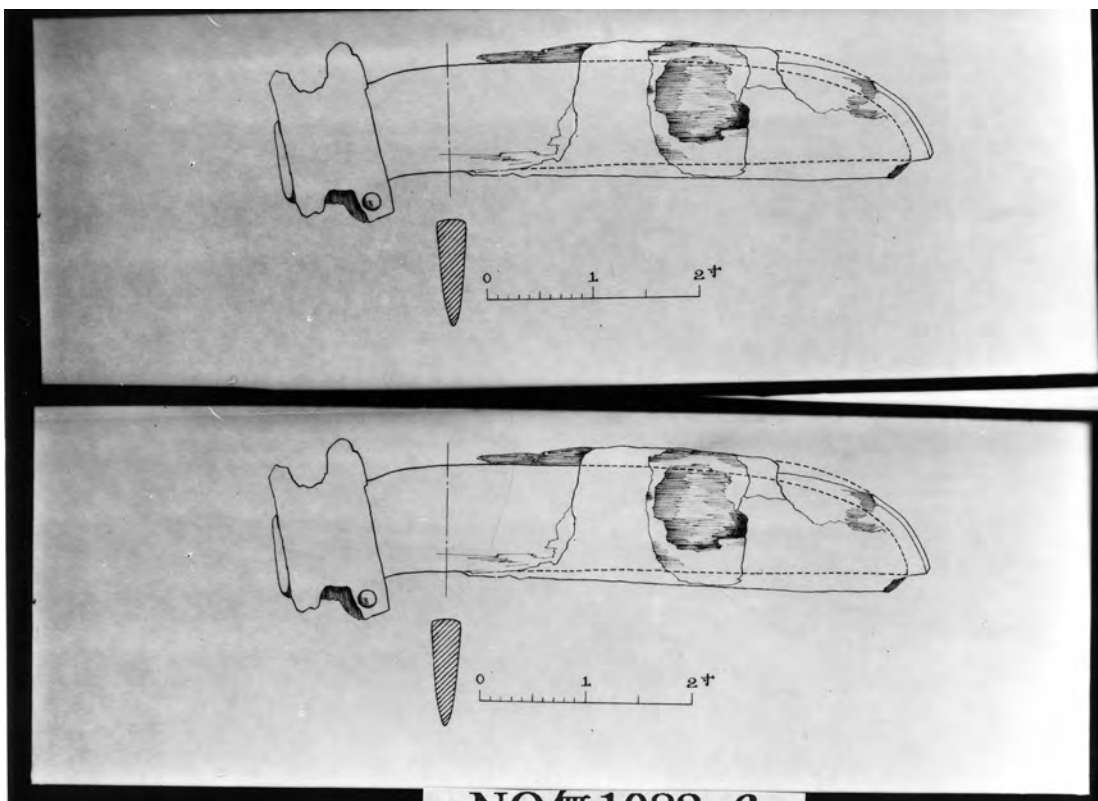


도186. 교동 제89호분 출토 대도\_ 조사1918년, 미등록 소관1041-07





도187. 교동 고분 출토 초두 실측도\_미등록 소판1081-04  
\* 소판170357·소판180303과 동일, I 군 11호분 출토 동제 초두 실측도



도188. 송현동 제89호분 출토 검 실측도\_조사1923년, 미등록 소판1082-06  
\* 미등록 소판293-8과 동일, II 군 10(日89)호분 출토 철초

(5) 유리원판 목록집 V



도189. 창녕 교동 고분군 일부 원경\_ 조사1917년 今西龍, 미등록 소관170246



도190. 창녕 교동 제1군 제2호분 석실 입구\_ 조사1917년 今西龍, 미등록 소관170263  
\*『大正六年度報告書』 사진111호 읍내면 제 I 군 제2호분(노출)과 동일, Ⅲ군 12(加17)호분



도191. 창녕 교동 고분군 일부 전경\_ 조사1917년 今西龍, 미등록 소관170270  
 \*『大正六年度報告書』 사진116호와 동일, 남쪽에서 촬영한 I~Ⅲ군 전경 우측 Ⅱ군 10(日89)호분



도192. 창녕 교동 제1군 제8호분 석실 내부\_ 조사1917년 今西龍, 미등록 소관170279  
 \*『大正六年度報告書』 사진113호와 동일, Ⅲ군 3호 내지는 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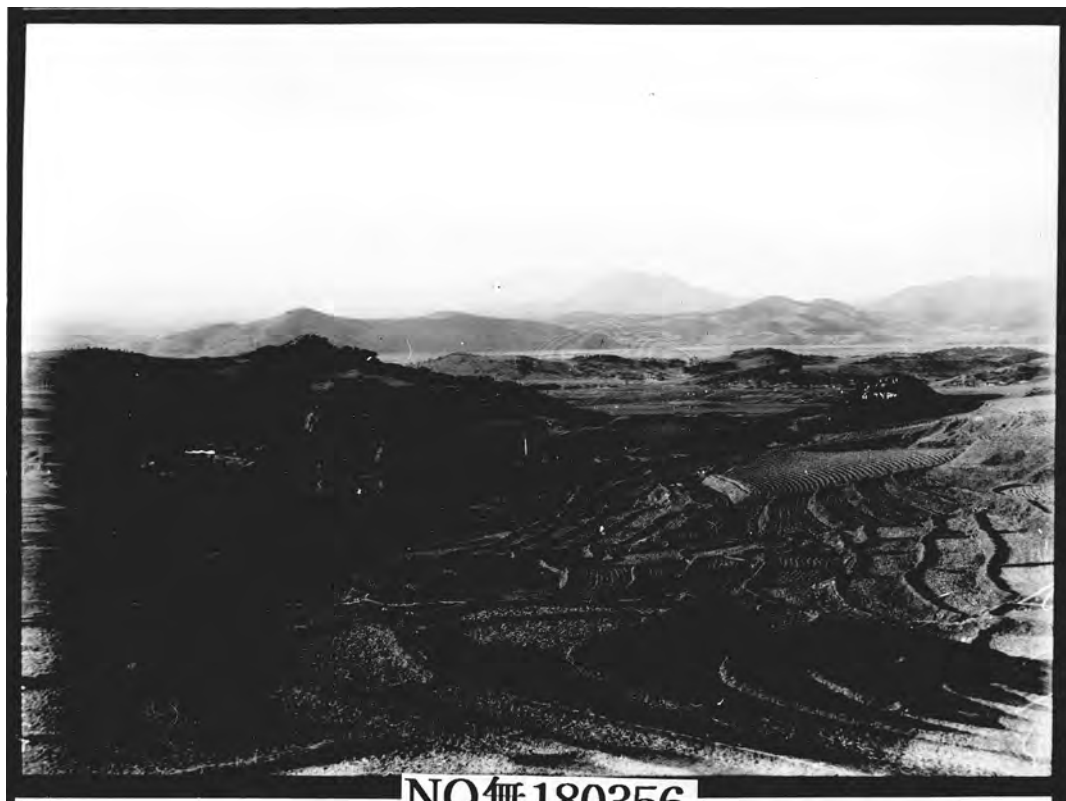
도193. 교동 제1군 제2호분 석실 내부\_ 조사1917년 今西龍, 미등록 소판170309  
\*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도194. 교동 고분군 일부\_ 조사1917년 今西龍, 미등록 소판170337  
\* 『大正六年度報告書』 사진114호 읍내면 제2군 고분 및 제3군 제10호분 원경과 동일, Ⅱ군 1(日89)호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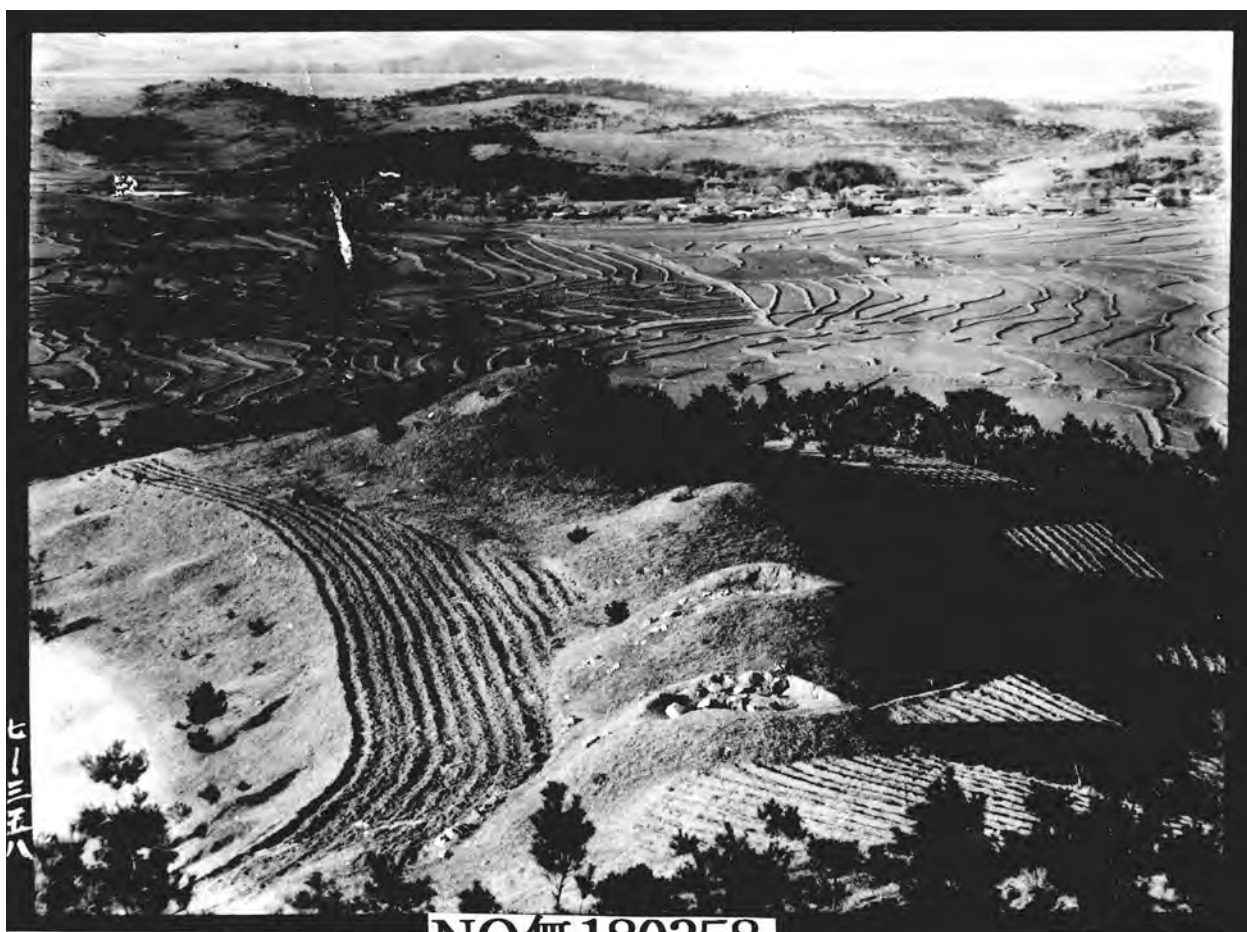
도195. 창녕 교동 고분군 원경\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판180355  
 \* 북쪽에서 촬영, 左: Ⅱ군 10(日89)호분, 中: Ⅱ군 22(日117)호분, 右: Ⅰ군 7·11·12호분



도196. 창녕 교동 고분군 원경\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판180356  
 \* 송현동 고분군에서 촬영, 右: Ⅱ군 10(日89)호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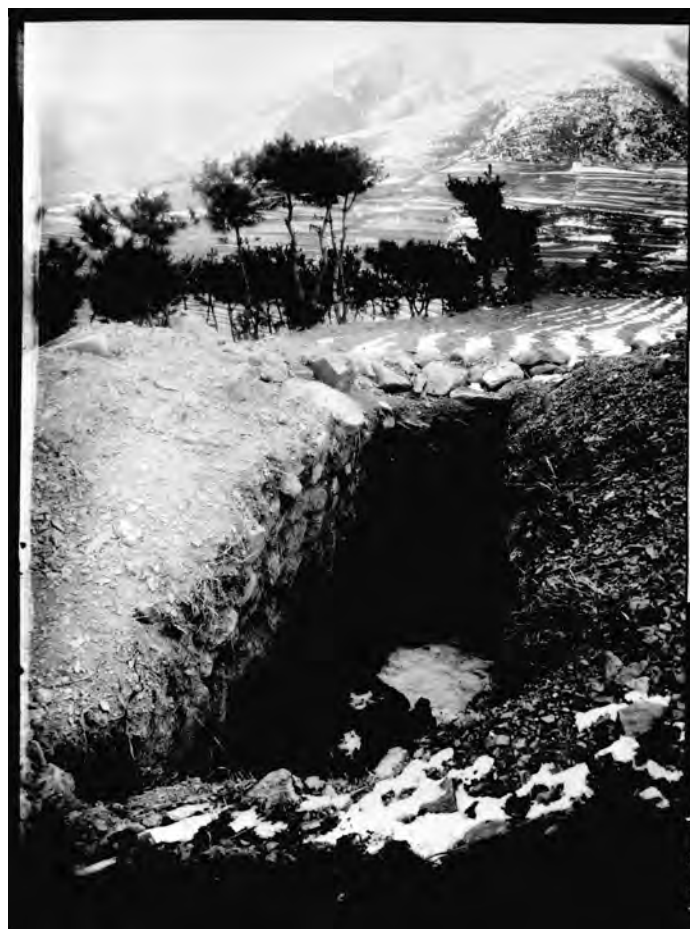
도197. 창녕 교동 고분군 원경\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관180357  
 \* 左: Ⅱ군 22(日117)호분



도198. 창녕 교동 제1, 2, 3, 4호분 전경[좌로부터]\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관180358  
 \* I 군 7호분 방향에서 촬영, 위에서부터 I 군 1·2·3·4호분



도199. 창녕 교동 고분 석실 내부 노출 광경  
 \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관180359  
 \* 추정 I 군 6호분



도200. 창녕 교동 고분군 일부\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관180360  
 \* 추정 I 군 5호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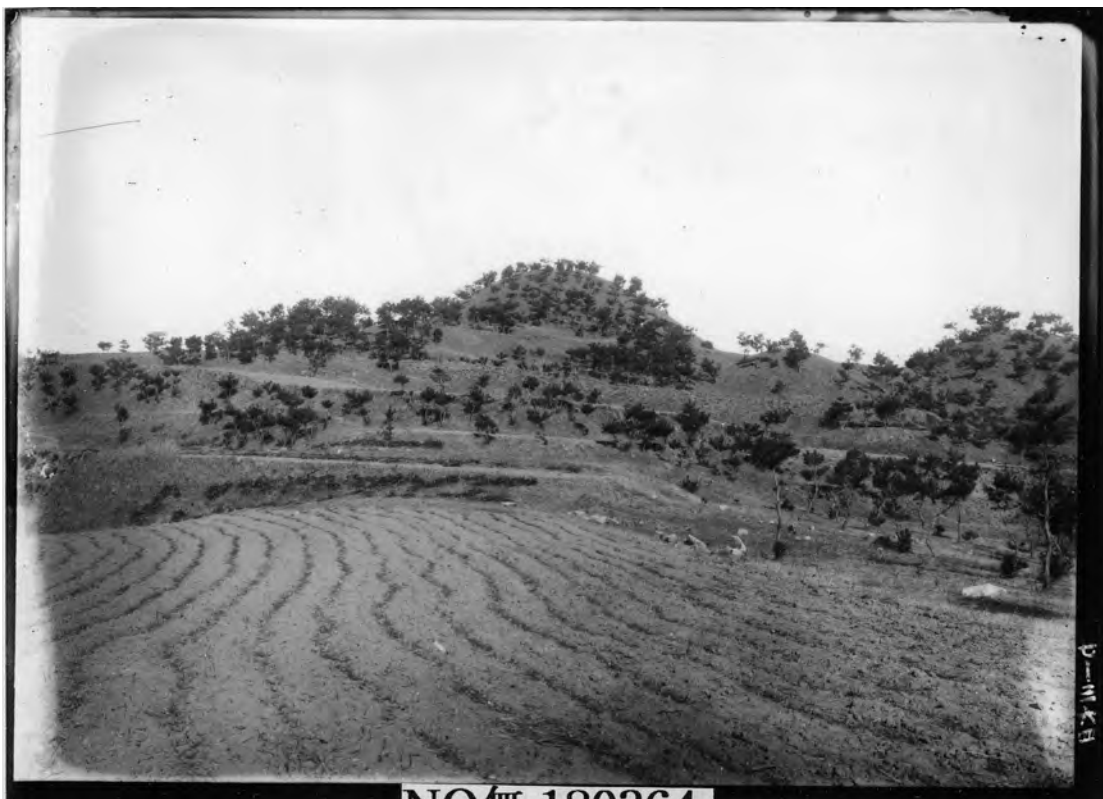
도201. 창녕 교동 제10, 11, 12호분 전경[좌로부터]\_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관180361  
 \* 남쪽(現 명덕저수지 방향)에서 찍은 I 군의 10~12호분



도202. 창녕 교동 제7호분 권역 전경\_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관180362  
 \* 남동쪽에서 찍은 사진 I 군 7호분 주변



도203. 창녕 교동 제10, 11, 12호분 전경[좌로부터]\_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판180363  
 \* I 군 7호분 조사 시 남동쪽에서 찍은 사진, 좌측부터 I 군 7·10·11·12호분



도204. 창녕 교동 제7호분 권역 전경\_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판1803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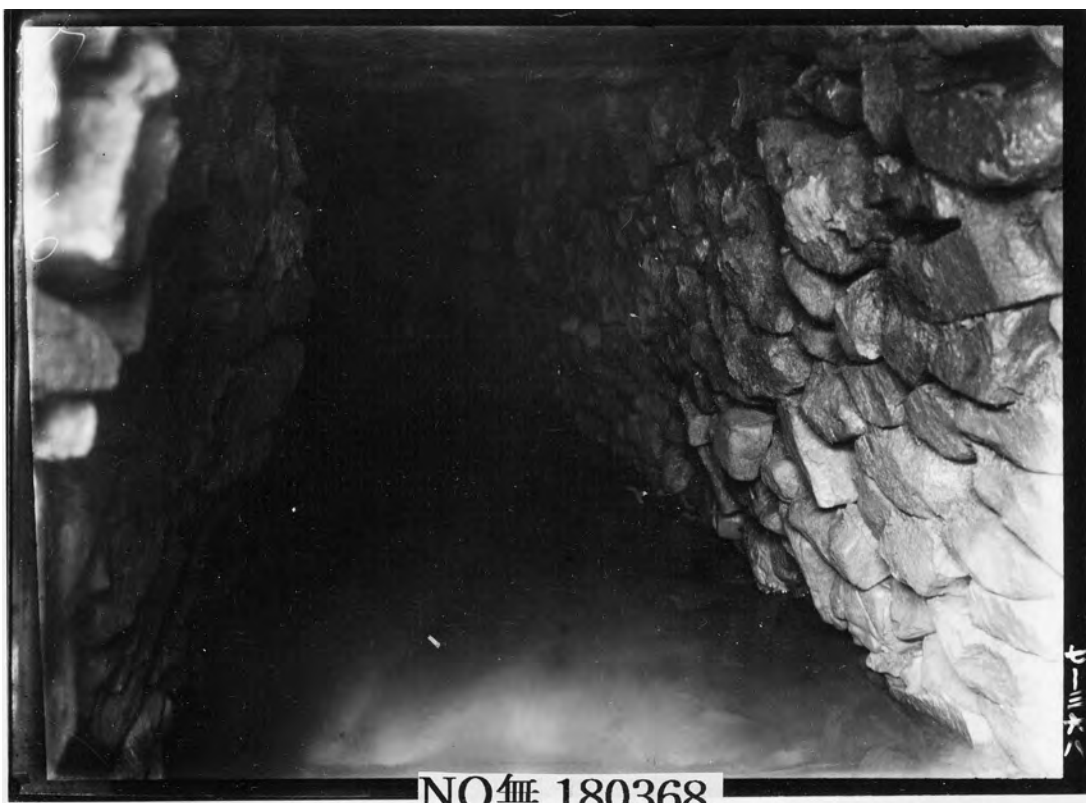
도205. 창녕 교동 제7호분 전경\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판180365  
\* 남쪽에서 찍은 I 군 7호분



도206. 창녕 교동 제6호분 석실 내부 토기 노출 상태\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판180366  
\* I 군 7호분 유물 출토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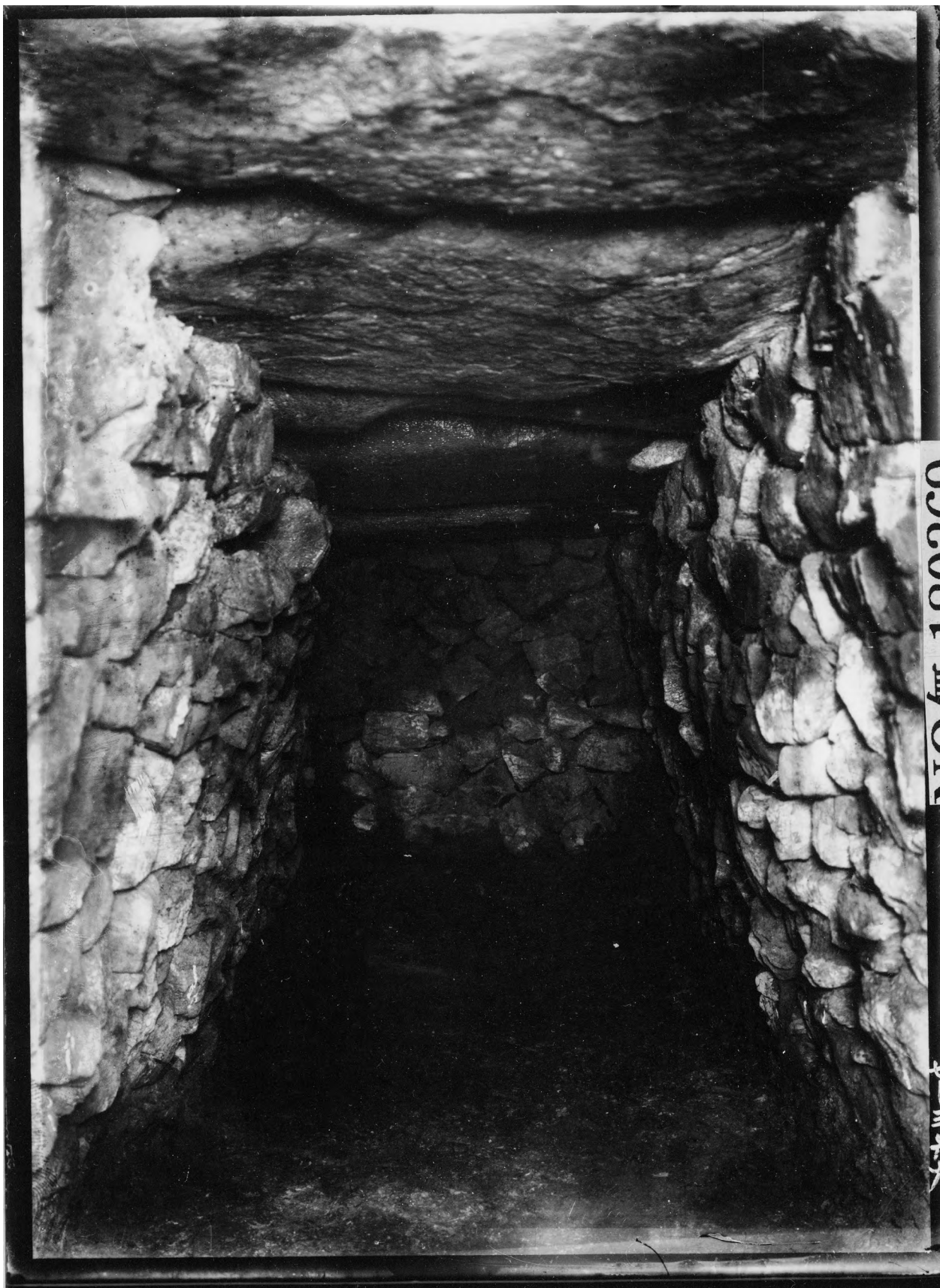


도207. 가야 고분 석실 내부(3-1)\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판180367  
\* I 군 7호분 내부-북단벽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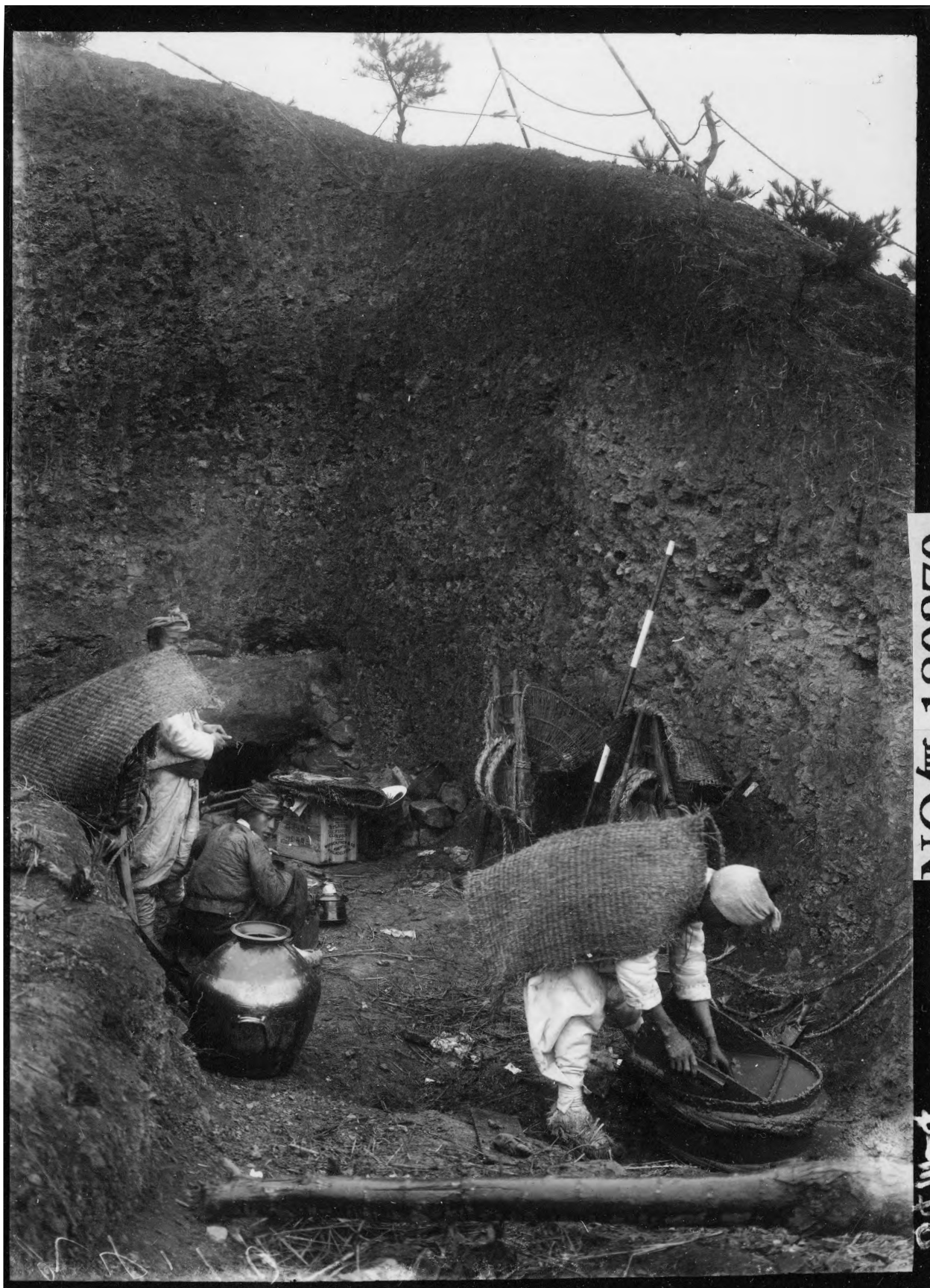
도208. 가야 고분 석실 내부(3-2)\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판180368  
\* I 군 7호분 내부-북단벽쪽





도209. 가야 고분 석실 내부(3-3)\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판180369  
 \* I 군 7호분 내부-북단벽쪽





도210. 석실분 발굴 광경\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판180370



도211. 창녕 교동 제8호분 전경\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판180371  
\* I 군 8호분 조사 전 전경



도212. 가야 고분 석실 내부 토기 노출 상태(3-1)\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판180372





도213. 가야 고분 석실 내부 토기 노출 상태(3-2)\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판180373



도214. 가야 고분 석실 내부 토기 노출 상태(3-3)\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판180374





도215. 석실분 발굴 광경  
\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판180375



도216. 창녕 교동 제9호분 전경\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판180376  
\* 1군 9호분 조사 전 전경



도217. 가야 고분 석실 내부 전경\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판180377  
\* I 군 9호분 매장주체부



도218. 창녕 교동 고분군 일부\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판180378  
\* I 군 10호분 조사 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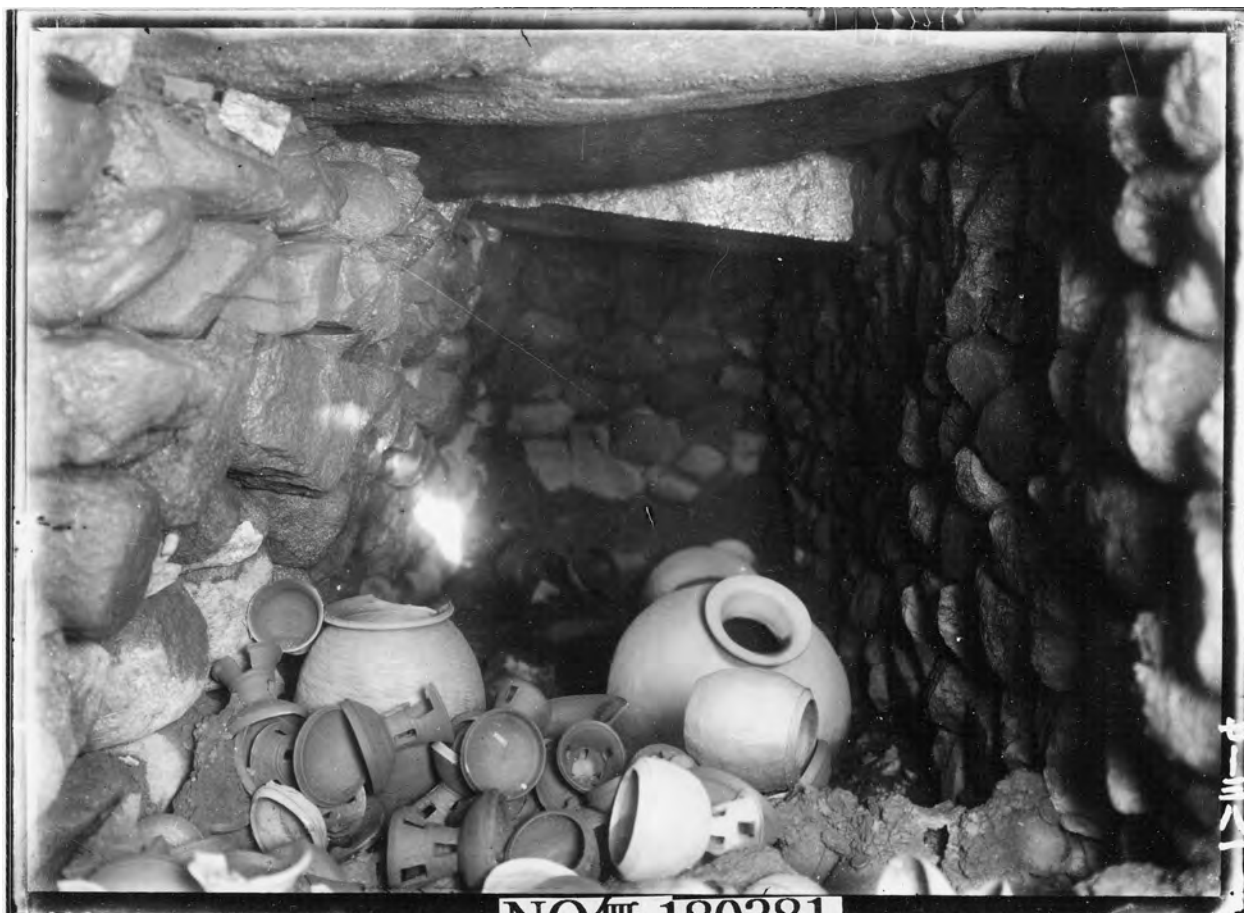


도219. 가야 고분 석실 내부 토기 노출 상태\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관180379  
\* I 군 10호분 유물 출토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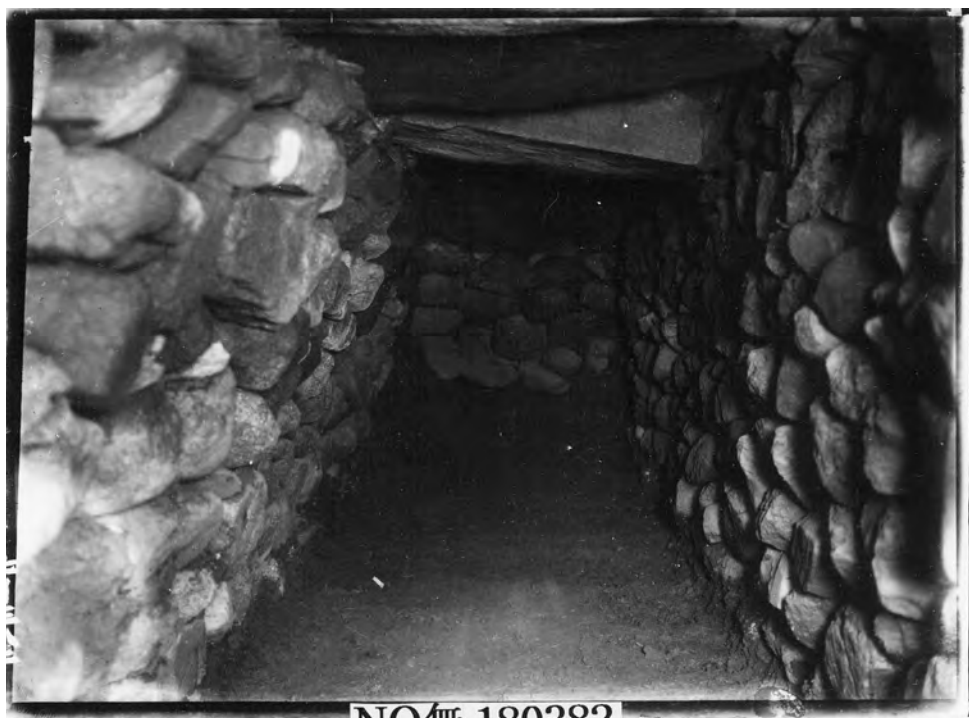


도220. 가야 고분 석실 내부 유물 노출 상태(3-1)\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관180380  
\* I 군 10호분 유물 출토상황





도221. 가야 고분 석실 내부 유물 노출 상태(3-2)\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판180381  
\* I 군 10호분 유물 출토상황



도222. 가야 고분 석실 내부 축조 상태(3-3)\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판180382  
\* I 군 10호분 유물 출토상황



도223. 창녕 교동 제11호분 전경\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관180383  
 \* I 군 12호분 전경(남동쪽에서), 원제목의 11호분은 오기



도224. 창녕 교동 고분군 일부\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관180384  
 \* I 군 11호분 전경(북서쪽에서)



도225. 가야 고분 석실 입구 전경

—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관180385  
\* I 군 11호분 조사 전경



도226. 창녕 교동 제11호분 석실 내부 축조 상태

—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관180386  
\* I 군 11호분 매장주체부 내부







도227. 창녕 교동 제11호분 석실 내부 유물 노출 상태[토기, 안교, 초두 등]\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판180387



도228. 창녕 교동 제11호분 석실 내부 유물 노출 상태[토기, 안교 등]\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판180388



도229. 창녕 교동 제11호분 출토 동제안교(2-1)\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판180389



도230. 창녕 교동 제11호분 출토 동제안교(2-2)\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판180390





도231. 창녕 교동 제12호분 전경\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관180391  
\* I 군 12호분 남쪽에서 촬영



도232. 창녕 교동 제12호분 적석\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관180392  
\* I 군 12호분 적석 노출 상황(북서쪽에서)





도233. 창녕 교동 제12호분 적석\_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판180393  
 \* I 군 12호분 적석 노출 상황(남동쪽에서)



도234. 창녕 교동 제12호분 묘실 전경\_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판180394  
 \* I 군 12호분 적석 노출 상황(북서쪽에서)



도235. 창녕 교동 제12호분 묘실 전경\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관180395  
 \* I 군 12호분 직석 노출 상황(남동쪽에서)



도236. 창녕 교동 제12호분 곡옥, 이식 노출 상태\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관180396





도237. 창녕 교동 제12호분 은제천, 은제요패 노출 상태\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판180397



도238. 창녕 교동 제12호분 은제요패 노출 상태\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판180398





도239. 창녕 교동 고분군 일부\_ 미등록 소판180399



도240. 창녕 교동 고분군 일부\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판180400



도241. 가야 고분 석실 입구\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관180401



도242. 창녕 교동 고분군 일부\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관180402  
\* II 군 10(日89)호분(右)과 11(日91)호분(左) 전경



도243. 창녕 교동 고분군 일부\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판180403



도244. 석실분 입구\_ 미등록 소판180404





도245. 창녕 교동 제89호분 현실 내부 유물 노출 상태[장경호, 통형기대, 유개고배, 환두대도 등]  
 \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관180405  
 \* Ⅱ 군 10(日89)호분 북단벽쪽 유물 출토 사진



도246. 창녕 교동 고분군 일부\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관1804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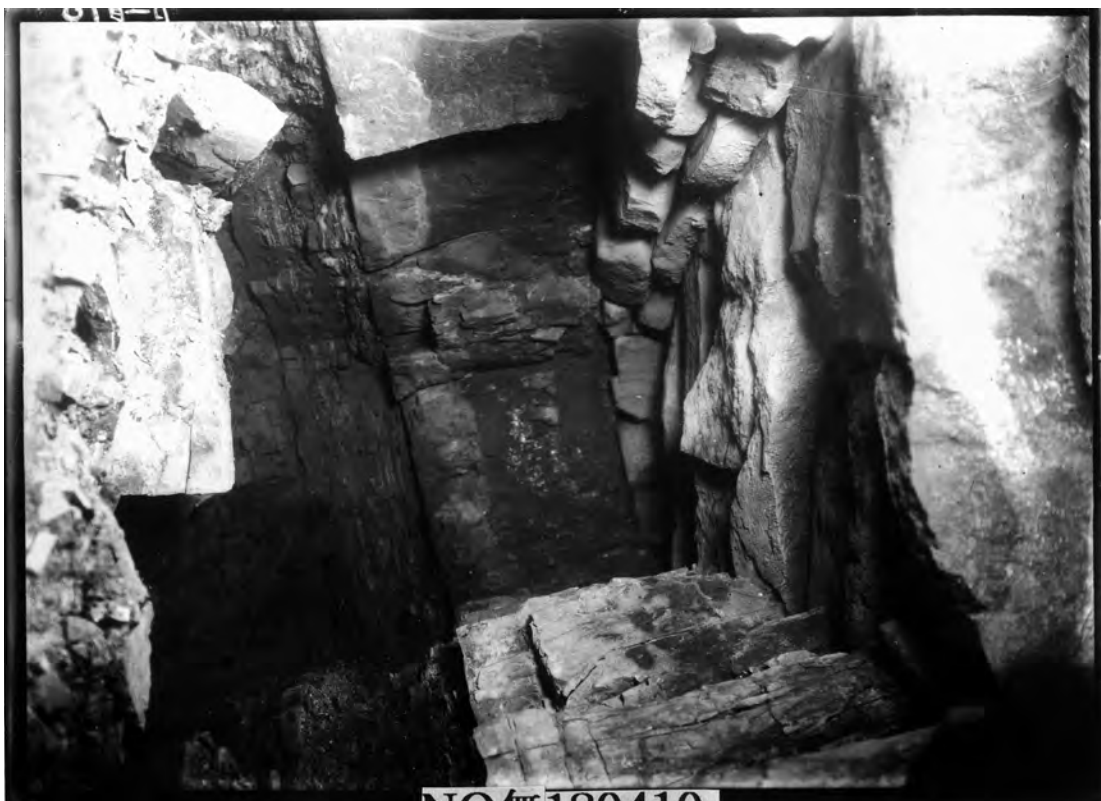
도247. 가야 고분 석실 내부 토기 노출 상태\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관180407



도248. 창녕 교동 고분군 일부\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관1804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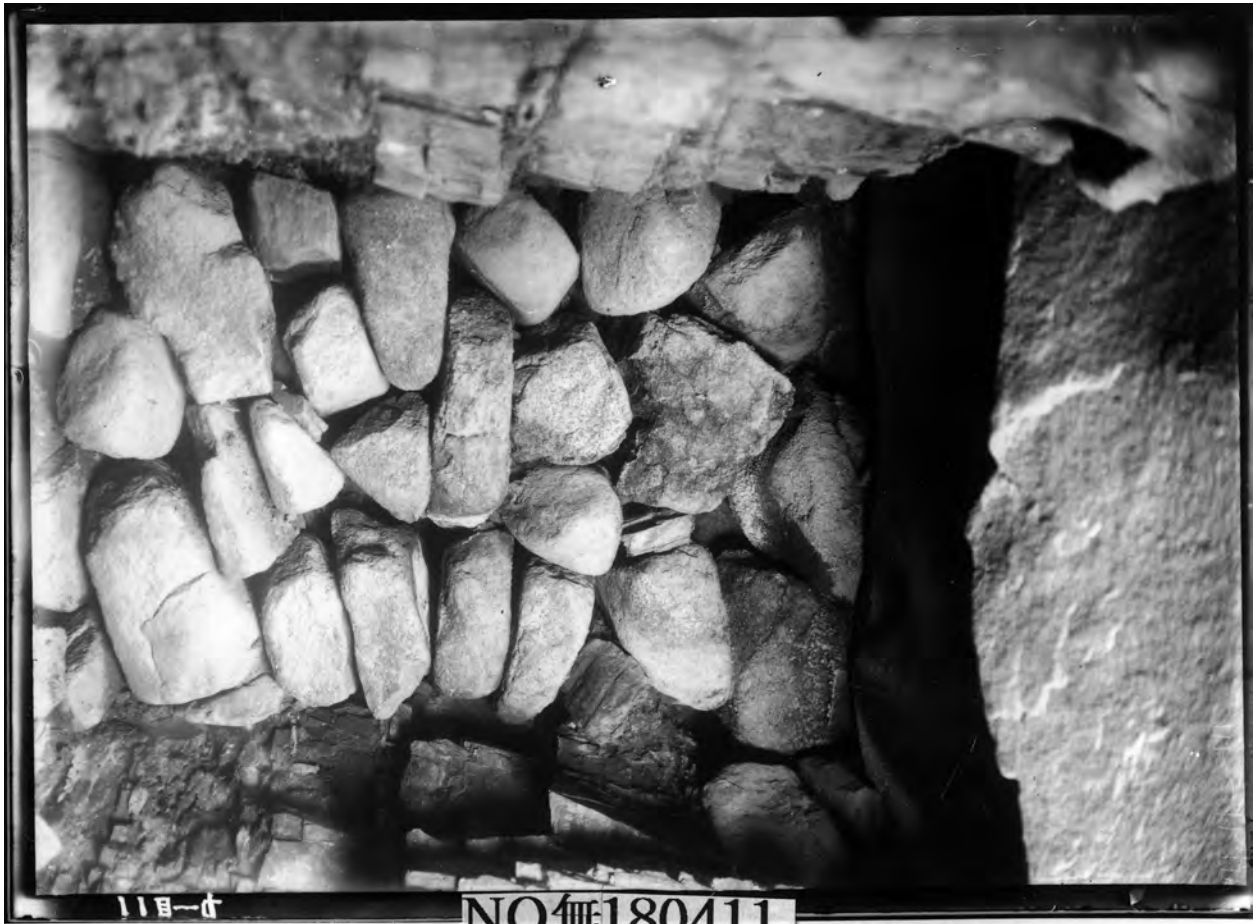


도249. 창녕 교동 고분군 일부\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관180409



도250. 가야 고분 석실 내부 축조 상태\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관1804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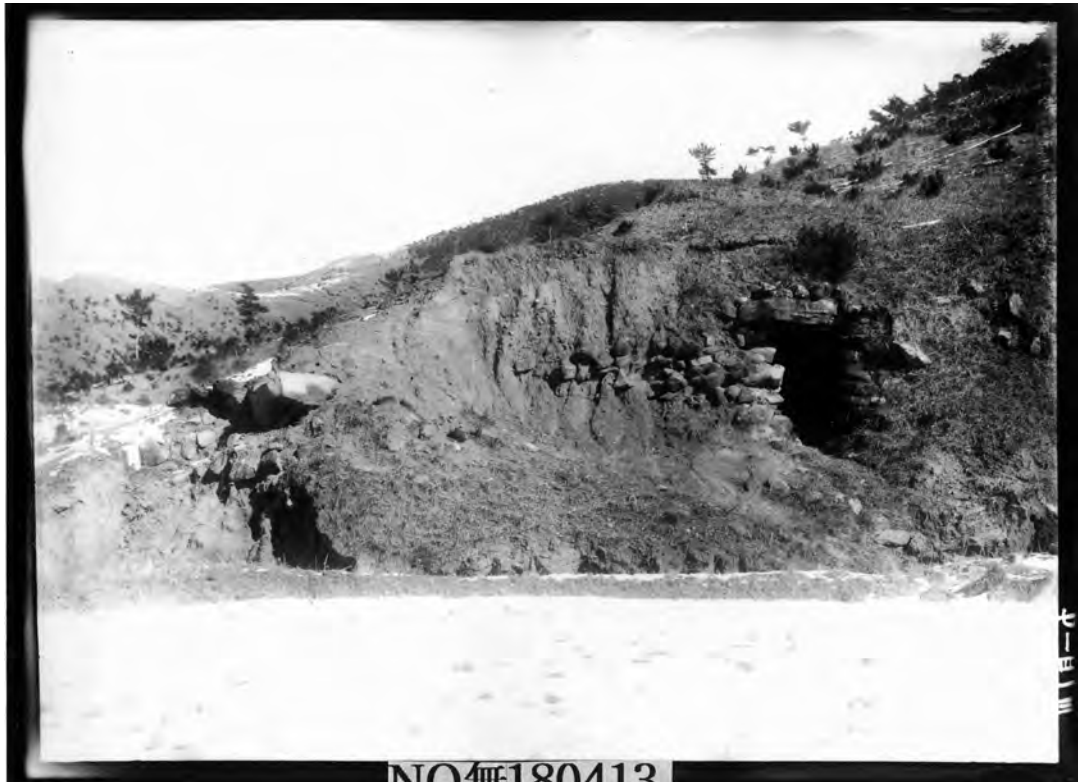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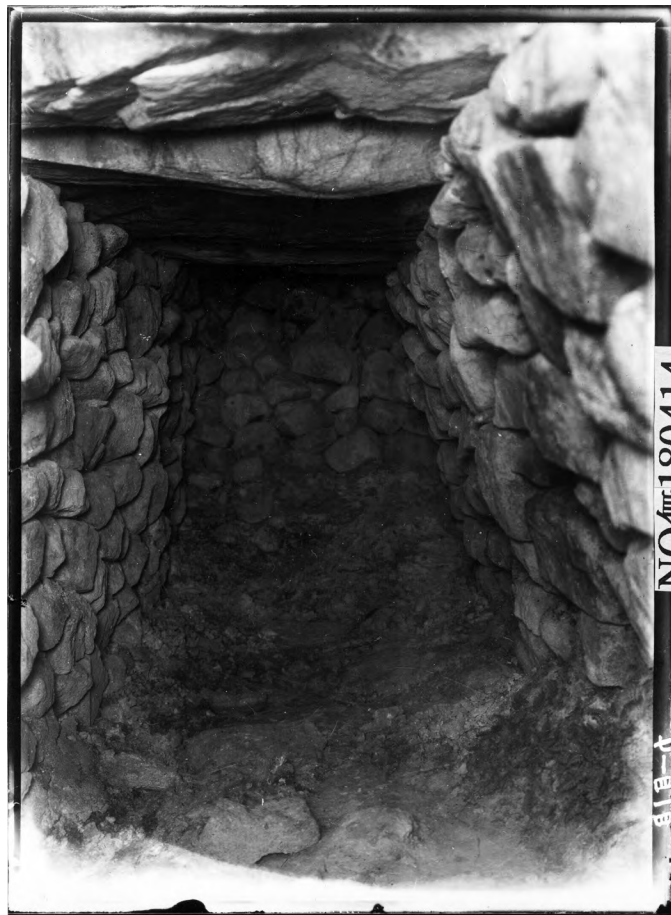
도251. 가야 고분 석실 입구\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판180411



도252. 창녕 교동 고분군 일부\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판180412



도253. 창녕 교동 고분군 일부\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관180413  
\* Ⅲ군(송현동) 12호(加17)분 모습



도254. 창녕 교동 도굴갱 석실 내부 축조 상태  
\_ 미등록 소관180414  
\* Ⅲ군(송현동) 12호(加17)분 북단벽쪽 사진





도255. 창녕 교동 고분군 일부\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판180415  
\* Ⅲ군(송현동)-위치불명



도256. 창녕 교동 고분군 일부\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판1804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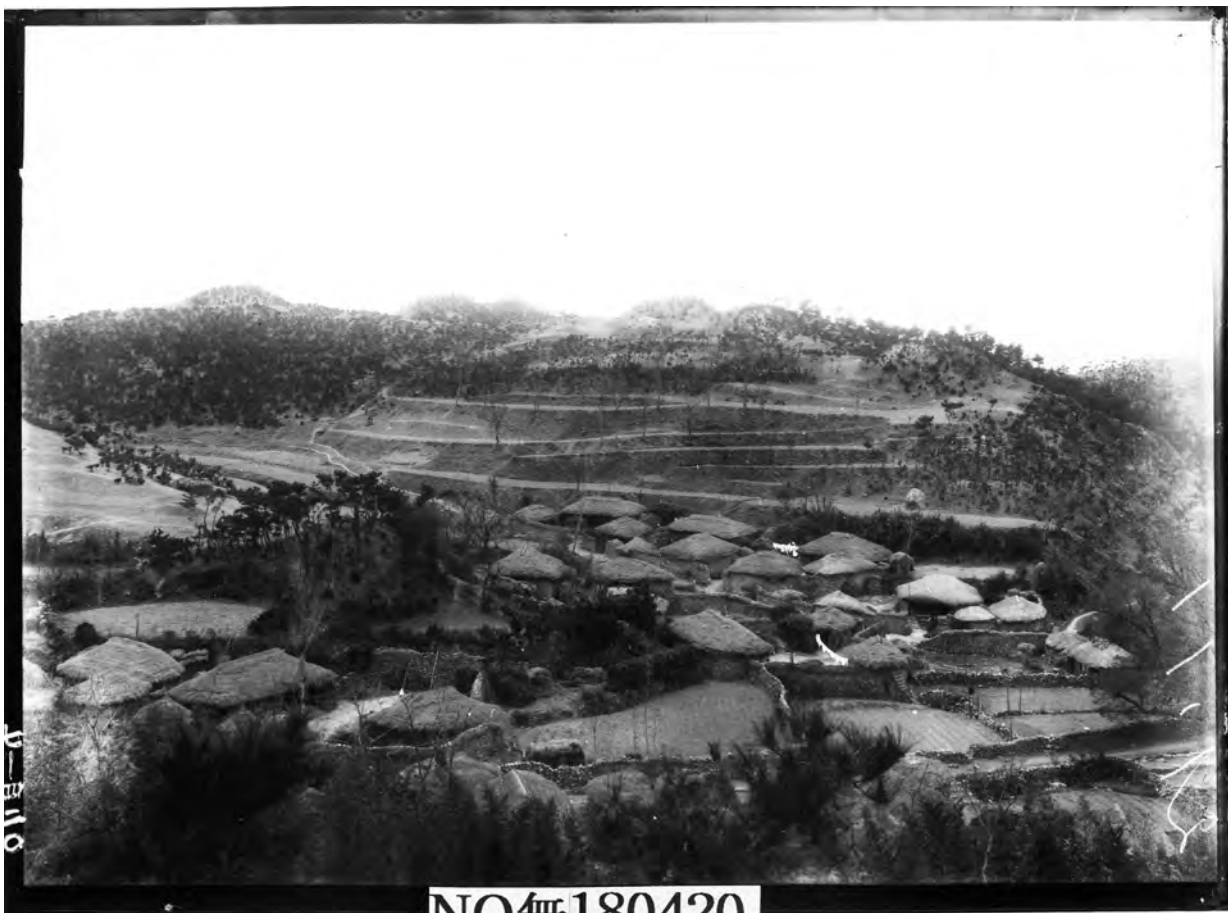
도257. 고분 전경\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판180417



도258. 고분군 전경\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판180418



도259. 고분 전경\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판180419



도260. 고분군 전경\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판1804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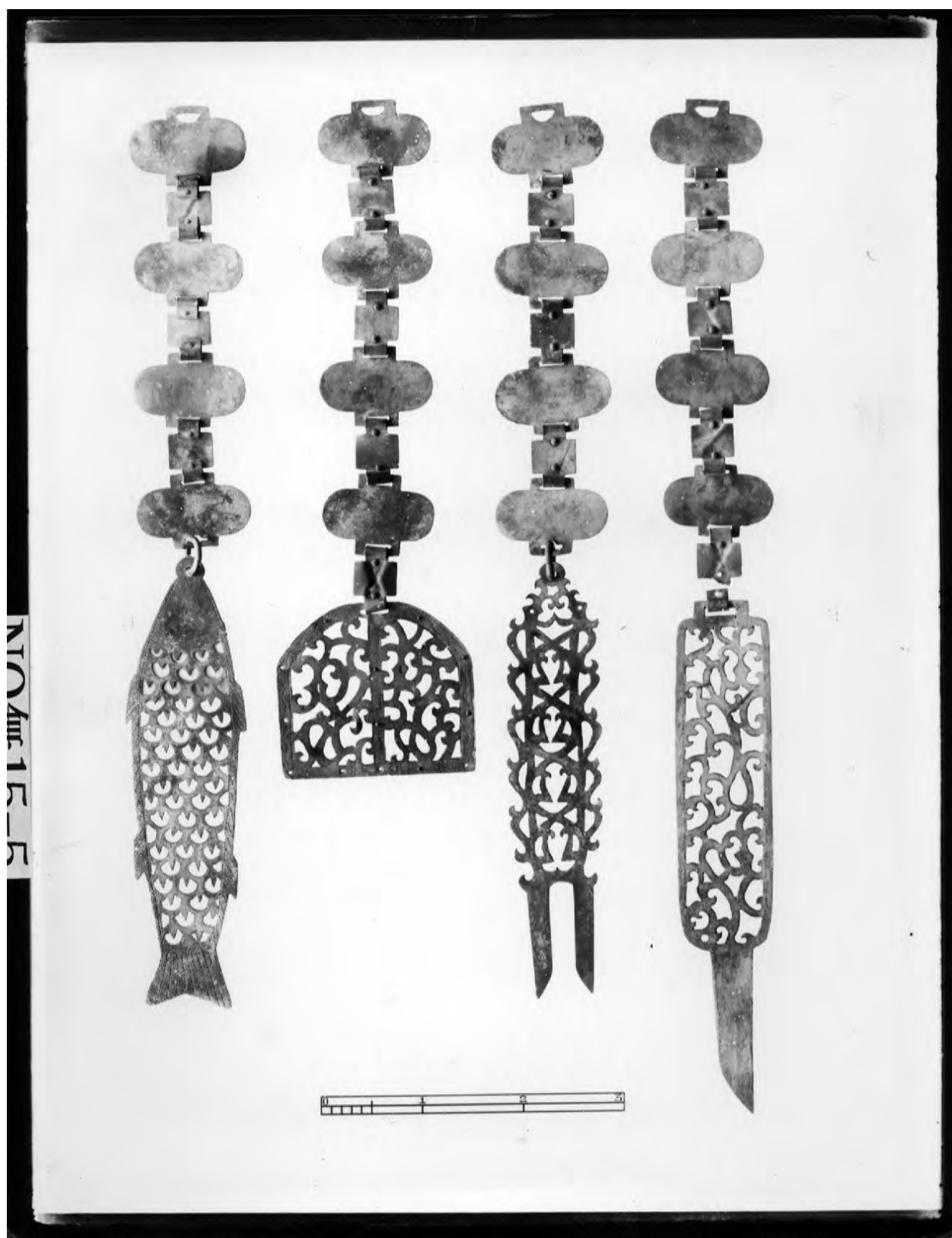


도261. 고분 전경\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판180421





도262. 고분 내부 전경\_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관180422



도263. 창녕 교동 제12호분 출토 은제요패\_미등록 중판15-5



### Ⅲ. 맺음말

창녕 고분에 대한 사진 자료는 총 263매가 남아 있으며 유적 66매, 유구 41매, 유물 156매로 구분된다. 유물이 가장 많은 이유는 발굴되어 보관되면서 촬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기 때문이라 생각되지만 유구의 사진이 41매 밖에 남아 있지 않은 점이 가장 아쉬운 현실이다.

2011~2012년 창녕군과 우리문화재연구원은 창녕 교동 7호분을 재발굴하여 봉분의 축조방법 등 일제강점기에 조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보강조사를 실시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그리고 2015년 국립김해박물관은 창녕 교동 7호분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발간하여 출토된 유물에 대한 분석을 행하였다. 거기에는 당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지만 송현동 고분 등과의 비교를 통해 매장 프로세스, 부장 양상 등을 복원하여 보고하였다. 또한 향후 교동 89호분에 대한 종합보고서도 준비되고 있다.

창녕 송현동 고분군을 비롯해 교동, 계성 고분군 등 많은 무덤들이 우리 손으로 발굴 조사되고 있다. 그리고 그 자료들이 공표되면서 창녕에 대한 이해와 고대 가야·신라의 관계에 대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의 발굴 자료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일제강점기에 조사되어 정식으로 보고되지 못하고 박물관 구석을 차지하고 있던 중요한 자료들을 우리 손으로 정리하여, 연구를 통해 세상의 빛을 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이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와 현재의 자료를 아우르는 100여 년의 연구성과를 집적하여야만, 고대 창녕의 정치체 성격을 더욱 잘 밝힐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번 보고서에는 창녕 조사에 관한 일제강점기 공문서 분석을 함께 실시하지 못하였다. 향후 함안 아라가야, 김해 금관가야, 고령 대가야, 진주 소가야 등의 유리건판 자료집 출간과 가야 고적조사 문서에 대한 종합적 해제를 통해 가야에 대한 이해를 더욱 높이도록 국립박물관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 도판목록

## 圖版目錄

도001.

제3회 사료조사 창녕 교동 고분군 전경  
(2-1)\_ 촬영1914년, 소판130268

\* 북쪽에서 바라본 I군 7호분 일대(왼쪽부터 12·11·7·5·6·4·3·2·1호분)

도002.

제3회 사료조사 창녕 교동 고분군 전경  
(2-2)\_ 촬영1914년, 소판130269

\* 북쪽(現 이문재 저수지 방면)에서 바라본 II군 일대(왼쪽 대형분 II군 10(日89)호분, 오른쪽 대형분 II군 22(日117)호분)

도003.

제3회 사료조사 창녕 북쪽의 고분 위에서 본 남쪽의 창녕 교동 고분군\_ 촬영  
1914년, 소판130270

\* I군 7호분 위에서 바라본 II군의 전경  
(앞:11·12호분, 左中:II군 10(日89)호분, 右中:II군 22(117)호분)

도004.

제3회 사료조사 창녕 교동 표형고분\_ 촬영  
1914년, 소판130271

\* III군(송현동) 9호분 부근에서 서쪽으로 바라본 III군 전경(앞 표형분 III군 6·7호분)

도005.

제3회 사료조사 창녕 교동 고분(2-1)\_ 촬영  
1914년, 소판130272

도006.

제3회 사료조사 창녕 교동 고분 내부  
(2-2)\_ 촬영1914년, 소판130273

도007.

제3회 사료조사 창녕 교동의 도굴된 고분 내부 석곽\_ 촬영1914년, 소판  
130274

도008.

제3회 사료조사 창녕 고분 출토 원저단  
경호\_ 촬영1914년, 소판130281

도009.

목마산성 아래 교동[송현동] 고분군 원  
경(2-1)\_ 소판150761

\* 남동쪽에서 바라본 II군 전경 좌측 대형분 II군 5(日116)호분, 우측 대형분 II군 10(日89)호분, 現 군인아파트 방향에서 촬영

도010.

목마산성 아래 교동[송현동] 고분군 원  
경(2-2)\_ 소판150762

\* 서쪽에서 바라본 II군과 III군 전경, 봉토분은 보이지 않음.

도011.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은제  
조익형관식편과 백화수피제관모편\_ 소  
판180227

도012.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금제  
이식, 유리구슬, 곡옥\_ 소판180228

도013.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유리  
구슬\_ 소판180229

도014.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은제  
과대장식\_ 소판180230

도015.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은제  
과대수식(4-1)\_ 소판180231

도016.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은제  
과대수식(4-2)\_ 소판180232

도017.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은제  
과대수식(4-3)\_ 소판180233

도018.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은제  
과대수식(4-4)\_ 소판180234

도019.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금동  
제식리편\_ 소판180235

도020.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족부  
골편\_ 소판180236

도021.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삼엽  
환두대도\_ 소판180237

도022.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환두  
대도\_ 소판180238

도023.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철검  
과 대도편\_ 소판180239

도024.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철도  
편과 이지창\_ 소판180240

도025.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도자  
와 단야구\_ 소판180241

도026.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철촉\_  
소판180242

도027.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철모  
(6-1)\_ 소판180243

도028.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철모  
(6-2)\_ 소판180244

도029.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철모  
(6-3)\_ 소판180245

도030.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철모  
(6-4)\_ 소판180246

도031.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철모  
와 철준(6-5)\_ 소판180247

도032.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철모  
(6-6)\_ 소판180248

도033.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철모  
(3-1)\_ 소판180249

도034.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철모  
(3-2)\_ 소판180250

도035.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철모  
(3-3)\_ 소판180251

도036.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패갑  
(3-1)\_ 소판180252

도037.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패갑  
(3-2)\_ 소판180253

도038.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패갑  
(3-3)\_ 소판180254

도039.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안고  
(2-1)\_ 소판180255

도040.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안고  
(2-2)\_ 소판180256

도041.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등자\_  
소판180257

도042.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마탁\_  
소판180258

도043.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행엽  
(2-1)\_ 소판180259

도044.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행엽  
과 성시구편(2-2)\_ 소판180260

도045.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운주\_  
소판180261

도046.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금동  
제식리 복륜편\_ 소판180262

도047.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철제  
교구\_ 소판180263

도048.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철제  
비편\_ 소판180264

도049.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철제  
비편\_ 소판180265

도050.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꺾쇠\_  
소판180266

도051.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사행  
상철기\_ 소판180267

도052.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과대  
장식과 기타\_ 소판180268

도053.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토제  
구슬\_ 소판180269

도054.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고배  
(26-1)\_ 소판180270

도055.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고배  
(26-2)\_ 소판180271

도056.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고배  
(26-3)\_ 소판180272

도057.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고배  
(26-4)\_ 소판180273

도058.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대부  
완(26-5)\_ 소판180274

도059.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파수  
대부완(26-6)\_ 소판180275

도060.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파수  
대부완(26-7)\_ 소판180276

도061.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파수  
대부완(26-8)\_ 소판180277

도062.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대부  
장경호(26-9)\_ 소판180278

도063.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장경  
호(26-10)\_ 소판180279

도064.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장경  
호(26-11)\_ 소판180280

도065.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원통  
형토기, 장경호(26-12)\_ 소판180281

도066.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원저  
단경호(26-13)\_ 소판180282

도067.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원저  
단경호(26-14)\_ 소판180283

도068.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원저  
단경호(26-15)\_ 소판180284

도069.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원저  
단경호(26-16)\_ 소판180285

도070.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원저  
단경호(26-17)\_소판180286

도071.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배  
(26-18)\_소판180287

도072.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배  
(26-19)\_소판180288

도073.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배  
(26-20)\_소판180289

도074.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완  
(26-21)\_소판180290

도075.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발  
(26-22)\_소판180291

도076.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통형  
기대(26-23)\_소판180292

도077.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파수  
부유개호(26-24)\_소판180293

도078.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파수  
부유개호(26-25)\_소판180294

도079.  
창녕 교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파수  
부유개호(26-26)\_소판180295

도080.  
창녕 교동 고분군 출토 장경호\_소판  
180296

도081.  
창녕 교동 고분군 출토 금제이식 각종  
[右:12호분, 中·左上:7호분, 左下:87  
호분]\_소판180297

도082.  
창녕 교동 고분군 출토 은제전\_소판  
180298

도083.  
창녕 교동 고분군 출토 환두대도\_소판  
180299  
\* 上:10호분

도084.  
창녕 교동 고분군 제7호분 출토 청동제  
각형용기(2-1)\_소판180300

도085.  
창녕 교동 고분군 제7호분 출토 청동제  
각형용기(2-2)\_소판180301

도086.  
창녕 교동 고분군 제11호분 출토 청동  
초두\_소판180302

도087.  
창녕 교동 고분군 제11호분 출토 청동  
초두 실측도\_소판180303

도088.  
창녕 교동 고분군 출토 철지금장합\_소  
판180304

도089.  
창녕 교동 고분군 출토 안교(3-1)\_소  
판180305  
\* I 군 7호분 출토품

도090.  
창녕 교동 고분군 출토 안교(3-2)\_소  
판180306-1  
\* I 군 7호분 출토품

도091.  
창녕 교동 고분군 출토 안교(3-3)\_소  
판180306-2  
\* I 군 7호분 출토품

도092.  
창녕 송현동 고분군의 고분 위에서 바  
라본 창녕 제5호분 방면\_소판220047  
\* 『大正七年度報告書』도판 제58의 제88도

의 원본일 가능성, III군(송현동 고분군)에서  
바라본 1·2군 전경

도093.  
창녕 송현동 고분군\_소판220048  
\* III군(송현동고분군) 제2호분(앞)과 제3호  
분(뒤)

도094.  
창녕 교동 고분군 제116호분 발굴 전  
동남쪽에서 바라본 우측 부근 고분군\_  
소판310037  
\* II 군 15(日116)호분 발굴 전 동남쪽에서  
바라본 우측 부근 고분군

도095.  
창녕 교동 고분군 제116호분 동쪽에서  
바라본 발굴 전의 상태\_소판310038  
\* II 군 15(日116)호분 동쪽에서 바라본 발  
굴 전의 상태

도096.  
창녕 교동 고분군 제116호분, 제117  
호분 위에서 바라본 서면 전형\_소판  
310039  
\* II 군 15(日116)호분, 22(日117)호분 위에  
서 바라본 서면 전형

도097.  
창녕 교동 고분군 제116호분 동쪽에서  
바라본 발굴 중의 상황\_소판310040

도098.  
창녕 교동 고분군 제116호분 소석 제거  
전의 석실 동부 입구 외면의 폐쇄석(2-  
1)\_소판310041

도099.  
창녕 교동 고분군 제116호분 소석 제거  
전의 석실 동부 입구 외면의 폐쇄석(2-  
2)\_소판310042

도100.  
창녕 교동 고분군 제116호분 북벽 제  
거 전의 석실 북벽 입구 외부\_소판  
310043

도101.  
창녕 교동 고분군 제116호분 두부 상면  
의 토기군(2-1)\_소판310044



도102.  
창녕 교동 고분군 제116호분 두부 상면  
의 토기군(2-2)\_소판310045

도103.  
창녕 교동 고분군 제116호분 두부 토기  
군\_소판310046

도104.  
창녕 교동 고분군 제116호분 석실 내  
점토와 토기 매물 상태\_소판310047

도105.  
창녕 교동 고분군 제116호분 발굴 후의  
석실 내부(3-1)\_소판310048

도106.  
창녕 교동 고분군 제116호분 발굴 후의  
석실 내부(3-2)\_소판310049

도107.  
창녕 교동 고분군 제116호분 발굴 후의  
석실 내부(3-3)\_소판310050

도108.  
창녕 교동 고분군 제116호분 발굴 후의  
석실 저부\_소판310051

도109.  
창녕 교동 고분군 제116호분 석실 입  
구\_소판310052

도110.  
창녕 교동 고분군 제117호분 동쪽에서  
바라본 발굴 전 상태\_소판310053

도111.  
창녕 교동 고분군 제117호분 발굴 중의  
남면 상황\_소판310054

도112.  
창녕 교동 고분군 제117호분 동쪽에서  
바라본 발굴 상황\_소판310055

도113.  
창녕 교동 고분군 제117호분 남쪽에서  
바라본 발굴 상황\_소판310056

도114.  
창녕 교동 고분군 제117호분 동쪽에서  
바라본 발굴 상황\_소판310057

도115.  
창녕 교동 고분군 제117호분 봉토 상부  
에서 내려다본 석실 천장 노출 상태\_소  
판310058

도116.  
창녕 교동 고분군 제117호분 석실 천장  
과 측벽 외부 노출 상태\_소판310059

도117.  
창녕 교동 고분군 제117호분 남서쪽 위  
에서 바라본 석실 천장의 함몰 상태(2-  
1)\_소판310060

도118.  
창녕 교동 고분군 제117호분 남쪽에서  
바라본 석실 천장의 함몰 상태(2-2)\_  
소판310061

도119.  
창녕 교동 고분군 제117호와 제116호  
분 동방분 위에서 바라본 발굴 상황\_소  
판310062

도120.  
교동 제116, 제117호분 등 창녕 고분군  
남쪽에서 바라본 원경\_소판310063

도121.  
창녕 교동 고분군 제119호분 동북쪽에  
서 바라본 발굴 전 상태\_소판310064

도122.  
창녕 교동 고분군 제117호분 위에서 바  
라본 서부의 고분군\_소판310065  
\* Ⅱ군 22(日117)호분 위에서 바라본 Ⅰ군 7  
호분 일대

도123.  
교동 제116호 부근의 창녕 고분군\_소  
판310066  
\* Ⅱ군에서 바라본 Ⅰ군 및 Ⅱ군 서쪽 고분  
군 일대

도124.  
화왕산 방면에서 바라본 창녕 교동 고  
분군 전경\_소판310067  
\* Ⅱ군 정상부(1호분 위쪽)에서 바라본 Ⅰ군  
및 Ⅱ군 일대

도125.  
화왕산 부근의 창녕 교동 고분군 일군\_  
소판310068  
\* Ⅱ군 정상부(1호분 위쪽)에서 바라본 Ⅰ군  
및 Ⅱ군 일대

도126.  
화왕산록의 창녕 교동 고분군 일군\_소  
판310069

도127.  
창녕 교동 고분군 제31호분 출토 금제  
이식\_조사1918년, 소판380156  
\*『大正七年度報告書』도판 제68의 2·3과  
동일

도128.  
창녕 교동 고분군 제31호분 출토 철편\_  
조사1918년, 소판380157  
\* 철정

도129.  
창녕 교동 고분군 제31호분 출토 금제  
이식편, 관옥, 환상금구, 유리제소옥\_  
조사1918년, 소판380158  
\*『大正七年度報告書』도판 제68의 1·  
4~8과 동일

도130.  
창녕 교동 고분 평면도, 단면도\_대판  
170012  
\* 1918년 야츠이[谷井]가 조사한 Ⅰ군의 12  
호분

도131.  
창녕 교동 고분 석곽부 실측도\_대판  
170013  
\*『미공개도면자료집』에는 '교동리 19호분  
실측도'라고 되어 있지만 19호가 아니라 Ⅱ  
군 10(日89)호분의 매장주체부 도면을 촬영  
(미등록 소판180405 참조)

도132.

창녕 교동 고분 유물 출토 상태 실측도\_대판170014

\* 미등록 소판180405를 참조하면 Ⅱ군 10(日89)호분의 유물 출토 상태를 실측한 도면을 촬영한 것으로 추정됨

도133.

창녕 교동 고분 평면도\_대판170015

\* Ⅱ군10(日89)호분의 평면 실측도로 추정됨

도134.

창녕 유적도[1/6000]\_대판170016

\* 오가와[小川]가 大正8년 2월 실측 후 大正10년 4월 제도했다는 기록(『미공개도면자료집』1, 107~109 참조)이 있으며 『大正七年度報告書』도판 제56의 제85도에 흑백으로 게재됨, 원판은 채색됨

도135.

창녕 고분 출토 금동제비와 청동령\_대판270029

도136.

창녕 교동, 송현동 고분군\_미등록 소판123-2

\* Ⅱ군 전경, 사진 좌측의 15(日116)호분·22(日117)호분의 봉토가 파괴되어있는 상황으로 1932년 발굴 당시 혹은 그 이후 촬영 가능성 높음, 우측 대형분은 Ⅱ군 10(日89)호분

도137.

창녕 교동, 송현동 고분군 원경\_미등록 소판123-7

\* 남쪽에서 촬영한 Ⅲ군 전경, 좌측은 1호분

도138.

창녕 교동, 송현동 고분군\_미등록 소판123-14

\* 남쪽에서 촬영한 Ⅱ군 22(日117)호분(左中) 주변의 고분군

도139.

창녕 교동, 송현동 고분군\_미등록 소판123-15

\* 동쪽(現 창녕박물관)에서 촬영한 Ⅱ군 15(日116)호분·22(日117)호분

도140.

창녕 송현동 고분군 제89호분 출토 검\_미등록 소판293-8

\* Ⅱ군 10(日89)호분 출토 검 실측도

도141.

창녕 교동 고분군 제31호분 출토 장경호\_조사1918년 梅原末治, 미등록 소판353-5

\* 『大正七年度報告書』도판 제64의 제97도와 동일

도142.

창녕 교동 고분군 제31호분 출토 유개 파수부호 각종\_조사1918년 梅原末治, 미등록 소판 353-6

\* 『大正七年度報告書』도판 제64의 제98도와 동일

도143.

창녕 교동 고분군 제31호분 출토 도자, 철모\_조사1918년 梅原末治, 미등록 소판353-9

\* 『大正七年度報告書』도판 제69의 제105도와 동일

도144.

창녕 교동 고분군 제31호분 출토 철정\_조사1918년 梅原末治, 미등록 소판 353-17

\* 『大正七年度報告書』도판 제67의 제104도와 동일

도145.

금제세환이식[左:창녕 교동 제7호분, 右:경주 보문리 고분 출토]\_조사1933년 原田淑人, 미등록 소판665-17

\* (左)Ⅰ군 7호분 출토 금제세환이식

도146.

금관총 출토 금제태환이식 창녕 교동 고분 출토 금제세환이식\_미등록 소판 665-19

\* (右)31호분 출토품

도147.

교동 제89호분 출토 패갑[소판180254와 동일]\_미등록 소판677-06

도148.

교동 제89호분 출토 패갑[소판180252와 동일]\_미등록 소판677-07

도149.

교동 제89호분 출토 파수부유개호[소판 180294와 동일]\_미등록 소판677-08

도150.

교동 제89호분 출토 완[소판180290과 동일]\_미등록 소판677-10

도151.

교동 제89호분 출토 검, 대도편[소판 180239와 동일]\_미등록 소판677-12

도152.

교동 제89호분 출토 배[소판180277과 동일]\_미등록 소판677-13

도153.

교동 제89호분 출토 배[소판180287과 동일]\_미등록 소판677-14

도154.

교동 제89호분 출토 파수대부완[소판 180275와 동일]\_미등록 소판677-16

도155.

경남 교동 출토 환두\_미등록 소판 699-06

도156.

교동 제12호분 출토 과대, 요패\_조사 1918년 梅原末治, 미등록 소판710-01

\* Ⅰ군 12호분 출토 과대, 요패

도157.

교동 제7호분 출토 청동합\_조사1918년 梅原末治, 미등록 소판710-03

\* Ⅰ군 7호분 출토 청동합

도158.

교동 출토 초두, 청동합\_미등록 소판 710-06

\* Ⅰ군 7호분 출토 초두, 청동합

도159.  
교동 제12호분 출토 유개장경호\_ 미등  
록 소판710-18  
\* I 군 12호분 출토 유개장경호

도160.  
교동 제10호분 출토 금동운주\_ 미등록  
소판710-20  
\* I 군 10호분 출토 금동제운주

도161.  
교동 제31호분 출토 토기\_ 조사1918년  
梅原末治, 미등록 소판710-23  
\*『大正七年度報告書』도판 제64의 제98도  
3~6, 8~11과 동일

도162.  
교동 출토 허리띠장식 복원도\_ 미등록  
소판710-24  
\* I 군 12호분, II 군 10(일89)호분 출토품  
등

도163.  
교동 제8호분 출토 동령\_ 미등록 소판  
710-26  
\* I 군 8호분 동령

도164.  
교동 제89호분 출토 패갑 (3-1)\_ 미등  
록 소판717-01

도165.  
교동 제89호분 출토 패갑 (3-2)\_ 미등  
록 소판717-02

도166.  
교동 제89호분 출토 패갑 (3-3)\_ 미등  
록 소판717-03

도167.  
교동 제12호분 출토 고배 개\_ 미등록  
소판723-03  
\* I 군 12호분 출토 고배 개, 미등록 소판  
723-04와 동일한 유물로 정면에서 촬영한  
것임

도168.  
교동 제12호분 출토 고배 개\_ 미등록  
소판723-04

\* 미등록 소판723-03과 동일한 유물로 위에  
서 촬영한 것임

도169.  
교동 제11호분 출토 은제삼엽문환두,  
규두\_ 미등록 소판740-10  
\* I 군 12호분 출토 은제삼엽문환두대도 및  
규두대도

도170.  
교동 제8호분 출토 청동마령\_ 미등록  
소판755-09  
\* I 군 8호분 청동마령

도171.  
교동 제89호분 출토 행엽\_ 미등록 소판  
755-10  
\* II 군 10(日89)호분 출토 행엽

도172.  
창녕 고분군\_ 미등록 소판877-02  
\* 동쪽에서 촬영한 I 군 7호분(右)과 II 군  
23호분(左下)과 24호분(左上)

도173.  
교동 고분군 출토 유개고배\_ 조사1922  
년 梅原末治, 미등록 소판946-04

도174.  
교동 제31호분 출토 유개고배\_ 조사  
1922년 梅原末治, 미등록 소판946-  
05  
\*『大正七年度報告書』도판 제67의 제101  
도 37~44와 동일

도175.  
교동 제31호분 출토 유개고배\_ 조사  
1922년 梅原末治, 미등록 소판946-  
06  
\*『大正七年度報告書』도판 제67의 제101  
도 45~52와 동일

도176.  
교동 제31호분 출토 유개고배\_ 조사  
1922년 梅原末治, 미등록 소판946-  
07  
\*『大正七年度報告書』도판 제65의 제99도  
1~8과 동일

도177.  
교동 제31호분 출토 유개고배\_ 조사  
1922년 梅原末治, 미등록 소판946-  
08  
\*『大正七年度報告書』도판 제65의 제99도  
9~16과 동일

도178.  
교동 제31호분 출토 유개고배\_ 조사  
1922년 梅原末治, 미등록 소판946-  
09  
\*『大正七年度報告書』도판 제65의 제99도  
17~22와 동일

도179.  
교동 제31호분 출토 유개고배\_ 조사  
1922년 梅原末治, 미등록 소판946-  
10  
\*『大正七年度報告書』도판 제66의 제100  
도 32~36과 동일

도180.  
교동 제31호분 출토 유개고배\_ 조사  
1922년 梅原末治, 미등록 소판946-  
11  
\*『大正七年度報告書』도판 제66의 제100  
도 23~26과 동일

도181.  
교동 제31호분 출토 유개고배\_ 조사  
1922년 梅原末治, 미등록 소판946-  
12  
\*『大正七年度報告書』도판 제66의 제100  
도 27~31과 동일

도182.  
교동 제31호분 출토 유개고배\_ 조사  
1922년 梅原末治, 미등록 소판946-  
14  
\*『大正七年度報告書』도판 제67의 제101  
도 26·40과 동일

도183.  
교동 제89호분 출토 대도\_ 조사1918  
년, 미등록 소판1041-02  
\* II 군 10(日89)호분 출토 대도, 소판  
180237 중 2·3과 동일



도184.

교동 제89호분 출토 철초\_ 조사1918년  
野守健, 미등록 소판1041-03

도185.

교동 제89호분 출토 철부\_ 조사1918  
년, 미등록 소판1041-05

도186.

교동 제89호분 출토 대도\_ 조사1918  
년, 미등록 소판1041-07

도187.

교동 고분 출토 초두 실측도\_ 미등록 소  
판1081-04

\* 소판170357·소판180303과 동일, I 군  
11호분 출토 동제 초두 실측도

도188.

송현동 제89호분 출토 검 실측도\_ 조사  
1923년, 미등록 소판1082-06

\* 미등록 소판293-8과 동일, II 군 10(日89)  
호분 출토 철초

도189.

창녕 교동 고분군 일부 원경\_ 조사1917  
년 今西龍, 미등록 소판170246

도190.

창녕 교동 제1군 제2호분 석실 입  
구\_ 조사1917년 今西龍, 미등록 소판  
170263

\*『大正六年度報告書』 사진111호 읍내면  
제I 군 제2호분(노출)과 동일, III 군 12(加  
17)호분

도191.

창녕 교동 고분군 일부 전경\_ 조사1917  
년 今西龍, 미등록 소판170270

\*『大正六年度報告書』 사진116호와 동일,  
남쪽에서 촬영한 I~III 군 전경 우측 II 군  
10(日89)호분

도192.

창녕 교동 제1군 제8호분 석실 내  
부\_ 조사1917년 今西龍, 미등록 소판  
170279

\*『大正六年度報告書』 사진113호와 동일,  
III 군 3호 내지는 4호

도193.

교동 제1군 제2호분 석실 내부\_ 조사  
1917년 今西龍, 미등록 소판170309

\*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도194.

교동 고분군 일부\_ 조사1917년 今西  
龍, 미등록 소판170337

\*『大正六年度報告書』 사진114호 읍내면  
제2군 고분 및 제3군 제10호분 원경과 동일,  
II 군 1(日89)호분

도195.

창녕 교동 고분군 원경\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판180355

\* 북쪽에서 촬영, 左: II 군 10(日89)호  
분, 中: II 군 22(日117)호분, 右: I 군  
7·11·12호분

도196.

창녕 교동 고분군 원경\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판180356

\* 송현동 고분군에서 촬영, 右: II 군 10(日  
89)호분

도197.

창녕 교동 고분군 원경\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판180357

\* 左: II 군 22(日117)호분

도198.

창녕 교동 제1, 2, 3, 4호분 전경[좌로  
부터]\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판180358

\* I 군 7호분 방향에서 촬영, 위에서부터 I  
군 1·2·3·4호분

도199.

창녕 교동 고분 석실 내부 노출 광경\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판  
180359

\* 추정 I 군 6호분

도200.

창녕 교동 고분군 일부\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판180360

\* 추정 I 군 5호분

도201.

창녕 교동 제10, 11, 12호분 전경[좌로  
부터]\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판180361

\* 남쪽(現 명덕저수지 방향)에서 찍은 I 군  
의 10~12호분

도202.

창녕 교동 제7호분 권역 전경\_ 조사  
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판180362

\* 남동쪽에서 찍은 사진 I 군 7호분 주변

도203.

창녕 교동 제10, 11, 12호분 전경[좌로  
부터]\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판180363

\* I 군 7호분 조사 시 남동쪽에서 찍은 사  
진, 좌측부터 I 군 7·10·11·12호분

도204.

창녕 교동 제7호분 권역 전경\_ 조사  
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판180364

\* M180362와 흡사

도205.

창녕 교동 제7호분 전경\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판180365

\* 남쪽에서 찍은 I 군 7호분

도206.

창녕 교동 제6호분 석실 내부 토기 노출  
상태\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판180366

\* I 군 7호분 유물 출토상황

도207.

가야 고분 석실 내부(3-1)\_ 조사1918  
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판180367

\* I 군 7호분 내부-북단벽쪽

도208.

가야 고분 석실 내부(3-2)\_ 조사1918  
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판180368

\* I 군 7호분 내부-북단벽쪽

도209.

가야 고분 석실 내부(3-3)\_ 조사1918  
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판180369

\* I 군 7호분 내부-북단벽쪽

도210.  
석실분 발굴 광경\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판180370

도211.  
창녕 교동 제8호분 전경\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판180371  
\* I 군 8호분 조사 전 전경

도212.  
가야 고분 석실 내부 토기 노출 상태(3-1)\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판180372

도213.  
가야 고분 석실 내부 토기 노출 상태(3-2)\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판180373

도214.  
가야 고분 석실 내부 토기 노출 상태(3-3)\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판180374

도215.  
석실분 발굴 광경\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판180375

도216.  
창녕 교동 제9호분 전경\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판180376  
\* I 군 9호분 조사 전 전경

도217.  
가야 고분 석실 내부 전경\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판180377  
\* I 군 9호분 매장주체부

도218.  
창녕 교동 고분군 일부\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판180378  
\* I 군 10호분 조사 전 전경

도219.  
가야 고분 석실 내부 토기 노출 상태\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판180379  
\* I 군 10호분 유물 출토상황

도220.  
가야 고분 석실 내부 유물 노출 상태(3-1)\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판180380  
\* I 군 10호분 유물 출토상황

도221.  
가야 고분 석실 내부 유물 노출 상태(3-2)\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판180381  
\* I 군 10호분 유물 출토상황

도222.  
가야 고분 석실 내부 축조 상태(3-3)\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판180382  
\* I 군 10호분 유물 출토상황

도223.  
창녕 교동 제11호분 전경\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판180383  
\* I 군 12호분 전경(남동쪽에서), 원제목의 11호분은 오기

도224.  
창녕 교동 고분군 일부\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판180384  
\* I 군 11호분 전경(북서쪽에서)

도225.  
가야 고분 석실 입구 전경\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판180385  
\* I 군 11호분 조사 전경

도226.  
창녕 교동 제11호분 석실 내부 축조 상태\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판180386  
\* I 군 11호분 매장주체부 내부

도227.  
창녕 교동 제11호분 석실 내부 유물 노출 상태[토기, 안교, 초두 등]\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판180387

도228.  
창녕 교동 제11호분 석실 내부 유물 노출 상태[토기, 안교 등]\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판180388

도229.  
창녕 교동 제11호분 출토 동제안교(2-1)\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판180389

도230.  
창녕 교동 제11호분 출토 동제안교(2-2)\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판180390

도231.  
창녕 교동 제12호분 전경\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판180391  
\* I 군 12호분 남쪽에서 촬영

도232.  
창녕 교동 제12호분 적석\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판180392  
\* I 군 12호분 적석 노출 상황(북서쪽에서)

도233.  
창녕 교동 제12호분 적석\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판180393  
\* I 군 12호분 적석 노출 상황(남동쪽에서)

도234.  
창녕 교동 제12호분 묘실 전경\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판180394  
\* I 군 12호분 적석 노출 상황(북서쪽에서)

도235.  
창녕 교동 제12호분 묘실 전경\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판180395  
\* I 군 12호분 적석 노출 상황(남동쪽에서)

도236.  
창녕 교동 제12호분 곡옥, 이식 노출 상태\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판180396

도237.  
창녕 교동 제12호분 은제천, 은제요패 노출 상태\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판180397

도238.  
창녕 교동 제12호분 은제요패 노출 상태\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판180398

도239.  
창녕 교동 고분군 일부\_ 미등록 소판  
180399

도240.  
창녕 교동 고분군 일부\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판180400

도241.  
가야 고분 석실 입구\_ 조사1918년 谷  
井濟一, 미등록 소판180401

도242.  
창녕 교동 고분군 일부\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판180402  
\* II군 10(日89)호분(右)과 11(日91)호분  
(左) 전경

도243.  
창녕 교동 고분군 일부\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판180403

도244.  
석실분 입구\_ 미등록 소판180404

도245.  
창녕 교동 제89호분 현실 내부 유물 노  
출 상태[장경호, 통형기대, 유개고배,  
환두대도 등]\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판180405  
\* II군 10(日89)호분 북단벽쪽 유물 출토 사  
진

도246.  
창녕 교동 고분군 일부\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판180406

도247.  
가야 고분 석실 내부 토기 노출 상태\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판  
180407

도248.  
창녕 교동 고분군 일부\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판180408

도249.  
창녕 교동 고분군 일부\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판180409

도250.  
가야 고분 석실 내부 축조 상태\_ 조사  
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판180410

도251.  
가야 고분 석실 입구\_ 조사1918년 谷  
井濟一, 미등록 소판180411

도252.  
창녕 교동 고분군 일부\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판180412

도253.  
창녕 교동 고분군 일부\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판180413  
\* III군(송현동) 12호(加17)분 모습

도254.  
창녕 교동 도굴갱 석실 내부 축조 상태\_  
미등록 소판180414  
\* III군(송현동) 12호(加17)분 북단벽쪽 사진

도255.  
창녕 교동 고분군 일부\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판180415  
\* III군(송현동)-위지불명

도256.  
창녕 교동 고분군 일부\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판180416

도257.  
고분 전경\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  
등록 소판180417

도258.  
고분군 전경\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판180418

도259.  
고분 전경\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  
등록 소판180419

도260.  
고분군 전경\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등록 소판180420

도261.  
고분 전경\_ 조사1918년 谷井濟一, 미  
등록 소판180421

도262.  
고분 내부 전경\_ 조사1918년 谷井濟  
一, 미등록 소판180422

도263.  
창녕 교동 제12호분 출토 은제요패\_ 미  
등록 중판15-5



# 참고문헌

## 參考文獻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1, 『창녕 송현동 고분군 I』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2, 『창녕 송현동 고분군 II』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3, 『창녕 교동 고분군』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4, 『창녕 영산 고분군』  
우리文化財研究院, 2014, 『昌寧 校洞과 松峴洞 古墳群-第1群 7號墳 및 周邊 古墳』  
우리文化財研究院, 2014, 『사적 제514호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종합학술연구보고서-』  
朝鮮總督府, 1920, 『大正六年度 古蹟調査報告』  
朝鮮總督府, 1922, 『大正七年度 古蹟調査報告』
- 김수환, 2015, 「일제강점기 가야고분 조사에 대한 검토 -창녕지역 고분 조사를 중심으로-」, 『비사벌. 가야에서 신라로 -‘비사벌의 지배자’ 개최 기념 심포지움』, 김해박물관  
김옥순, 2012, 「창녕지역 양식 토기의 생산체계」, 『백제학보』7  
김용성, 2011, 「昌寧地域의 新羅高塚과 그 意義」, 『신라사학보』22號  
박천수, 1990, 『5~6세기 창녕지역 도질토기의 연구』, 경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_\_\_\_\_, 2001, 「考古資料를 통해 본 가야시기의 昌寧地方」, 『가야시기 창녕지방의 역사·고고학적 성격』,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배정연, 2012, 『삼국시대 창녕지역 토기문화 연구』, 부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경철, 1989, 「삼한.삼국.통일신라시대의 부산」, 『부산시사』1, 부산직할시사 편찬위원회  
심현철, 2013, 「창녕 교동 12호분의 구조와 성격」, 『야외고고학』18  
이성주, 2012, 「고대 창녕지역집단의 고고학적 논의」, 『군사연구』제133집  
이순자, 2007,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희준, 2005, 「4~5세기 창녕 지역 정치체의 음력 구성과 동향」, 『嶺南考古學』37號  
이성주, 1993, 「洛東江沿岸樣式土器에 대하여」, 제2회 영남고고학회 학술발표회자료집  
정인태, 2012, 「창녕지역 고분조사 및 성과」, 『백제학보』7  
\_\_\_\_\_, 2015, 「창녕지역 고분 축조기법 검토」, 『계성고분군의 학술적 가치 그리고 활용』창녕군,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정징원, 홍보식, 1995, 「昌寧地域의 古墳文化」, 『韓國文化研究』7,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주보돈, 2009, 「문헌상의 본 고대사회 창녕의 향방」, 『한국고대사 속의 창녕』,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최종규, 1983, 「중기고분의 성격에 대한 약간의 고찰」, 『釜大史學』第7輯  
하승철, 2014, 「토기와 묘제로 본 고대 창녕의 정치적 동향」, 『嶺南考古學』70號  
하승철, 2001, 「伽倻西南部地域 出土 陶質土器에 대한 一考察」, 경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하승철, 2009, 「4~6世紀代 昌寧地域 陶質土器의 變遷」, 『慶南研究』창간호  
현희정, 2006, 『삼국시대 창녕지역 횡구식석실묘 출토 토기 양식의 소멸과정 연구』, 동아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보식, 2011, 「고분을 통해 본 고대 창녕지역 정치체의 성격」, 『고대 창녕지역사의 재조명』
- 藤井和夫, 1981, 「昌寧地方古墳出土陶質土器の編年について」, 『神奈川考古』12  
定森秀夫, 1982, 「韓國慶尙南道釜山・金海地域出土陶質土器の検討」, 『平安博物館紀要』7  
穴沢味光・馬目順一, 1975, 「昌寧校洞古墳群 -「梅原考古資料」を中心とした谷井濟一氏發掘資料の研究-」, 『考古學雜誌』第60卷 第4號

#### 발행

국립김해박물관  
50911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의길 190  
[www.gimhae.museum.go.kr](http://www.gimhae.museum.go.kr)

Gimhae National Museum  
190, Gayaui-gil, Gimhae-si, Gyeongsangnam-do, Korea  
50911  
[www.gimhae.museum.go.kr](http://www.gimhae.museum.go.kr)

#### 제작

황 룡  
38036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갈곡성지길 98  
T. 050 5273 0507 F. 050 5373 0507  
[hry0507@naver.com](mailto:hry0507@naver.com)

98, Galgokseongji-gil, Cheonbuk-myeon, Gyeongju-si, Gyeongsangbuk-do, Korea  
38036  
T. 050 5273 0507 F. 050 5373 0507  
[hry0507@naver.com](mailto:hry0507@naver.com)

발간등록번호 11-1371087-000018-01  
ISBN 979-11-85106-07-6 93910

#### 표지

창녕 교동 표형고분  
1914년 촬영  
소판 130271

